

기획연구

2022-0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Distance Ecological Culture Trails
for Revitalization of Ecotourism

김보국 이강진 이성재 천정윤 김수용 조하진 박정민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연구진 소개

김보국

전북대학교 공학박사(환경공학)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진

하와이대학교 경제학박사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재

전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정윤

고려대학교 이학박사(환경계획 및 조경학)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용

전북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조하진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공학석사(환경공학)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문학박사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Distance Ecological Culture Trails
for Revitalization of Ecotourism

김보국 이강진 이성재 천정윤 김수용 조하진 박정민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1절, 제4장, 제5장
공동연구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제2장 2절 3절
	이성재	선임연구위원	제4장 2절 3절
	천정운	연구위원	제3장 3절 4절
	김수용	전문연구원	연구총괄지원 제3장 1절 2절 3절
	조하진	전문연구원	제2장 2절, 3절
	박정민	초빙연구원	제4장 2절, 부록

자문위원	박종석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센터장
	최하나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실장
	이성석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생태관광팀 팀장
	최승현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생태관광팀 주무관

연구관리 코드 : 22GI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는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 본격적인 생태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였음
- 12개 시군(전주, 부안 제외)에 전라북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육성되고 있으며 2017년 부터는 우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한 전북천리길 44개 노선 405km가 조성되어 걷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전라북도 10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있음
- 전북천리길, 12개 생태관광지, 기 구축된 생태탐방로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는 물론 생태관광마을, 생생마을에 지원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 육성된 생태관광자원 등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를 융합한 장거리걷기 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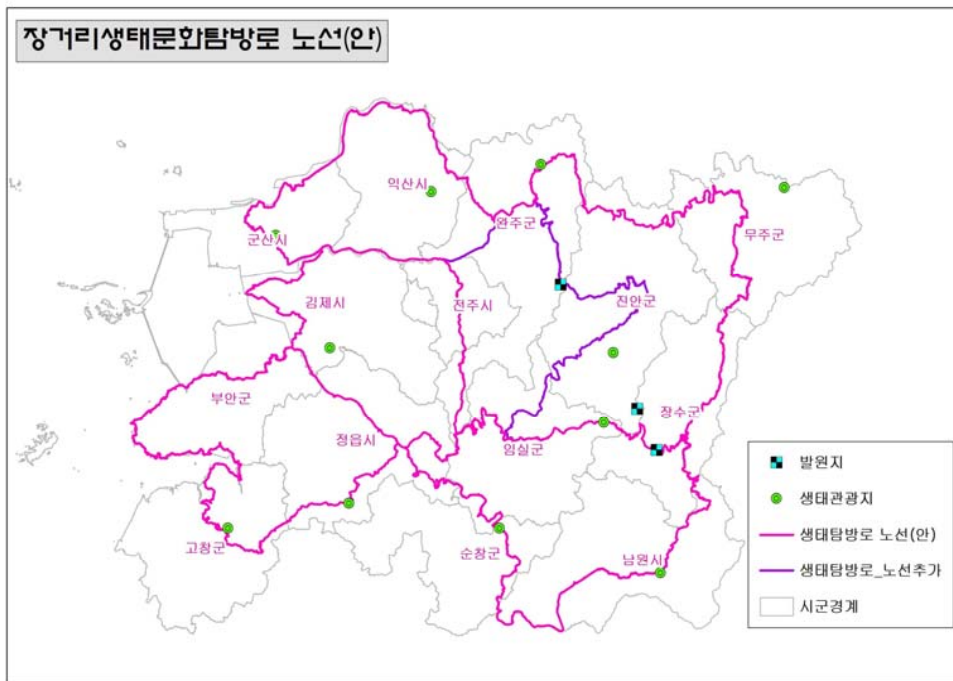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으로 설정하였음
- 연구 방법은 국내외 주요 장거리 걷기길의 구축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노선선정을 위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면담을 통하여 노선(안)을 최종 확정하고자 계획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 선정

- ① 기존탐방로, ② 보전자원, ③ 탐방자원, ④ 연결자원, ⑤ 기반시설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평가항목별로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
- 연구실분석 → 임의 제안노선 추출 → 위성사진 분석 → 현장확인 → 노선변경 및 보완 → 노선확정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노선을 선정함



■ 정책제언

- 전라북도 장거리 걷기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자연을 고려한 장거리 생태문화 탐방로 구축,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구축 협의체 구성 등의 필요성을 제언함

요 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3.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6

제2장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사례
-----	----------------

1.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9
2. 국내외 탐방로 동향 분석	12
3. 기반시설 및 활성화 프로그램 사례	55

제3장	생태문화탐방로 자원현황 및 적지분석
-----	---------------------

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자원 현황	73
2. 전라북도 탐방로 현황 및 시사점	77
3.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지표	80
4.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적지분석	95

제4장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및 활성화 방안

1.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적정 노선(안)	107
2. 생태문화탐방로 활성화 방안	116
3. 생태문화탐방로 관리방안	127

제5장 결론 및 고찰

1. 결론	133
2. 고찰	139

참고문헌	143
------------	-----

영문요약 (Summary)	147
----------------------	-----

부록	153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5
[표 2-1] 전국단위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10
[표 2-2] 숲길의 종류 및 개요	11
[표 2-3] 내포문화숲길의 조성 원칙과 방향	18
[표 2-4] 규슈올레 여행자 에티켓	28
[표 2-5] 클래식 잉카트레일 4일코스 예시	52
[표 3-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자원 공간DB 구축 현황	73
[표 3-2] 자연생태자원 현황	74
[표 3-3] 역사문화자원 현황	76
[표 3-4] 시군별 걷기 길 조성 현황	78
[표 3-5]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서 제시된 생태탐방자원	82
[표 3-6]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서 제시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지역 분석 기준표	82
[표 3-7] 전라북도 생태탐방자원 평가지표(2008)	83
[표 3-8] 부안군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평가지표(2008)	84
[표 3-9] 기존탐방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87
[표 3-10] 보전자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88
[표 3-11] 탐방자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90
[표 3-12] 연결자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92
[표 3-13] 기반시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94
[표 3-14]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방법	95
[표 3-15] 자원 가치별 평가 점수 부여	96
[표 3-16] 기존 탐방로 부문 평가지표 점수산정 결과	97
[표 3-17] 보전자원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98
[표 3-18] 탐방자원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99
[표 3-19] 연결자원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101
[표 3-20] 기반시설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102

[표 4-1] 현장조사 항목	112
[표 4-2] 전라북도 생생마을 추진현황	116
[표 4-3] 가야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119
[표 4-4] 금강마실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120
[표 4-5] 동학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121
[표 4-6] 문물교류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121
[표 4-7] 순례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122
[표 4-8] 프랑스 랑도네 운영 프로그램 사례	125
[표 4-9]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주요 사업내용	128
[표 4-10] 프랑드랑도네협회 세부미션 별 활동내용	129
[표 4-11] (사)제주올레 주요 활동내용	129
 [표 5-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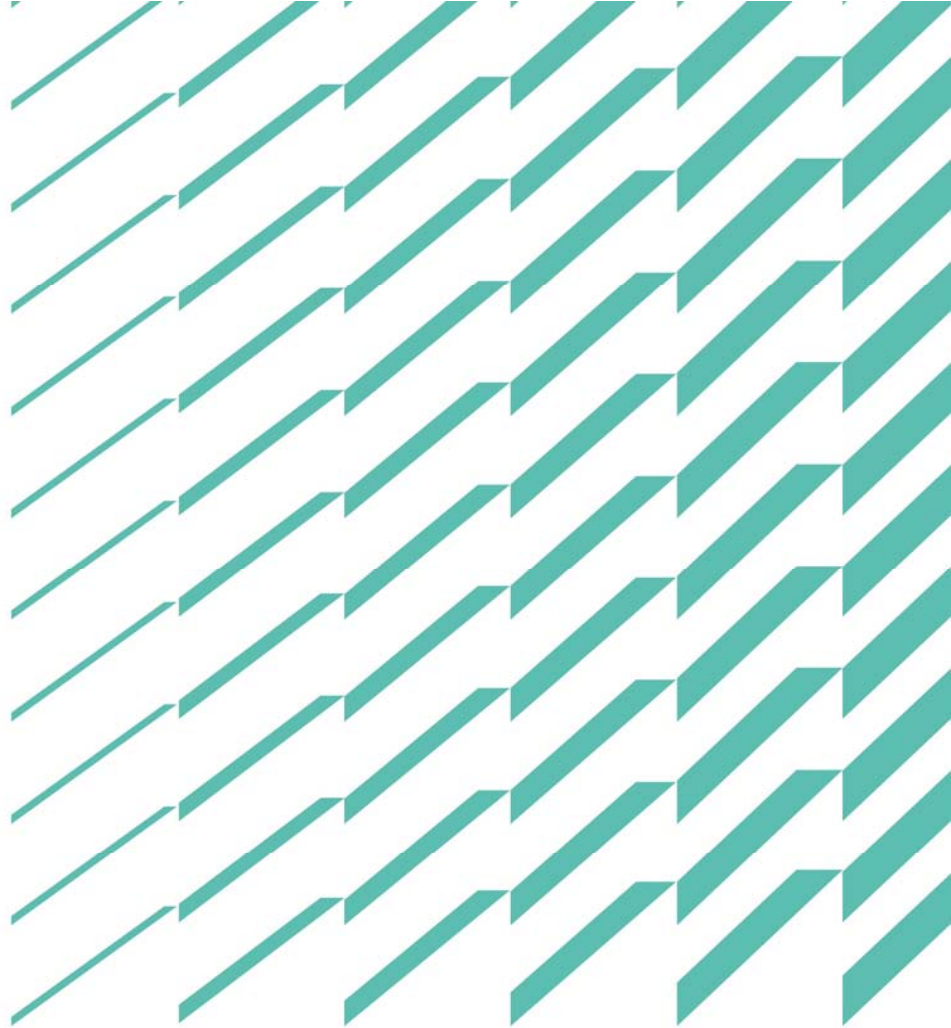
[그림 2-1] 국가생태탐방로 구성요소	9
[그림 2-2] 숲길의 체계도	11
[그림 2-3] 경기둘레길	12
[그림 2-4] 경기둘레길의 스탬프북	17
[그림 2-5] 금강소나무숲길 노선도	18
[그림 2-6] 내포문화숲길 노선도	19
[그림 2-7] 카미노 프란세스 순례길	20
[그림 2-8]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권 ‘크레덴시알’과 여권에 찍힌 스탬프 ‘세요’ (좌), 순례 완주 증서 ‘콤포스텔라’ (우)	22
[그림 2-9] 시코쿠길 88개소 사찰	23
[그림 2-10] 시코쿠길 전체도면	24
[그림 2-11] 사찰에서 참배장소 및 순서(좌), 납경장에 찍힌 납경(우)	25
[그림 2-12] 오펜로상의 전통적인 순례복장	26
[그림 2-13] 제주올레의 간세 마그넷(파란색)과 규슈올레의 간세 마그넷(다홍색) ..	27
[그림 2-14] 규슈올레_가고시마현의 ‘이즈미 코스’ 풍광	30
[그림 2-15] 규슈올레 홈페이지의 ‘다케오 코스’ 정보	31
[그림 2-16] ‘다케오 코스’ 맵지도(규슈올레 홈페이지 공개맵)	32
[그림 2-17] 규슈올레의 굿즈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 간세인형, 마루치반다나, 마그넷)	32
[그림 2-18] 규슈올레 스탬프 랠리 인증 방법 및 인증품	33
[그림 2-19] 미야기현 위치 및 미야기올레 코스 위치도	34
[그림 2-20] 미야기올레의 간세 마그넷(다홍색)	35
[그림 2-21] 미야기올레 길을 이끄는 길표식(좌 : 간세, 우 : 리본)	35
[그림 2-22] 미야기올레 홈페이지의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 정보	36
[그림 2-23]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 맵지도(미야기올레 홈페이지 공개맵) ·	37
[그림 2-24] 미야기올레 가이드북 내 스탬프 용지	38
[그림 2-25] 「미야기올레 페어 2022」의 이벤트들	39
[그림 2-26]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호 전국지도	40

[그림 2-27] 도카이 자연보도의 도표	41
[그림 2-28] 민박, 여관, 슈쿠보 그리고 식당	57
[그림 2-29] 시코쿠헨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순례지도 및 정보	57
[그림 2-30] '시코쿠 순례 혼자 걷는 동행이인' 지도책자	58
[그림 2-31]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나토리 트레일 센터 야영장	59
[그림 2-32] 시즈오카현의 농박지역 지도	61
[그림 2-33] 시즈오카현의 마쓰자키초 농박 프로그램	62
[그림 2-34] 시즈오카현의 시마다 오이가와 유역 농박 프로그램	63
[그림 2-35] 마린 액티비티 및 카약 체험	64
[그림 2-36]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클린 활동	65
[그림 2-37]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트레일 러닝 "작은 UTMF"	66
[그림 2-38] 캠페인 기념품	68
[그림 2-39] 「규슈 자연보도 미야자키현 루투의 지금과 미래를 말한다」 토크 이벤트 개최('22.1.18)	69
[그림 2-40] 「아마토미 트레일」 탄생기념 토크 이벤트 개최('22.1.6)	69
[그림 2-41] 트레일 좌담회 on YouTube Live 2020	69
 [그림 3-1] 자연생태자원 현황	75
[그림 3-2] 역사문화자원 현황	76
[그림 3-3] 전라북도 걷기길 조성 현황	77
[그림 3-4] 부안군 생태·문화탐방로 노선 적합성(Travel Cost)분석도 결과	85
[그림 3-5] 기존 탐방로 현황	87
[그림 3-6] 보전자원 현황	89
[그림 3-7] 탐방자원 현황	91
[그림 3-8] 연결자원 현황	93
[그림 3-9] 기반시설 현황	94
[그림 3-10] 기존 탐방로 부문 평가 점수	97
[그림 3-11] 보전자원 부문 평가 점수	98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12] 탐방자원 부문 평가 점수	100
[그림 3-13] 연결자원 부문 평가 점수	101
[그림 3-14] 기반시설 부문 평가 점수	102
[그림 3-15]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점수	104
[그림 4-1] 기존 탐방로와 보호지역 현황	107
[그림 4-2] 기존 탐방로와 탐방자원 현황	108
[그림 4-3] 기존 탐방로와 연결자원 현황	109
[그림 4-4] 기존탐방로와 교통 기반시설 현황	109
[그림 4-5] 임의 제안노선 추출	110
[그림 4-6] 제안노선 위성사진 분석	110
[그림 4-7] 임의 제안노선 현장조사	111
[그림 4-8]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	112
[그림 4-9] 제안노선과 기존 장거리 걷기길 연계 노선(안)	113
[그림 4-10] 제안 노선(안) 생태문화축 유형	114
[그림 4-11]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 추진체계	116
[그림 4-12] 생태문화탐방로 좌우 각 500m 생생마을 현황지도	117
[그림 4-13] 생태문화탐방로 좌우 각 1000m 생생마을 현황지도	118
[그림 4-14] Forest Camping 개념도	123
[그림 4-15] 전북천리길 스탬프 투어 예시	124
[그림 4-16] 전라북도 천리길 난이도 구분	125
[그림 4-17] 숲길 이용등급(난이도) 구분	125
[그림 5-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점수	135
[그림 5-2] 그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	136
[그림 5-3] 생태문화탐방로 좌우 각 500m 생생마을 현황지도	13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환경부는 2007년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본격적으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산림청의 숲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해파랑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해파랑길(770km), 2019년 남파랑길(1,463km), 2022년 서해랑길(1,800km)을 개통하였다.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은 생태탐방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2011년 ‘우리마을 녹색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3년부터 업무계획에서 관련 사업을 찾을 수 없으며 현재는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전북연구원은 2008년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4개축(해안생태문화축, 하천생태문화축, 역사문화생태축, 자연생태문화축)으로 구성되는 광역생태문화탐방로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생태·문화탐방로 지역 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에서 부안군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을 제안하였다. 제안 노선은 향후 ‘부안 마실길’로 발전하여 지역의 생태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스토리가 있는 전라북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고창군 노선(안)은 ‘고인돌과 질마재를 따라 100리길’ 명칭으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선정되는 기반이 되었다. 2009년 ‘시군둘레길 제안사업 검토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연계방안’을 기반으로 2010년 전라북도 3대 핵심권역(모악산, 백두대간, 서해안 해변길)과 명품길(1시·군 1개사업)을 조성하는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약 450km)을 추진하였다.

이외에 전라북도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군산시 구불길, 진안군 고원마실길, 4대 종교(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를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5년 부터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 본격적인 생태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2개 시군(전주, 부안 제외)에 전라북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육성되고 있으며 2017년 우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한 전북천리길 44개 노선 405km를 조성하여 다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 시도를 선도하는 생태관광사업 추진으로 생태관광기반이 마련되고 고창군의 경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11개 시군 역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생태관광이 관광, 환경교육 및 체험,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 2012년 전국적인 탐방로 조성 열풍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시군까지 촘촘하게 구축된 노선들은 지리산길, 부안 변산마실길, 진안 고원마실길, 군산 구불길 등 특정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구축은 점적으로 전라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그리고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탐방로 노선을 선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도보 여행객이 전라북도의 생태·역사·문화를 경험하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라북도 내에 장기 체류하는 도보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로 유입되어 마을주민과 어우러져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2021. 10. 18)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인구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어 인구소멸가능성이 높은 마을들과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연계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선 구축 및 노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표 1-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명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나. 연구목적

전라북도에서 국비확보를 통하여 조성된 다양한 탐방로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북천리길 그리고 12개 생태관광지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도모하고 각 생태관광 사업들이 위치한 마을들에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기 육성된 지역별 생태관광자원이 인구감소지역 인구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를 융합한 장거리걷기 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나.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단거리 및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활성화 등 관련 국내외 연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경기도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등 국내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운영사례를 조사·분석 할 계획이다.

2) 심층 조사 및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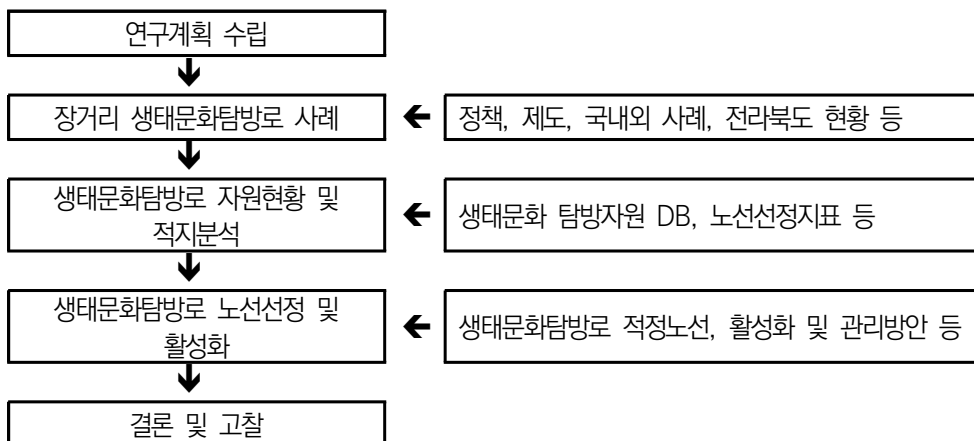
원내외 생태, 역사, 문화 자원 등 생태문화탐방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계 지자체 및 관계기관 면담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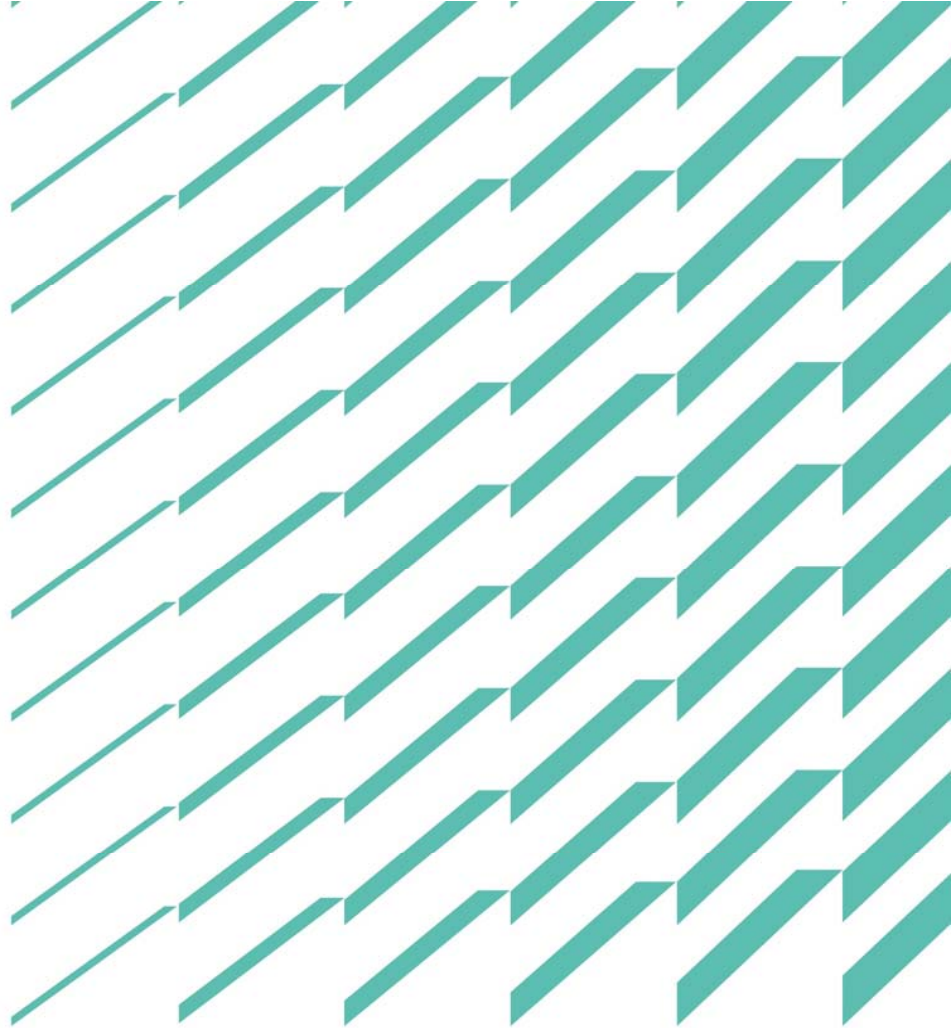
3.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가. 연구내용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의 지표를 개발하고 생태관광지, 천리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등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자원현황을 조사한 후 생태문화탐방 자원을 연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을 제안 할 계획이며 제안한 노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 추진체계





제2장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사례

1.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 국내외 탐방로 동향 분석
3. 기반시설 및 활성화 프로그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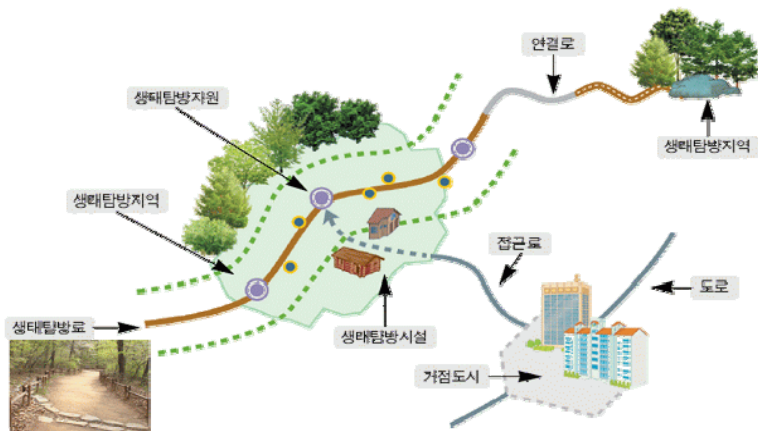
제 2 장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사례

1.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가.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환경부는 2007년 우수한 생태자원인 5대강, 옛길, 해안길 등을 중심으로 탐방로로 연결하는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2007.10)’을 수립하였고 2008년 생태탐방로 조성원칙을 수립하고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다.

생태탐방로 조성원칙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생태계우수지역내 핵심지역 제외, 노선주변 탐방자원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제시하고 있어 핵심생태자원의 보전, 생태계 훼손 최소화 및 복원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1] 국가생태탐방로 구성요소

전국 2,500km를 목표로 2020년까지 총 1,964.2km의 국가생태탐방로가 조성되었으며 전국단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 전국단위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구분	명 칭	구 간	거리(km)	노선계획
강길	한강 탐방로	강원(설악·태백검룡소)~경기(북한강, 남한강)~서울(한강)~강화도(한강하구, 강화 갯벌)	190	
	금강 탐방로	무주(나제통문)~영동~옥천~대전(대청호)~공주~부여~서천(금강 하구둑)	123	
	영산강 탐방로	구례(지리산)~남원~순창~담양~광주~나주~무안~목포(영산강 하구둑)	82	
	낙동강 탐방로	태백 황지~봉화(소백산)~영주~상주~구미~성주~고령~창녕~밀양~김해(낙동강하구역)	226	
역사길	영남 대로	서울남대문~성남~음성~충주~문경새재~구미~대구시(팔공산)~밀양~부산동래	380	
	삼남 대로	서울남대문~과천~수원~천안~공주~논산~익산~정읍~광주~나주~해남(두루산)	460	
해안길	남해연안 탐방로	진도(다도해 해상)~완도~여수~광양(한려해상)~통영~거제~부산시(부산항)	352	

나.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¹⁾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걷기 좋은 해안길’이라는 의미의 ‘해안누리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해안을 U자로 연결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경관, 역사, 문화가 있는 바닷길 58개 노선을 해안누리길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2022. 3. 27. 검색). 해안누리길, <https://coast.mof.go.kr/coastScene/coastWayIntro.do>

다. 산림청 숲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서 숲길을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구분하고 각각을 정의하고 있다.

[표 2-2] 숲길의 종류 및 개요

구분		개요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트레킹길	둘레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트레일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2조의 2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휴양복지/산림휴양/숲길. (www.forest.go.kr).

[그림 2-2] 숲길의 체계도

2. 국내외 탐방로 동향 분석

가. 국내탐방로

1) 경기도 경기둘레길

경기도는 2021년 11월 15일 경기둘레길 860km 60개 코스를 개통했다. 경기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생태, 경관, 문화, 역사자원을 도보로 체험할 수 있도록 15개 시군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보행 안전성, 도보 및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 용이성, 경관과 볼거리 다양성, 도보길의 연속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조성되었다.

(배경) 2018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여 만에 완성되었으며 평화누리길(186km), 숲길(245km), 물길(167km), 갯길(262km) 등 4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완주자(22.1.20)는 49일, 두 번째 완주자는 27일이 소요되었다.

(다양한 길) 4개 권역에 상세 코스로는 평화누리길 11개 코스(김포1코스~연천11코스), 숲길 20개 코스(연천12코스~양평31코스), 물길 12개 코스(여주32코스~안성43코스), 갯길 17개 코스(평택44코스~김포60코스)로 총 60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경기둘레길 홈페이지. (<https://www.gg.go.kr/dulegil/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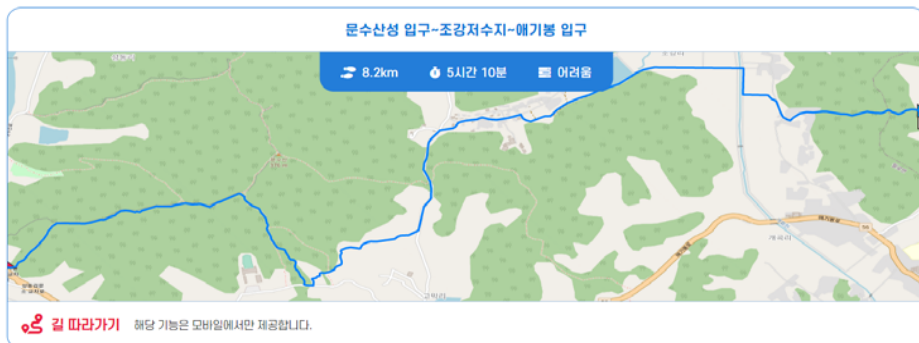
[그림 2-3] 경기둘레길

(정보 제공) 경기둘레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노선의 시작점과 종점 위치, 노선간 거리, 예상소요시간, 걷기 난이도 정보를 코스를 대표하는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노선별 추천경관 및 포토존, 관광지/문화재/축제, 주변식당, 주변 숙소, 스탬프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관련 안내를 위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시군별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한 ‘길 따라가기’는 둘레길 여행자의 정확한 길 따라가기와 걷기인증이 가능하며 안전한 길 걷기를 위해 모바일로 지원하고 있다. 국유림(국유임도)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 사전 방문신고를 통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국유림 방문신고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코스별 상세안내(코스 대표사진, 노선, 소요시간, 난이도 등)

2) 경기둘레길 홈페이지. (2022. 5. 검색). <https://www.gg.go.kr/dulegil/index.do>



한발 두발 땀 흘려 문수산성을 넘어가면

강화도로 건너가는 길목에 문수산(376m)이 있다. 높은 산은 아니나 이곳에 쌓인 역사의 두께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삼국시대 성벽 흔적이 출토되었고, 조선 숙종 시절에 쌓은 문수산성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문수산을 오르며 보는 강화해협 풍경은 장관이다. 국방 요충지가 뷰 포인트라는 말이 실감난다. 문수산을 넘어 걷ulum은 조강나루터가 있던 조강마을로 이어지고, 나지막한 언덕 숲길을 지나면 애기봉 초입인 가금마을이다.

평화누리길 2코스와 노선이 같다.

[주의] 당초 민통선 구간인 문수산성 입구-보구굴리점문소-용강리점문소-애기봉 입구 노선(평화누리길)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보행자 통행은 어렵다는 군부대 의견에 따라 현재 노선으로 정하였고 추후 군부대 추가 협의 후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음.

코스별 지도맵 및 관련 이야기 안내

스탬프 정보



문수산성 장대

- 문수산성 정상에 있어 군사작전에서 지휘자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명령을 내리던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 25.74㎡ 규모로 흙치마 팔작지붕형태의 목조 건축물이다.



문수산성

- 조선 숙종20년(1694년) 축조된 대표적 산성으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과 치열한 격전을 치른 국방유적(사적제138호)이며 서해와 강화, 인천, 파주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스탬프함 주소

2코스 시작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2
2코스 종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219-8

코스별 스탬프 정보(코스의 시·종점 스탬프)

설화·지명 유래

● '애기봉' 설화

병자호란 때 이야기다. 기생 애기는 평양감사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감사와 애기는 임금에 계신 한양으로 떠났다. 알고 싶은 편지일었지만 사랑하는 감사를 믿으며 개동군까지 왔다. 그러나 감사는 오랑캐에 잡혀갔다. 애기는 홀로 강을 건너 월곶면 조강리에 머물면서 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날마다 북강머리산에 올라 감사가 끌려간 복역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그러다가 그리움이 사무쳐 병이 들었다. 애기는 자기가 죽으면 산꼭대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애기를 북강머리산 꼭대기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뒤로 애기가 묻힌 봉우리를 애기봉이라고 부른다.

추천 경관 / 포토존



문수산성 정상

문수산은 최고의 일출 일몰 명소지이다. 맑은 날에 최고의 일출 일몰을 찍어보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20-453



조강저수지

한여름 그늘진 산자락을 한켠에 두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며 바라보기 좋은 저수지다. 길에 보이지 않는 저수지 물결에 비추는 나지막한 구름지는 마치 가을에 비춘 듯하다. 일몰 때에는 바다와 달리 잔잔한 물결 위로 붉은빛 내는 석양을 만나는 독특한 곳이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409번길 911-11



문수산성

문수산에 휘감아 오르는 문수산성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곳이다. 마치 바닷속에서 뿜어 솟아오른 것 같은 산성 성벽은 최고의 포토존이 된다. 바다를 배경으로 일몰에 맞춰 찍으면서 인생샷을 남겨보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20-453

코스별 설화지명 유래, 추천경관/포토존 정보

관광지 / 문화재 / 축제

관광지	애기봉	병자호란 때 끌려간 평안감사를 그리워하다 죽은 기생 애기의 한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가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한과 같다고 하여 애기봉이라 명명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평화공원로 139 ☎ 031-980-2482
관광지	김포국제조각공원	'동일'을 테마로 조성된 조각공원으로, 지오바니 안셀모를 비롯해 세계적인 조각작가 16명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되어있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조각품들을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 031-980-2482
문화재	문수사 풍담대사부도 및 비	조선 시대의 고승 풍담대사 의심(義心;1592~1665)의 묘 탑과 그 탑비이다. 문수사 뒤편의 문수산 정상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 탑은 통일신라 이후 많이 사용된 팔각원당형으로, 방형의 지대석 위에 8각의 기단부를 얹어 만들어졌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3

코스별 관광지/문화재/축제 정보

주변 식당

구분	상호명	주소	연락처
일반 음식점	동해막국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994	031-984-88
일반 음식점	문수산들마루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144	031-997-52
일반 음식점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103번길 70-23	031-997-23
일반 음식점	박가네 김밥김포대학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104	031-988-25

주변 숙소

구분	상호명	주소	연락처
민박펜션	마리의정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128-40	010-9055-02
민박펜션	문수산펜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174-25	010-3568-43

※ 상기 목록은 무작위 정렬 순서로 작성

코스별 주변 식당, 주변 숙소 정보

[그림 2-1] 경기둘레길 홈페이지의 코스별 상세안내·정보제공²⁾

(현지 안내) 둘레길 현지에서는 여행자들이 걷는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둘레길의 곳곳에 전봇대와 나뭇가지에 길안내용 리본을 매달아 놓거나 건물벽면과 안내표지판에 화살표와 명판을 붙여 길의 진행방향을 알려준다. 화살표의 색에 따라 정방향(빨강)과 역방향(파랑)을 안내하고 명판은 둘레길을 확인해주는 인지용 표찰이다. 또한 안내명판이나 방향 안내판과 방향 표지판을 통해 주요 지점까지 남은 거리와 소요시간, 갈림길과 평지에서 2개 이상의 주요지점의 방향과 거리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길의 진행방향과 시·종점까지의 남은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종합 안내판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역자원,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 위치 등 코스의 종합 안내정보를 총망라하여 코스 걷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둘레길 인증) 경기둘레길을 모두 걸으면 완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4개 테마를 가진 권역별 인증은 각각 진행되며 총 60개 코스의 시·종점 120개 스탬프를 찍어서 4개 완보증을 모으면 전구간 완보 인증서 및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함 위치는 각 코스 시작점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정확한 위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스탬프함에는 해당 코스의 종점 스탬프와 다음 코스의 시작점 스탬프가 같이 비치되어 있으며 120개의

스탬프는 각 노선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모양과 그림이 모두 다르다. 스탬프북과 안내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거나 우편물 신청으로 수령 가능하다.



[그림 2-4] 경기둘레길의 스탬프북

1) 금강소나무숲길

국비(산림청)로 조성된 1호 숲길로 2010년 7월 1구간 13.5km를 시작으로 7개 구간 79.4km가 운영되고 있다. 예약탐방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부상길, 한나무재길, 오백년소나무길, 화전민옛길, 대왕소나무길, 보부천길, 가족탐방로로 구성되어 있다.

숲길예약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부상길, 오백년소나무길, 화전민옛길, 대왕소나무길, 가족탐방로는 온라인예약, 한나무재길, 보부상길은 단체 현장문의를 통하여 탐방할 수 있다.

생태탐방 코스별로 거리, 소요시간,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금강소나무숲길 홈페이지. (www.uljintrail.or.kr).

[그림 2-5] 금강소나무숲길 노선도

2) 내포문화숲길

내포문화숲길은 자치단체(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숲길 중 전국 처음으로 국가지정 숲길(산림청고시 제2021-126호)이 된 사례이다.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서산, 당진, 홍성, 예산), 121개 마을을 잇는 320km가 조성되었으며 원효개달음길, 내포천주교순례길, 백제 부흥군길, 내포역사인물길, 내포동학길 등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되고 있는 숲길프로그램은 단기프로그램으로 내포문화숲길 백패킹, 울트라걸기 등이 있으며 시즌프로그램으로 내포문화숲길 별빛·달빛 걷기, 내포문화숲길 노랑상사화 걷기 등이 있고 내포문화숲길 원정대, 내포문화숲길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2-3] 내포문화숲길의 조성 원칙과 방향

1. 신규로 조성하는 길이 최소화 되도록 기존의 길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며 생태, 마을자연 경관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길로 조성한다.
2. 내포지역이 지닌 유구한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길>에 구현되도록 조성한다. 기존의 포장된 도로(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는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길>을 통해 내포지역의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로 인식 되도록 조성한다.
4. 장거리 도보여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5. 내포문화숲길을 찾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6. 현재 <길>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자료 :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 (<http://www.naepotrail.org>).

나. 국외탐방로

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장거리길 ‘산티아고 순례길’은 ‘카미노 프랑세스’로 프랑스 생장피에드포르(Saint-Jean-Pied-de-Port)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약 800km를 걷는 도보순례이며 완주까지는 30~40일 정도 소요된다.

(배경) 1993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 프랑스 남부와 마주한 국경지방에서 출발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초기 순례길 등이 추가되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카미노 프랑세스와 스페인 북부 순례길)’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카미노 프랑세스’는 ‘프랑스 사람들의 길’이란 뜻이며, 스페인 북부 순례길을 ‘카미노 델 노르테’라고 부른다.³⁾ 2013년도 공식자료에 따르면 순례자 전체의 70% 이상이 ‘카미노 프랑세스’를 걷는다.

(다양한 길) 이 외에도 중세부터 내려온 순례길은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중 유명한 프랑스 루트는 총 4개(투르의 길, 리모주의 길, 르 푸의 길, 툴루즈)이고 스페인 루트, 마드리드 루트, 해안가 루트, 영국 루트, 은 루트, 포르투갈 루트 등이 있으며 현재로 새로운 루트가 발견·조사 및 개발되어 가는 중이다.⁴⁾



출처 : pmg자연유산연구소 (2022.5.검색). 산티아고 순례길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그림 2-7] 카미노 프랑세스 순례길

- 3) 두산백과. (2022.5.검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카미노 프랑세스와 스페인 북부 순례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8501&cid=40942&categoryId=33442>
- 4) 나무위키. (2022.5.10.최근수정).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https://namu.wiki/w/%EC%97%98%20%EC%B9%B4%EB%AF%B8%EB%85%B8%20%EB%8D%B0%20%EC%82%B0%ED%8B%B0%EC%95%84%EA%B3%A0>

(역사)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했다. 교황의 칙령에 따라 성스러운 해(산티아고의 축일인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순례자는 그간 지은 죄를 모두 속죄받고, 다른 해에 도착한 순례자는 지은 죄의 절반을 속죄받는다고 한다. 일년 내내 순례자가 끊이지 않으나 성인의 축일인 7월 25일에 도착하려는 순례자들로 여름에 가장 붐빈다.⁵⁾

(순례문화 및 프로그램) 순례자는 순례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이자 여권인 ‘크레덴시알(Credencial)’로 순례자 숙소 알베르게(Albergue)나 레푸히오(Refugio)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순례여정에서 지나치는 숙소, 호텔, 레스토랑, 성당 등의 장소에서 스탬프 세요(Sello)를 받아 그 길을 걸은 순례자임을 증명하고, 스탬프를 받은 순례자는 최종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해 순례여권을 보여주고 순례 완주 증서(콤포스텔라;Compostela)를 받을 수 있다.⁶⁾

순례여권은 순례가 시작되는 지점의 성당이나 순례자 사무소에서 대개 3유로 정도에 구입가능하며 순례도중 발생한 환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알베르게에서 알베르게로 짐을 보내주는 화물 운송 서비스는 6~8유로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⁷⁾

순례자 여권인 ‘크레덴시알’로 증명하고 전용 숙소 ‘알베르게’ 묵을 수 있는 자격 부여, 스탬프 ‘세요’로 인증을 통해 최종 종착지에서 완주 증서 ‘콤포스텔라’를 성취함으로써 길 문화로 자리잡았고 종교적인 순례자들 뿐만 아니라 걷는 길을 좋아하는 탐방객들에게는 버킷리스트로도 손꼽아진다.

5) 두산백과. (2022.5.검색). 산티아고 순례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348&cid=43667&categoryId=43667>

6) 두산백과. (2022.5.검색). 산티아고 순례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348&cid=43667&categoryId=43667>

7) 나무위키. (2022.5.10.최근수정).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https://namu.wiki/w/%EC%97%98%20%EC%B9%B4%EB%AF%B8%EB%85%B8%20%EB%8D%B0%20%EC%82%B0%ED%8B%B0%EC%95%84%EA%B3%A0>



출처 : 네이버블로그(여과장). (2015.12.11.작성). [산티아고 순례길(3)순례자 여권 '크레덴시알(Credencial)'].
<https://blog.naver.com/hellohanayo/220564926789>

[그림 2-8]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권 '크레덴시알'과 여권에 찍힌 스탬프 '세요' (좌), 순례 완주 증서 '콤포스텔라' (우)

(현황) 성지순례라고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종교적인 목적 외에도 800km를 일주하는 관광 상품화가 되어있다. 세계 각국에서 트레킹에 흥미있어 찾아온 사람들과 길을 걸으며 친목을 다지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 느낌이 강하다. 성지순례를 겸해 레저나 관광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 일본 시코쿠 순례길⁸⁾

일본 장거리길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시코쿠 순례길(시코쿠 헨로 Shikoku Henro)’은 시코쿠 4개 현(도쿠시마현, 고치현, 에히메현, 가가와현)에 점재해 있는 88개소의 사찰을 순례하는 전체 여정 약 1,400km의 장대한 편도 순례길이다.



[그림 2-9] 시코쿠길 88개소 사찰⁹⁾

(배경) 시코쿠 순례길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승려 구카이 대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시코쿠에서 태어나고 수행한 그는 밀교 불교의 신곤학교를 설립했으며 일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종교 인물 중 한 명이다. 시코쿠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했던 사찰 88개소를 그의 추종자들이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시코쿠 순례길이 형성되었다.¹⁰⁾ 도보나 자전거, 버스 택시 등으로 순례길을 크게 한 바퀴 도는 행위를 오펜로(お遍路)라고 하며 구카이 승려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하는 사람을 오펜로상(お遍路さん 순례자)이라 한다.

(현황) 시코쿠 헨로는 1,200년을 넘게 계승되어 왔으며¹¹⁾ 과거 헨로가 수도자들

8) 김보국. (2019. 3.).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9) 나무위키. (2022.4.27.최근수정). 시코쿠 88개소. <https://namu.wiki/w/%EC%8B%9C%EC%BD%94%EC%BF%A0%2088%EA%B0%9C%EC%86%8C>

10) 일본 헤리티지 공식 홈페이지. (2022.5. 검색). 시코쿠지역_헨로-시코쿠를 통한 영적 여행. https://www.japan.travel/japan-heritage/full_list?tab=region&map=shikoku#region

11) 투어리즘시코쿠 홈페이지. (<http://tourismshikoku.org/kr/henro/>).

이 중심의 수행길이었으나 지금은 쿠카이 대사를 존중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각지에서 찾아오면서 현대에는 종교와 관련없이 여행을 목적으로 길을 걷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길) 시코쿠의 네 개 현은 만다라(우주의 상징)의 네 개 부분을 상징하는데 이는 불교의 세계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 존재에 대한 궁극적 이해로 이어진다. 도쿠시마현은 영적각성의 장소, 고치현은 금욕적 수행의 장소, 에히메현은 깨달음의 장소, 가가와는 열반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¹²⁾



[그림 2-10] 시코쿠길 전체도면¹³⁾

(순례 방법 및 프로그램) 순례 방법에는 시계방향으로 도는 준우치(順打ち)와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가쿠우치/사카우치(逆打ち)가 있으나 순례객 대부분이 시계방향(順打ち 준우치)으로 순례를 한다. 이정표 역시 시계방향 기준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반시계방향으로 돌면 표지판을 놓치기 십상이라 어려울 뿐더러 역순으로 돌아 고생하다 운명을 달리한 ‘에몬 사부로’의 일화가 있다.

일본의 신사와 사찰에 참배하면 해당 시설에서 신사/사찰에 참배했다는 의미로 써주는 일종의 확인서인 ‘납경(納経 노쿄)’ 절차가 있다. 원래 ‘납경’은 ‘불경을 헌납하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납경료 300엔을 내고 신청하면 방문일시, 방문한 신사/사찰을 참배했다고

12) 시코쿠 순례길. (2014.9.1.). 일본 시코쿠 내 88개 사원을 돌아보는 순례길. <https://www.tb.mlit.go.jp/shikoku/88navi/korea/trail/>

13) 시코쿠헨로 홈페이지. (<http://www.88shikokuhenro.jp/map.html>).

붓글씨로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주는 확인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받은 납경은 부처나 신령의 영험이 있다 하여 일본인들은 소중하게 간직한다. 납경을 받는 전통 책자를 따로 파는데, 특정한 신사/사찰에 다녀왔다는 기념품 역할도 한다. 시코쿠 88개소 사찰들도 납경을 해주고 순례용품 판매점에서도 88개 영장 순례 전용 납경장을 판다. 납경을 순례용으로 입는 백의·소복에 받기도 하는데 죽을 때 이 옷을 수의로 입으로 저승길을 구카이 대사가 인도해준다고 여긴다.¹⁴⁾

사찰에서의 참배순서는 산문에서 가볍게 일배하고 미즈야에서 손과 입을 행군다. 본당에서 헌등, 헌향, 오사메후다¹⁵⁾, 예배, 독경을 하고 대사당에서 본당과 같은 방법을 행한다. 납경소에서 납경료(300엔)을 지불하고 납경장에 도장을 받는다.



[그림 2-11] 사찰에서 참배장소 및 순서(좌)¹⁶⁾, 납경장에 찍힌 납경(우)¹⁷⁾

(순례복장 및 용품) 순례자는 제1번사찰 료젠지나 각 사찰에서 순례용품(삿갓, 백의·소복, 염주, 지령, 두타봉투, 와게사, 금강장, 납경장 등)을 구매하여 순례의복을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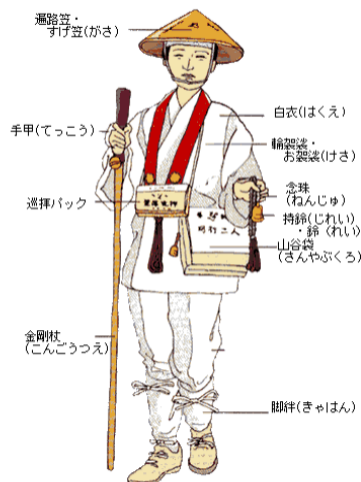
순례의 필수품인 금강장(金剛杖 콘고즈에)은 상부 네 곳에 홈을 파 오충탑 모양으로 만든 백목 지팡이로 순례길을 인도하는 구카이 대사의 분신으로 간주하여 소중히 다룬다.

-
- 14) 나무위키. (2022.4.27.최근수정). 시코쿠 88개소. <https://namu.wiki/w/%EC%8B%9C%EC%BD%94%EC%BF%A0%2088%EA%B0%9C%EC%86%8C>
- 15) 오사메후다(納め札) : 순례자의 이름, 주소를 기입하여 참배한 사찰의 본당과 대사당에 봉납하는 일종의 참배 증명서
- 16) Jpapan Endless Discovery, TOURISM SHIKOKU, HENRO 시코쿠 88개소 순례 가이드맵
- 17) 정승. (2018. 9. 27.). ibk의 일본 기행_시코쿠 순례 풍경 제1부 료젠지 9/16. <https://cafe.naver.com/jpnstory/2555798>

숙소에서 잘 때도 바깥에 두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 방 안 머리맡에 세워두고, 순례를 할 때 항상 구카이 대사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금강장은 순례가 끝난 뒤 88번 오쿠보지 사찰에 봉납하는데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호마 의식을 하며 금강장을 태운다고 한다. 또한 금강장이 옛날에는 순례자가 순례 중 죽게 되면 비석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순례시 주의할 점이라면 다리를 건널 때에는 금강장 지팡이를 쓰지 않는데 전승에 따르면 구카이 대사가 다리 밑에서 잠을 자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 지팡이를 사용함은 다리 밑에서 주무시는 대사를 깨우는 행위로 여긴다고 한다.

금강장 외에 순례자를 상징하는 일본식 삿갓 관립(菅笠 스게카사)은 실담문자로 미륵을 뜻하는 종자자가 씌었는데, 순례 중에 불운이 오지 않도록 종자자가 앞에 오도록 착용한다. 자외선 차단 기능면에서 순례자들에게 실용품이지만 삿갓이라 접을 수 없어서 편의상 야구 모자를 쓰고 순례하는 경우도 많다.

巡拝用品 (衣装)



[그림 2-12] 오헨로상의 전통적인 순례복장¹⁸⁾

지역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차로 다음 사찰까지 태워다주거나 집에서 재워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를 ‘오세타이(お接待)’ 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순례자들에게 접

18) 드림매니아. (2019. 5. 18.). [시코쿠 여행]일본의 순례길 오헨로. <https://blog.naver.com/hsgikhj/221540539604>

대하는 것으로 시코쿠 순례길의 전통이기도 하다.¹⁹⁾

3) 일본 규슈올레길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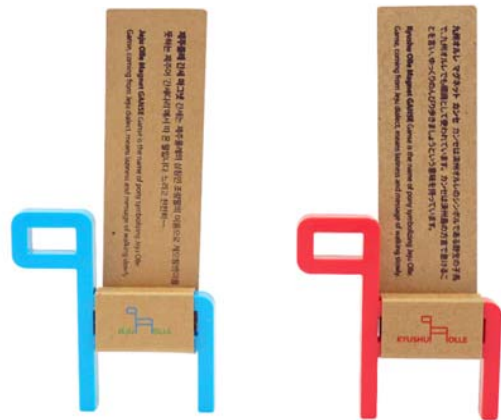
일본 규슈는 일본 열도의 4대 섬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 1,4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유래) 규슈올레는 제주올레를 본 따 만든 도보 여행길로 제주올레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제주올레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해 만든 트레킹 코스이다. 규슈 올레의 코스 개발자문과 브랜드 사용, 표식 디자인 등을 제공하였다. 규슈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많은 온천이 있어 트레킹을 하면서 규슈의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표식 디자인) ‘간세’는 제주올레의 상징인 조랑말의 이름으로 게으름뱅이를 뜻하는 제주어 ‘간세다리’에서 따온 말이다. 느리고 천천히 제주올레 길을 걷자는 뜻을 담아 파란색 조랑말 모양의 제주올레의 표식 디자인을 만들었다.

규슈올레의 간세는 제주올레의 간세와 모양은 통일성을 주되 일본 신사에서 많이 쓰는 다홍색을 사용하여 색의 차이를 둬으로써 규슈올레만의 표식 디자인을 제공한다.

(상징적인 색) 규슈올레의 상징은 다홍색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사의 토리이(鳥居) 색깔로 일본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색이다. 또한 일본을 상징하는 토키(朱鷺;따오기)라는 새의 머리와 발 색깔이기도 하다.



출처 :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ko/>

[그림 2-13] 제주올레의 간세 마그넷(파란색)과 규슈올레의 간세 마그넷(다홍색)

(길 안내) 규슈올레와 제주올레와 같이 간세와 화살표, 리본을 따라서 길을 걸으면

19) 나무위키. (2022.4.27.최근수정). 시코쿠 88개소. <https://namu.wiki/w/%EC%8B%9C%EC%BD%94%EC%BF%A0%2088%EA%B0%9C%EC%86%8C>

20)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ko/>

되는데 간세 머리가 향하는 쪽이 길의 진행 방향이다. 화살표는 파란색 화살표가 정방향, 다홍색 화살표는 역방향을 가리킨다. 리본은 파란색과 다홍색이 동시에 달려 있다.

(에티켓) 규슈올레 홈페이지에서는 규슈올레길을 걷는 여행자의 에티켓을 공지하고 있다.

[표 2-4] 규슈올레 여행자 에티켓

1. 마을을 지날 때는 집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기웃거리지 않기	9. 뒤에 오는 올레꾼을 위해 리본을 떼가지 않기
2. 현지인의 얼굴이나 사유재산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 구하기	10. 길 안내 간세를 때리거나 위에 올라타지 않기
3. 내가 먹고 쓰다 남긴 쓰레기는 꼭 챙겨가기	11. 흙길에서는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샛길을 만들지 않기
4. 과일 껍질도 길가에 버리지 않기	12.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을 지날 때에는 길가로 다니기
5. 과수원이나 밭의 농작물에 손대지 않기	13. 코스를 벗어난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하기
6. 길가에 핀 꽃, 나뭇가지를 꺾지 않기	14. 주변 풍광을 놀명쉬멍 ²¹⁾ 여유롭게 즐기며 걷기
7. 길에서 마주친 가족이나 야생동물들을 괴롭히지 않기	15. 오며가며 만나는 올레꾼과 주민에게 정다운 미소, 눈인사 건네기
8. 산 정상에 올라 소리치지 않기	

출처 :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ko/>

(규슈올레 코스) 일본 규슈는 웅대한 자연과 수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고 일본 문화와 역사 유적이 많이 있는 섬지역이다.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7개 현 지역에 자연경관, 온천, 역사유적, 체험 액티비티, 미식, 거리 산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컨셉에 맞는 길을 걸으며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후쿠오카현에는 6개의 규슈올레 코스가 있다. 산림과 별판이 대부분인 섬이 바라도 둘러싸인 자연경관이 뛰어난 ‘무나카타·오시마 코스’(자연경관), 광대한 녹차밭과 고대야메의 영웅(쓰쿠시노기미 일족)의 고분을 만나는 그린 올레길인 ‘야메 코스’(역사유적), 돈코츠 라멘 발생지이자 인구 50만명에 달하는 공업도시인 ‘구루메·고라산 코스’(미식가, 역사유적), 신비한 대나무 숲과 지쿠고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미야마·기요미즈야마 코스’(역사유적, 자연경관), 대하소설 ‘청춘의 문’ 무대가 되었으며, 철로 갓길과 탄광갱도·가와라산을 볼 수 있는 ‘지쿠호·가와라 코스’(자연경관, 미식가), 도심과 가까운 올레길로 백사

21) 놀명쉬멍 : 놀면서 쉬면서의 제주도 방언

청송 바다와 송림숲을 느낄 수 있는 ‘후쿠오카·신구 코스’(자연경관)가 있다.

사가현에는 3개의 올레 코스가 있는데,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규슈올레의 첫 번째 코스인 ‘다케오코스’(온천), 제주도와 흡사한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올레인 ‘가라쓰 코스’(역사유적, 자연경관), 광활한 녹차밭과 일본 3대 미인탕 우레시노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우레시노 코스’(온천)가 있다.

나가사키현에는 3개의 올레 코스가 있는데, 수백년전 유럽의 무역선이 드나들던 구치노 쓰항구와 전원풍경을 즐기며 걷는 ‘미나미시마바라 코스’(자연경관), 화산을 테마로 분화활동이 만든 섬과 지형, 활화산을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시마바라 코스’(자연경관)가 있다.

구마모토현에는 기독교인 아마쿠사 시로가 태어난 섬을 걷는 ‘아마쿠사·이와지마 코스’(역사유적), 국가지정 명승지인 역사적 장소 센간잔이 있는 ‘아마쿠사·마츠시마 코스’(자연경관), 옛 성의 순례과 선셋라인인 ‘아마쿠사·레이호쿠 코스’(역사유적) 3개의 코스가 있다.

오이타현에는 산들길을 걸으면 역사를 회상할 수 있는 ‘오쿠분고 코스’(역사유적), 바닷바람과 함께 힐링하기 좋고, 여유롭게 섬길을 걷는 코스인 ‘사이키·오뉴지마 코스’(자연경관, 미식가) 2개의 코스가 있다.

미야자키현에는 백제왕족의 전설과 양지바른 땅의 기운을 품은 길인 ‘미야자키·오마루가와 코스’(역사유적)가 있고 **가고시마현**에는 청류의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전원을 걷는 ‘이즈미 코스’(자연경관)가 있다.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이즈미시는 물이 풍성한 농산촌 마을의 ‘교과서’ 같은 풍광을 품고 있다. 흑두루미가 좋아하는 물과 먹거리가 가득한 이즈미시는 물이 좋은 동네답게 쌀과 술맛이 좋기로도 유명하다.



출처 :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 9 검색). 코스-가고시마현.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ko/courses/detail/071abf2c-f478-4755-a468-aacc3f63bb0e>

[그림 2-14] 규슈올레_가고시마현의 '이즈미 코스' 풍광

규슈올레 홈페이지는 규슈 내 지역별, 컨셉 분야별로 올레길 코스를 안내하고 있다. 올레길 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해당 코스의 문의처 정보 외에도 코스 내 주요 거점간 거리 및 소개, 교통편, 올레길 주변 식당, 숙박시설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규슈올레를 계획하는 도보여행자는 올레길에 임하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 다케오 코스) 규슈 사가지역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다케오 코스는 일본에서 최초로 탄생한 규슈올레의 첫 번째 코스이다. 온천·산악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힐링코스로 사방을 둘러싼 산들에 자리잡은 '기묘지 절', 1625년 경지 관개용수로 축조된 최대 저수량을 가진 저수지 '다케오온천 호요무라', 사가현 전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수령 3000년 이상의 신비로운 '다케오 오푸스(늑나무)', 다케오온천 초입에 독창적인 건축물을 기저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다케오온천루문'을 볼 수 있다. 다케오 코스의 거점별 상세정보, 교통편, 주변 식당 및 숙박시설, 지도로트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제공되어 있다.

다케오 코스 사가 온천

— 온천 · 산악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힐링코스 —




 **거리** 12.1km

 **소요 시간** 4~5소요

 **난이도** 중 상

 **문의**

다케오 시 영업부 상공관광과 TEL : 0954-23-9237

일반재단법인 다케오시 관광협회 TEL : 0954-23-7766

다케오 코스의 올레길 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문의처

코스 안내

JR다케오 온천역 J→시라이와 운동공원 (1.3km)→ 기묘지 절 (2.5km)→이케노우치 호수 입구 → 보양촌모요오시(행사)광장 (4.0km)→ 산악유보도 종료지점 (6.2km) → 다케오시 문화회관 (9.0km)→ 다케오 오쿠스(늑나무) (9.8Km) → 다케오시청 (11.3Km) → 다케오온천 누문 (12.0km) 【사쿠라야마공원 은 옵션】



1. 기묘지 절

제19대 다케오 영주 고토 다카야키(後藤貞明)가 1574년 건립한 절 경내는 나무들로 둘러싸여(단풍이 아름다워), 축축한 정취로 다양한 지장보살상(미소 지장존)이 눈길을 끈다 또 대웅전 안에서는 참선체험을 할 수 있다.



2. 다케오온천 호요무라(이케노우치 타메이케)

1625년 경지 관개용수로 축조된 무용 지역에서 최대 저수량을 가진 저수지.저수지 주변은 행사광장, 관광 보트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3. 산악유보도 전망소

산악 산책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른 곳에 위치한 전망소에서는 다케오 시 일원을 바라볼 수 있다.이러한 산들과 다케오 시가의 도시 풍경의 대비에 눈을 빼앗긴다.

다케오 코스의 주요 거점별 상세 정보

武雄温泉駅カフェ カイロ食堂

住所: 佐賀県武雄市武雄町富岡294番地 (JR武雄温泉駅内) ※0km地点
TEL: 0954-22-2767
定休日: 年末年始 営業時間: 8時30分~18時



식당(레스토랑 및 카페) 정보 안내

출처: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코스-다케오 코스.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course/s/detail/0961fc11-febe-4070-8b8c-b4896e5cfe0>

武雄温泉 楼門亭

住所: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7425番地 TEL: 0954-23-2111



숙박시설(호텔 및 료칸) 정보 안내

[그림 2-15] 규슈올레 홈페이지의 '다케오 코스' 정보

다케오 코스 맵지도는 2021년 7월에 제작 공유된 것으로, 우측 상단에는 코스의 주요 거점간 거리와 소요시간, 고저를 표시하여 올레길 여행자에게 상세정보와 난이도 제공하고 있다. 다케오 코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지도에 코스의 주변 건물과 도보여행자들이 이용할 교통시설, 편의시설, 식당, 숙박시설의 정보, 그 지역의 특산물과 기념품 정보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담겨있다.



출처 :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코스-다케오 코스.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files/download/ko/Courses18n/course_blocks/5a233520-ee9e-4a29-812d-8efbd6c824c5/value01/value02

[그림 2-16] '다케오 코스' 맵지도(규슈올레 홈페이지 공개판)

集めよう! 楽しさが広がる オリジナルオルレグッズ

九州オルレ各コースではオリジナルグッズを販売しています。
販売利益はリボンなどの標識購入や草刈りなどコースの維持管理に充てています。

Kyushu Olle Goods

■マルチバンダナ (1,400円)
九州の花をイメージして作った鮮やかなバンダナです。筒状になっているので、ネックウオーマーなど自由自在に。

■カンセ人形 (大・小1,800円)
端切れや古い布で丁寧に作った手作り人形なので、同じものが2つとありません。

■マグネット (赤・青500円)
カンセは済州の野性馬で、のんびりとした性格の持ち主です。自分のベースに合わせてゆっくり歩いてほしいという思いで、カンセをロゴや標識として使用しています。

출처 : 규슈관광기구 홈페이지. (2022. 9. 검색). 규슈 올레 팸플렛(2021년도판) 전반

[그림 2-17] 규슈올레의 굿즈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 간세인형, 마루치반다나, 마그넷)

(이벤트) 규슈올레 스탬프 랠리 인증은 스탬프 용지에 스탬프를 찍거나 소지한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스탬프를 수집하여 규슈올레의 각 코스마다 스탬프를 모으는 방법이 있다. 완주 인증 수수료 1,500엔을 지불하고 인증심사를 받는다. 한 바퀴 완주가 인증될 시에는 기념품 메달과 인증서를 받고 두 바퀴째 완주 인증시 메달과 인증서 그리고 다홍색의 간세인형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규슈올레 스탬프 랠리 방법 ② - 전자스탬프 QR코드 수집

九州オルレ タンプラリー			
宗像 大島	八女	久留米 高良山	みやま 清水山
筑豊 香春	福岡 新宮	武雄	唐津
嬉野	南島原	島原	天草 熊和島
天草 松島	天草 帯北	奥豊後	さいき 大入島
高千穂	宮崎 小丸川	指宿 開聞	霧島 妙見



규슈올레 스탬프 랠리 방법 ① - 스탬프 용지에 찍기

완주 인증 기념품 메달 및 확정증 인증서, 간세인형

출처 : 규슈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스탬프 랠리.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stamp rally/>

[그림 2-18] 규슈올레 스탬프 랠리 인증 방법 및 인증품

4) 일본 미야기올레길

일본 미야기현은 일본 혼슈 동북부 태평양에 면한 현으로 수도인 도쿄에서 약 300km 거리에 있다. 미야기현은 최고의 미식여행지로 알려져 있으며 풋콩 설익은 대두를 으깨어 만든 녹색 페이스트 ‘즌다(ずんだ)’, 소의 혀를 밀간하여 숙성시켜 숯불에 구운 ‘규탄(牛タン)’, 일본 내 어묵 생산량 1위 지역답게 어업이 발달한 미야기현의 대나무 잎모양의 어묵인 ‘사사가마보코(笹かまぼこ)’가 대표적이다. 또 센다이의 초대 번주이자 번영을 일군 인물로 일본의 대표적 위인 중 하나인 미야기 최고 영웅 ‘다테마사무네’ 일화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명소이며 휴화산인 ‘자오산’은 특이한 지형 경관의 고산 지대로 알려져 있다.²²⁾

(유래) 미야기올레는 규슈올레와 함께 제주올레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해 만들어진 트레킹 코스로, (사)제주올레가 코스 개발자문 및 길 표식 디자인을 제공한 ‘자매의 길’이다.

미야기올레는 2018년 10월에 오픈한 트레킹 코스로, 2022년 8월 기준 미야기현내에 4개의 코스가 있다. 해안선이나 산, 현내 민가를 모퉁이를 돌며 미야기현 내 곳곳을 즐길 수 있다.



출처 : 미야기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www.miyagiolle.jp/ko/about/>

[그림 2-19] 미야기현 위치 및 미야기올레 코스 위치도

(미야기올레 코스)미야기올레는 계센누마·가라쿠와 코스, 오쿠마쓰시마 코스, 오사카·

22) 미야기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www.miyagiolle.jp/ko/miyagi/>

나루코온천 코스, 토메 코스 총 4개의 코스가 있다.

(표식 디자인) 미야기올레의 간세는 제주올레의 간세와 모양은 통일성을 주되, 제주올레의 파란색과는 달리 일본 신사에 많이 쓰이는 다홍색을 사용해 색상을 입혔고 간세 몸통에 미야기올레 각인을 넣어 규슈올레 간세 마그넷과는 같은 색상이면서도 다른 마그넷이다.

(길 안내) 미야기올레 길을 이끄는 길표식으로 간세 마그넷과 리본, 화살표가 있다. 규슈올레와 마찬가지로 간세 머리가 길의 진행 방향이고 화살표는 파란색 화살표가 정방향, 다홍색 화살표는 역방향을 의미한다. 리본은 파란색과 다홍색이 동시에 달려 있다.



출처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2022. 9. 검색).
미야기올레 간세 마그넷

[그림 2-20] 미야기올레의 간세 마그넷(다홍색)



출처 : 미야기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www.miyagiolle.jp/ko/enjoy/>

[그림 2-21] 미야기올레 길을 이끄는 길표식(좌 : 간세, 우 : 리본)

(미야기올레 코스) 미야기올레 홈페이지에는 코스별 상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코스 총거리, 예상 소요시간, 난이도, 주요 거점별 거리, 동선, 코스 표고를 제시하여 올레길 여행자들이 장거리 올레길 계획에 도움이 된다. 또 코스별 주변 호텔 및 료칸과 같은 숙박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레스토랑 및 카페, 교통편을 통해 편의시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함축한 코스별 맵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전체적인 위치와 이동경로에 따른 편의시설 근접성을 가늠할 수 있다.



출처 : 미야기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코스-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 <https://www.miyagiolle.jp/ko/course/kesennuma/>

[그림 2-23]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 맵지도(미야기올레 홈페이지 공개맵)

(미야기올레 가이드북) 미야기올레 가이드북에는 미야기올레의 4개 코스의 시작점과 종점 스탬프를 찍어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다. 또한 미야기의 상징적인 다홍색과 문양이 담긴 간세인형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는 장소와 문의처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미야기올레 스탬프 용지(코스별 시작점, 중점)

미야기올레 간세인형

제주올레의 상징인 조랑말 인형. 미야기올레가 시작되면서 미야기의 상징적인 색과 문양이 담긴 간세인형이 탄생했다.
제주여성들이 현옷과 자투리천을 이용해 한뼘한뼘 꿰매어 만든다. 간세쿠션과 열쇠고리형 간세인형도 인기가 높다.

간세인형 판매장소	구입 가능시설 문의처	문의처
개센누마·가라쿠와 코스	가라쿠와반도 비지티센터	TEL 0226-32-3029
오루마쓰시마코스	아오마나	TEL 0225-86-2177
오사키·나루코온천 코스	오사키시관광물산센터(Dozo)	TEL 0229-25-8120



간세인형, 열쇠고리 각 ¥1,800

미야기올레 스탬프 용지 및 간세인형 판매처 안내

출처 : 미야기올레 홈페이지. (2022. 9. 검색).

[그림 2-24] 미야기올레 가이드북 내 스탬프 용지

(이벤트) 미야기올레는 각 코스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야기올레 페어 2022」에서는 올레길 참가자를 모집하고 특정한 날 참가자 전원이 함께 올레길을 걷는다. 참가비가 있는 코스의 경우 교통편과 점심을 제공하고 가이드가 동행하기도 한다. 또 올레길 참여 기념품이나 굿즈, 지역 한정 오리지널 상품이나 특산품을 제공한다.

미야기올레 페어 기간 중에는 각 코스에서의 이벤트 외에도 스탬프 랠리를 개최하여 재미를 더한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다. 미야기올레 페어 기간 중 「미야기올레 페어 2022」의 스탬프 랠리 이벤트 응모 엽서에 미야기올레코스 피니시 스탬프 3종류를 찍거나 미야기올레코스 피니시 스탬프 2종류 및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스탬프(미야기현 내 한정) 1종류를 찍는 방법으로 스탬프를 날인하여 응모하는 것으로 이벤트에 참여한다. 추첨을 통해 14명에게는 규슈올레의 코스지역 특산품 및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오리지널 굿즈를 증정한다.

또 미야기올레길 외에도 일본 동북 태평양 연안을 연결하는 장거리 해안코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도 있다. 이 장거리 해안코스 길인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은 2011년(헤세 23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이 책정한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 창설을 주축으로 한 「그린 부흥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이벤트는 가이드와 함께 걸으면서 현지 가이드의 시선으로 지진 재해로부터 현재까지의 부흥의 과정, 마을이 자연과 공생해온 방법 및 변천 과정, 향후 자연과 지속된 공생을 위한 마을의 노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 중심 지역을 걷는 이벤트이다.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중 미야기현내에 한정해서 「미야기올레 페어 2022」 스탬프 랠리 이벤트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올레길을 걸으며 스탬프 랠리의 신청 엽서는 미야기 올레 각 코스 스타트 지점 및 피니시 지점 외,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관련 시설(트레일 스탬프 설치 장소)에도 설치되어 있다.



▲ 미야기올레 각 코스 이벤트

9/18 日 詳細・申込はこちら

**黄金色に輝く秋の里山歩き
in 南三陸**



▲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이벤트(가이드 동행)

宮城オルレフェア 2022

スタンプラリー

抽選で14名様に 宮城オルレか九州オルレのコース地域特産品
またはみちのく潮風トレイルオリジナルグッズを進呈

開催期間	2022年9月17日(土) ~ 2022年11月30日(水)
応募方法	下記①、②いずれかの方法で下記スタンプ欄に押印の上、裏面の必須事項をご記入いただき切手を貼付の上、投函してください
押印方法	①宮城オルレコースフィニッシュスタンプ3種類 ②宮城オルレコースフィニッシュスタンプ2種類 及び みちのく潮風トレイルスタンプ1種類 ※みちのく潮風トレイルスタンプは宮城県内設置のスタンプ限定
スタンプ設置箇所	宮城オルレ各コースフィニッシュ地点、 みちのく潮風トレイルスタンプ設置箇所



※押印は、はみ出ても重なってもOK!

▲ 스탬프 랠리 이벤트 응모 엽서

출처 : 미야기올레페어 홈페이지. (2022. 9. 검색). 이벤트. <https://www.miyagiolle.jp/fair/2022/>
출처 : 미나미산리쿠 가이드와 걷는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https://select-type.com/rsv/index.php>

[그림 2-25] 「미야기올레 페어 2022」의 이벤트들

5)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²³⁾

(개요)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는 1969년에 시책이 발표되고 1970년대 도입된 일본 전역 국토를 횡단 또는 순환하는 길로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자원 등이 연결된 보행자 중심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계절 동안 간편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일본 전역의 뛰어난 풍경을 거닐며, 각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일본 국토와 풍토를 재인식하고 아울러 자연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비를 하여 네트워크화한 장거리 보도이다.



출처 :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m-tc.org/explore/about/trail/>

[그림 2-26]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 전국지도

23)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m-tc.org/explore/about/trail/>

(노선) 일본 환경성이 계획, 각 도부현이 사업 주체가 되어 정비를 진행, 1970년 도카이 자연보도(東海 自然歩道 ⑥1,734km)정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규슈(九州 ⑩2,932km), 주고쿠(中国 ⑧2,295km), 시코쿠(四国 ⑨1,647km), 수도권(首都圏 ⑤1,794km) 도호쿠(東北 ②4,369km), 중부호쿠리쿠(中部北陸 ④4,085km), 긴키(近畿 ⑦3,296km), 홋카이도(北海道 ①4,600km), 도호쿠 태평양 연안(東北太平洋岸 ③1,025km) 10개의 자연보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27,000여km에 이른다.

(예시: 홋카이도 자연보도) 일본 전역에서 9번째가 되는 홋카이도 자연보도는 2003년(헤세 15년)에 계획이 책정되어 정비가 시작되었다. 계획 노선 연장거리 4,585km로 전국 최장의 노선으로 각각 테마를 가진 23개의 노선에 하루 걸을 수 있는 10~20km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²⁴⁾

홋카이도 공식홈페이지 환경생활부 자연환경국 게시판에 홋카이도 자연보도의 노선 일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선별 코스, 테마, 기점과 종점, 거리 그리고 현재 노선 정비상황, 코스별로도 난이도와 주요 경과지 정보도 함께 게시하고 있다.²⁵⁾



[그림 2-27] 도카이 자연보도의 도표

6) 밀포트 트랙 (The Milford Track)

(개요) 뉴질랜드 남섬의 54km (33.5 마일)의 밀포트 트랙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 중 하나로 매년 약 14000명이 밀포트 트랙을 완주하고 있다. 밀포트 트랙(Milford Track)을 따라 트레킹하는 동안 보게 될 거대한 계곡은 지난 200만 년 동안의 빙하 작용의 결과로 이 빙하는 이 U자형 계곡, 얼음으로 파인 난간 및 지류의 계곡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식생을 보면 너도밤나무는 Clinton 숲 저지대의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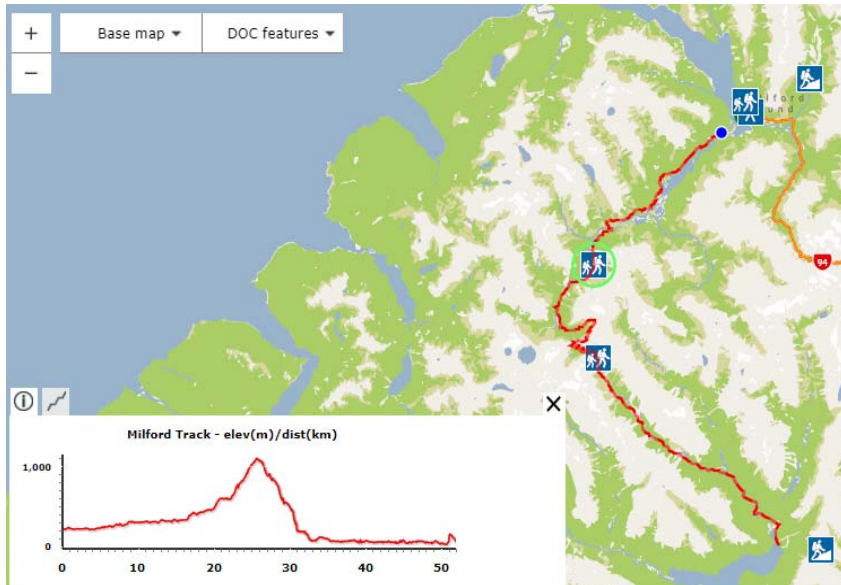
24) NATS 자연사랑클럽. (2022. 10. 검색). 장거리 자연보도를 걷자!. <https://www.env.go.jp/nature/nats/shizenhodo/index.html>

25) 홋카이도 홈페이지. (2022. 10. 검색). https://www.pref.hokkaido.lg.jp/ks/skn/shisetsu/hodo_top.html

종이며 Arthur Valley의 저지대는 풍부한 강우량과 온화한 온도로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랙 주변에는 양치류 이끼류 식물을 많이 볼 수 있다.

(밀포드 트랙 역사) 마오리족은 포우나무(녹석)를 채집하기 위해 밀포드사운드/피오피오타히 길을 이용하였다. 1888년에 아서 밸리에서 서덜랜드 폭포까지 가는 길이 만들어졌고, 그 해 말에 최초의 유럽 크로싱 통로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약 14,000명이 매년 밀포드 트랙을 걷게 되어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 중 하나가 되었다. Donald Sutherland와 John Mackay는 1880년에 Mackay와 Sutherland Falls를 발견했으며, 개척자 탐험가이자 측량가인 Quintin Mackinnon보다 먼저 Mackinnon Pass를 건넜음. 1888년에 서덜랜드와 동료들은 아서 밸리를 따라 서덜랜드 폭포까지 가는 길을 내도록 위임받았고, 맥키넨은 테아나우 호수의 입구에서 클린턴 밸리까지 트랙 조성공사에 고용됨. 1888년 10월 17일, 맥키넨과 그의 동료 어니스트 미첼은 클린턴 계곡의 정상에 도착하여 고개를 넘어 서덜랜드가 개척한 트랙을 따라 계속해서 아서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Mackinnon은 최초의 밀포드 트랙 가이드였으며 가이드 여행 오두막 중 하나에서 이름을 따온 일종의 스콘인 폼폴로나를 잘 요리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 가이드로서 그는 범선 줄리엣을 타고 테아나우 호수의 입구까지 그리고 고개를 넘어 에이다 호수까지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다른 보트로 밀포드 사운드에 있는 서덜랜드 숙소로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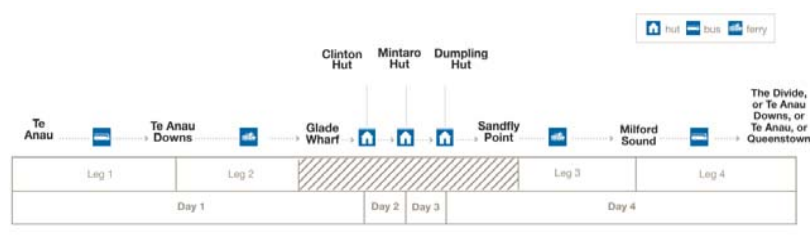
(밀포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산책) 트래커들은 Te Anau-Milford Sound 고속도로가 개통된 1954년이전 까지는 밀포드 사운드에서 트랙을 따라 다시 돌아와야 했음. 1908년 런던 스펙테이터(London Spectator)에 실린 시인 블랑쉬 본(Blanche Baughan)의 기사에 밀포드 트랙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산책"이라고 칭하였다. 밀포드 트랙이 멋진 산책이지만 트랙은 모든 보행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DOC 홈페이지에서 말한다. 노출된 산악 환경과 악천후로 인해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밀포드 트랙의 일부는 노출되어 있고 가파르고 미끄럽고 거칠고 진흙 투성이다. 3일차에는 Omanui/McKinnon Pass까지 500m 이상 올라간 다음 Dumpling Hut까지 1000m 내려간다. 넷째 날에는 18km를 걸어야 샌드플라이 포인트(Sandfly Point)에 도착하여 이른 오후 보트를 만날 수 있다. 특히, 겨울에 밀포드 트랙을 완주하려면 특별한 기술과 준비가 필요하다. 제공되는 편의 시설이 많이 축소되고 눈, 얼음, 눈사태 지형 및 영하의 온도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한다. 휴대전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음식) 밀포드 트랙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있는 트래킹 구간이어서 트래킹 중 음식을 구입할 수 없다. 가볍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 가치가 높은 음식을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는 시리얼/죽/귀리, 단단한 빵, 꿀 또는 기타 스프레드, 점심식사는 크래커 비스킷, 치즈, 살라미 소시지, 잼/젤리, 과일, 그리고 저녁 식사는 즉석 수프, 파스타 또는 쌀, 말린 야채 또는 과일, 치즈 또는 탈수(동결 건조) 식사 등을 권장 한다. 트래킹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경우에 대비하여 물, 스낵, 비스킷, 뮤즐리 바, 차 또는 커피, 가루 과일 음료 및 비상식량도 필요하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 예약된 도보 시즌(10월 말에서 4월 말) 동안 트랙은 Glade Wharf에서 Milford Sound까지 한 방향으로만 걸을 수 있다. 매일 최대 4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밀포드 트랙이 선사하는 고요함과 고독의 마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밀포드 트랙에 북부 피오르드랜드 토코에카(남부 갈색 키위)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키위는 서식지 손실 및 포식자로 인해 감소하고 있었다. DOC와 에어뉴질랜드가 함께 클린턴과 아서 계곡 구간의 포식자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밀포드 트랙의 9,330헥타르가 넘는 지역에 트래핑 네트워크를 설치하였다. DOC, 에어뉴질랜드와 iwi 및 기타 파트너의 협력으로 양 지역에서의 조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 밀포드 트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통 퀸스타운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이동하여 테아나우에 도착하고 SH94의 테아나우에서 27km 떨어진 테아나우 다운스에서 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테아나우 다운스까지(30분)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그런 다음 테아나우 호수(1시간 15분) 입구까지는 보트를 이용하며 트랙은 Glade Wharf에서 시작됨. 테아나우 호수는 면적이 344제곱킬로미터로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호수이다. 밀포드 트랙은 샌드플라이 포인트에서 끝나게 된다. 보트를 이용하여 밀포드 사운드/피오피오타히 까지 도착하면 테아나우로 되돌아가서 퀸스타운으로 가는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레이트 워크 시즌 동안(10월 하순~4월 30일, 마지막 출발 4월 28일), 밀포드 트랙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영하며 예약은 필수이다. 시즌에는 Cheeky Kiwi, EasyHike, Fiordland Outdoors Company, RealNZ, Tracknet, Trackhopper 등의 여행사가 여행 패키지를 운영한다. 일반적인 4일 코스 여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Great Walks Milford Track brochure, DOC



출처 : <http://www.road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93>

7) 존뮤어 트레일 (John Muir Trail, JMT)

(개요)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인으로 자연주의자, 작가인 존 뮤어는 시에라클럽이라는 환경보호단체를 만들고 미국의 요세미티 협곡과 세콰이어 자연공원 등을 지키는데 헌신하였다. 이 존 뮤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존뮤어 트레일은 약자로 JMT라 부르며 요세미티 계곡에서 미국 본토 최고봉 휘트니(4,418m)에 이르는, 4개의 국립공원을 잇는 343.9km의 산과 숲의 길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 경관을 볼 수 있는 길로도 정평이 나 있다. 전 세계의 많은 하이커들에게 '반드시 걸어야 할 트레일'이자 '일생의 목표'로 추앙받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장거리 트레일을 가진 미국에서도 가장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알려진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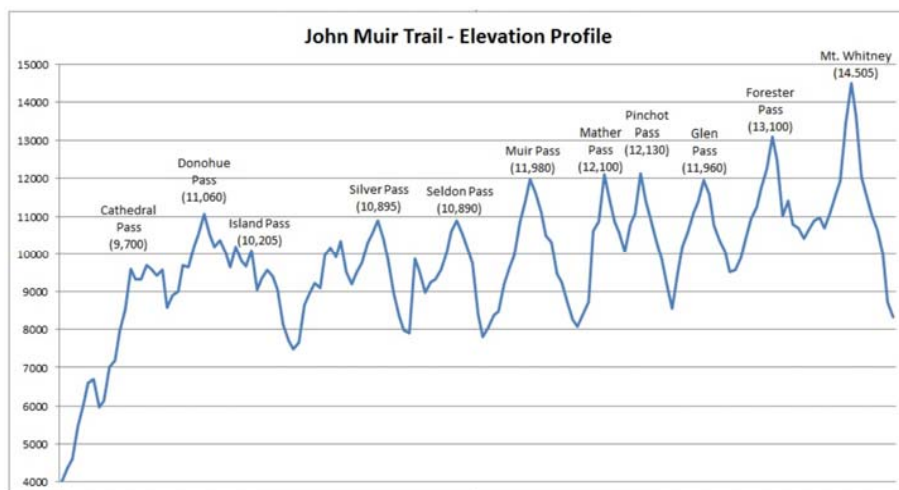
(역사) 유럽계 미국인 정착민이 도착하기 전에 하이 시에라 지역에 거주하는 파이우트(Paiute) 사람들은 사냥과 이웃 원주민 그룹과의 교역을 위해 다양한 오래된 길을 활용함. 이 지역을 트레일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을 인정하기 위해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및 환경 단체에서는 JMT를 Nüümü Poyo(People's Road) 기리고 있다. 하이 시에라(High Sierra)의 산맥을 따라가는 트레일에 대한 아이디어는 테오도어 솔로몬스(Theodore Solomons)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솔로몬은 프레스노 근처에서 울타리가 없는 거대한 알팔파 들판에서 삼촌의 소떼를 몰고 가면서 트레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회상했고 그때 그의 나이 14살 이었다고 한다. 솔로몬은 지금의 Evolution Basin으로 알려진 지역을 탐험했으며 가능한 트레일 경로를 탐색하면서

High Sierra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LeConte는 Kings River와 Kern River의 협곡과 고개를 탐험하고 제안된 트레일을 따라 봉우리를 등반하는 데 수년을 보냈으며 제임스 S. 허친슨(James S. Hutchinson), 던컨 맥더피(Duncan McDuffie)와 함께 그는 1908년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에서 킹스 캐년(Kings Canyon)까지 대략 지금의 JMT 루트를 따라 높은 산악 루트를 개척하였다. 시에라 클럽은 1892년에 설립되었고 John Muir는 Sierra Club의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이 되었으며 1914년에 시에라 클럽은 트레일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와 협력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John Muir는 그해 말에 사망했고, 제안된 트레일은 그를 기리기 위해 JMT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John Muir Trail은 1915년 5월 17일로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의 법안에 의해 Hiram Johnson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하였다.

(John Muir) Muir는 1868년 29세의 나이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는 "야생"으로 가는 길을 물어본 후 담요, 차, 빵, 노트와 같은 생필품을 들고 도보로 요세미티 계곡으로 떠났다고 한다. Muir는 요세미티에 도착했고 경치에 너무 매료되어 양치기로 일하면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는 몇 년 동안 벌목과 파괴로부터 숲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땅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항의하는 삶을 보냈다. 뮤어는 1872년 요세미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Muir는 또한 몇 주 동안 하이킹을 하고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외출을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외출은 진정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uir는 1892년에 시에라 클럽을 설립하고 숲과 공원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제공해야 했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하이킹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 "일반인이 한 번이라도 숲 속으로 들어가 나무가 스스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숲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의 존(John-of-the-Mountains)으로 불린 그는 시에라와 그 황야의 역사에서 틀림없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그의 죽음을 초월했으며 1915년 시에라 클럽은 존 뮤어 트레일 건설을 위해 처음 10,000달러를 충당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을 승인 받았다. 존 뮤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1938년에 트레일 건설이 완료되었다.

(JMT트레일 코스) JMT의 길이는 343.9km로 요세미티 밸리(Yosemite Valley)의 북쪽 종점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져 하프 돔(Half Dome) 남쪽을 지나 투올러미 초원

(Tuolumne Meadows)으로 이어집니다. 투올러미 메도우(Tuolumne Meadows)에서 트레일은 남쪽으로 향하여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의 주요 산맥과 평행을 이루며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인요(Inyo) 및 시에라 국유림(John Muir Wilderness 및 Ansel Adams Wilderness 포함)을 거쳐 데블스 포스트파일 국립 기념물(Devils Postpile National Monument), 킹스 캐년(Kings Canyon)을 통과한다. 대성당 고개(9,700피트 고도), 도노휴 고개(11,056' 고도), 아일랜드 패스(10,205' 고도), 실버 패스(10,895' 고도), Selden Pass(10,880' 고도), 뮤어 고개(11,995' 고도), 매터 고개(12,100' 고도), 핀컷 고개(12,130' 고도), 글렌 고개(11,978' 고도), 포레스터 패스(13,180피트 고도 -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패스), 휘트니 산(14,505' 고도 - 48개 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하이시에라 지역을 통과한다. 마운트 휘트니 정상에 있는 JMT의 남쪽 종점에서 휘트니 포털에서 가장 가까운 트레일 기점에 도달하려면 휘트니 산 트레일을 추가로 17.1km를 더 하이킹해야 하여 JMT는 실질적으로 221마일(356km)임. 총 오름(남쪽 여행): 46,000피트 총 하강(남쪽 여행): 38,000피트 이다



출처 : 로드프레스(<http://www.roadpress.net>)



출처 : 로드프레스(<http://www.roadpress.net>)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 JMT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최소한의 환경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철저한 자연보호를 위해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의 허가된 기간 동안에만 이 트레일을 걸을 수 있음. 시에라 네바다의 야생 허가(Wilderness Permit)는 트레일에 흠비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할당량 시스템을 운영한다. 요세미티에서 남쪽으로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허가가 필요함. 허가증은 시작일로부터 24주(168일) 전에 추첨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정확히 168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대부분 JMT 자리는 일반적으로 첫날에 만석이 된다. 여행 전날 공원에 있는 허가증 스테이션에서 막바지 이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마운트 휘트니에서 북쪽으로 트래킹 하기 위해서는 인요 국유림의 허가가 필요하다. 추첨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온라인 예약이 시작된다. 워크 인(Walk-in) 허가증 발급은 운영하지 않는다.

(야생동물 보호) JMT를 따라 있는 모든 야생 지역에서는 적절한 식품 저장이 필수이다. 곰과 다른 야생 동물이 인간의 음식에 적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음식 품목을 적절하게 보관이 요구된다. 각종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세면도구, 비누, 치약, 연고, 로션 등 향이 나는 품목 들은 반드시 적절한 용기에 보관해야 함. 휴대용 식품 저장 용기(곰 캐니스터)는 식품을 보호하는 데 권장되는 방법이며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수면 공간에서 50피트 떨어진 바닥에 용기를 보관하도록 권장된다. 영구 식품 보관함(한정된 장소)은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식품 재보급을 위한 보관이나 원하지 않는 물건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요건) 모든 야간 여행에는 야생 허가증이 필요하다. 서명된 허가서는 허가 받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 시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룹 크기 제한은 15명 이하로 제한한다. 침식방지를 위해 탐방로 중앙으로 보행, 진흙 길이나 눈이 와도 지름길로 가지 말 것을 권장 한다. 암석 케언즈나 기타 트레일 마커를 만들지 말 것을 권장한다. 광야에 음식이나 장비를 묻지 말 것을 권장한다. 화장지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올 것을 권장한다. 바퀴 달린 차량이나 동력 장비는 야생에서 금지된다. 오프 트레일 그룹 크기 제한은 요세미티에서 8명, Sequoia 및 Kings Canyon에서 8명 또는 12명(위치에 따라 다름)이다.

(관리기관 거버넌스) PCTA는 행정 경계를 넘어 최고의 트레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및 비영리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존 뮤어 트레일(JMT) 섹션은 파트너십의 사례이다. JMT는 210마일 경로 중 190마일에 대해 PCT와 일치하여 하이 시에라 산마루를 통과한다. PCT-JMT 중첩은 4개의 Wilderness 지역(요세미티, Sequoia-Kings Canyon, Ansel Adams 및 John Muir)과 5개 관리 단위(Sequoia-Kings Canyon 및 Yosemite 국립공원, Devils Postpile National Monument, Sierra 및 Inyo National)를 통과할 때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지역이다. 또한, 다른 4개 국유림에서도 PCT-JMT 섹션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에이전시 파트너인 PCTA와 버지니아 공대, 펜실베이니아 주, 홈볼트 주립 및 캘리포니아 머시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존 뮤어 트레일 협력"으로 알려진 파트너십을 통해 PCT-JMT를 통합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협력하고 있다. PCTA는 PCT 장거리 허가증의 효율성 평가, 여행 패턴 연구를 돕기 위한 방문 데이터 수집,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 교육 및 자원 조사를 지원하는 자원 봉사자 제공, PCT 및 트레일 사용자가 Wilderness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전문 지식의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High Sierra의 파트너 간의 강화된 작업 관계를 넘어,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국경을 초월한 순찰과 모니터링이 통합되었으며 매핑 및 교육 노력에 파트너가 되었으며 여러 기관에 대한 허가 할당 방식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JMT 하이커를 위한 고도 가이드라인 등 자료제공) JMT야생보호협회 등 보호기관에서 트래커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트래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예는 JMT가 4000피트 이상 높은 고도에서 트래킹을 해야 하므로 고산병의 증세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An Unofficial Acclimatization Guideline for JMT Hikers Things to consider when planning your John Muir Trail hike

Leslie Rozier, DNP, APRN, Inga Aksamit, RN-BC, MBA and Kenny Meyer

The following guideline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the illnesses triggered by the reduced oxygen content of air found at the higher elevations on the John Muir Trail (JMT) and other parts of the Sierra Nevada in California with recommendations for how to avoid altitude illnesses

Table of Contents

Why should you read this guideline?.....	2
What is 'high altitude'?.....	2
What happens in the body when the oxygen level changes (simple version)?.....	4
What does normal acclimatization look like?.....	4
What is high-altitude illness (HAI)?.....	5
Who gets high-altitude illness (HAI)?.....	8
How is acute mountain sickness (AMS) recognized?.....	10
What can be done to prepare for a high-altitude journey?.....	12
What is the best way to acclimatize?.....	12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igh-altitude illness.....	13
Acclimatiz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15
Example JMT plans with acclimatization.....	24
Summary.....	32
About the authors.....	32
References.....	33
Appendix I: Data Tables.....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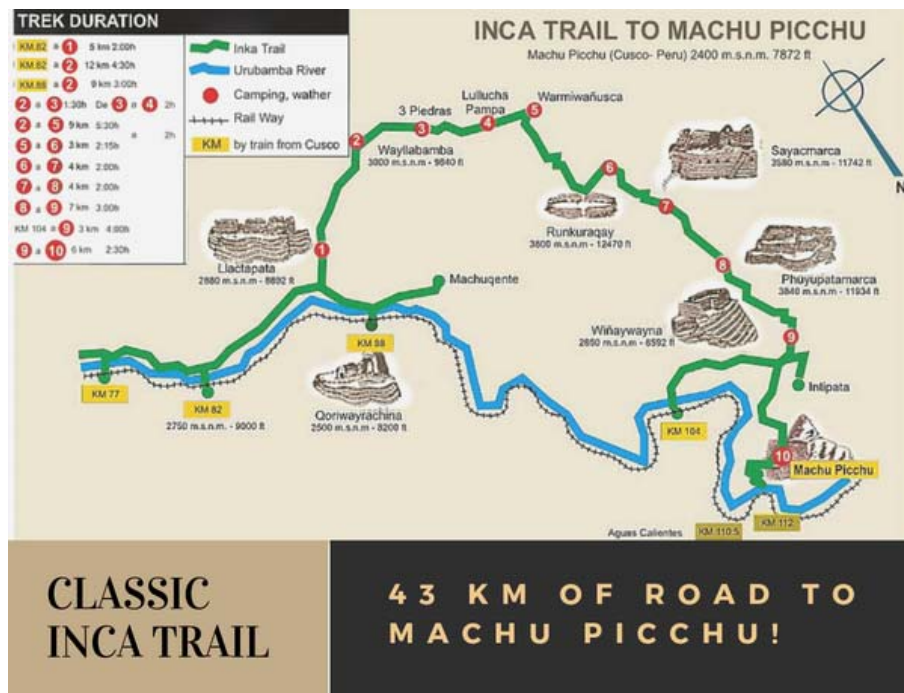
출처 : <https://jmtwilderness.org/resources/>

9) 잉카 트레일 (Inca Trail)

(개요) 원래 잉카 트레일은 옛 잉카인들이 다닌 에콰도르(퀴토)와 칠레(산티아고)의 수도를 잇는 40,000km의 길을 말함. 잉카트레일은 안데스 산맥을 따라 찬란한 잉카 문명에 관한 수많은 전설들을 간직한 길이다. 마추픽추로 가는 잉카 트레일(카미노 잉카라고도 함)은 마추픽추에서 끝나는 페루의 하이킹 트레로 몰레파타(Mollepata), 클래식(Classic), 원데이(One Day)의 3개의 트레일로 구성된다. Mollepata는 가장 높고 가장 길며 Warmiwañusqa("죽은 여자")를 건너기 전에 Classic 루트와 교차한다.

(트레일 루트) 잉카트레일은 일반적으로 Classic 트레일을 의미한다. 안데스산맥의 잉카 트레일은 운무림과 고산 툰드라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안데스 환경 경험할 수 있으며 마추픽추 산의 종점인 태양의 문까지 여정에 고대 잉카의 정착지, 터널 및 많은 잉카 유

적을 볼 수 있다. 잉카 트레일의 고도는 매우 높아 트레킹하기 전에 쿠스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Cusco의 고도는 해발 3,200미터이며 마추픽추(2,430미터)보다 높다. 트레킹은 2,600m에서 시작하여 첫날에는 3,300m까지 오르고 둘째 날은 잉카 트레일에서 가장 높은 4,200미터 지점인 Dead Woman's pass를 넘어 가며 다시 3,600미터까지 내려온다. 트레일은 이 지점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2,430미터의 마추픽추에 도착할 때까지 내려간다.



출처 : 로드프레스(<http://www.roadpress.net>)

(4일 코스 클래식 잉카 트레일) 1잉카트레일이 보통 여행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비슷한 일정으로 트레킹을 할 수 있으며 캠프장도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프로그램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클래식 잉카트레일 4일코스 예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지역	쿠스코 - KM82 - 야아파타	AYAPATA - 죽은 여성 패스 - RUNKURACCAY 패스 - CHAQUICCOCHA	차퀴코차 - 푸유파 타마르카 패스 - 위 아이와이나	잉카의 신성한 도시 마추픽추
거리	14km	16km	10km	5km
트레일 고도	2720m/8923ft	3300m/10829ft	3600M/11800ft	2680m/8792ft
캠프장 고도	3300m/10829ft	3600M/11800ft	2680m/8792ft	마추픽추 고도: 2400미터/7873피트
난이도	보통	도전적	도전적	보통

출처 : <https://www.alpacaexpeditions.com/classic-inca-trail-trek-4d3n-group-service/> 재정리

(잉카트레일 명소) 잉카트레일 자체가 페루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새들이 살고 있는 무성한 녹색 구름 숲, 안데스 산맥 봉우리, 가파른 산길, 수세기 전 유적이 점재하는 풍경 등을 이 가장 유명한 트레일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킹만큼이나 진정으로 아름답지만 인기 있는 진짜 이유는 이 4일 간의 모험이 끝나는 지점에 있다. 멀리서 마추픽추를 처음으로 마법처럼 보기 위해 태양의 문을 통과한다. 잉카 트레일 등산객들만이 일출에 맞추어 게이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하이킹을 수많은 '남아메리카 버킷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보전노력) 트레일 허가 여부는 페루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 이전에는 트레커들이 규제 없이 이 트레일을 걸었다. 1996년 7월~2001년 8월 성수기에는 하루 1000여명의 관광객이 이 길을 찾았으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트레커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야영을 하게 되었고, 유적지는 화장실과 쓰레기 더미로 사용되었다. 유네스코는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 후 잉카 트레일의 세계 문화 유산 지위를 제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페루 정부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고 2005년까지 하루 허용 인원을 50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침식으로 이어지는 남용에

대한 우려로 페루 정부는 계절별로 트레킹 인원수를 제한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회사를 급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덕분에 페루 당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잉카 트레일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레일은 관리를 위해 매년 2월은 폐쇄한다. 페루 정부는 모든 트레커는 가이드 동반을 의무화 했으며 이 규칙 때문에 허가는 정부 등록 여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타인에 양도할 수 없다.

(숙소) 잉카트레일은 가이드와 포터를 동반하므로 자체적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트레일을 완주한다. campground Pakaymayu, Phuyupatamarca 등을 비롯한 캠핑 장소에서 숙박을 해결한다. 여행사를 통해 트레킹을 하는 경우 숙박을 위한 텐트 설치와 더불어 식사 준비까지 모두가 포터와 요리사가 해결해준다.

(규제를 통한 사이트 보존) 1. 트레일 허용인원: 트레일의 인원은 트레커, 가이드, 보조 가이드, 요리사 및 포터가 포함된 500명으로 제한된다. 이 500명 중 실제 트레커는 약 220명 정도이다. 2. 독립 트레킹: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행사 서비스 없이 잉카 트레일을 걷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8명 미만의 소규모 그룹이 있는 경우 가이드 서비스만 고용할 수 있다. 가이드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이드는 또한 그룹을 위해 미리 잉카 트레일 트레킹 허가를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를 고용할 경우 텐트 등의 모든 장비를 직접 들고 가야 하며, 요리사, 포터 등의 추가 트레킹 직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요리를 해야 한다. 가이드는 응급 처치 장비 및 비상 산소 운반을 포함하여 모든 잉카 트레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여행사는 가이드 고용에 관심이 없고 대부분의 최고의 가이드는 여행사에서 일하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가이드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 3. 최대 그룹 크기: 최대 그룹 크기는 16명입니다. 10인 이상의 그룹은 가이드와 보조 가이드가 필요하다. 4. 입장료(트레킹 허가증): 성인 잉카 트레일 입장료는 미화 50달러이다. 이 요금에는 마추픽추 유적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한 국제 학생 신분 카드(ISIC)를 소지한 26세 미만의 학생은 US\$2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US\$25 할인을 받는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5. 금지품목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 칼, 도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냥 장비. 총기류 또는 불꽃놀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발물. 등유, 디젤유, 휘발유 또는 이와 유사한 연료. 마약 또는 모든 종류의 각성제(실제로 마약은 현재 국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물을 포함한 유리 용기에 담긴 모든 제품. 라디오, 스피커 또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

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음향 장치를 포함한 소음 발생기. 애완동물 또는 모든 가축. 고무 폐를 끝이 있는 지팡이, 금속 또는 나무 폐를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자전거, 세발 자전거 또는 기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량.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전문 촬영 장비. 드론 또는 모든 유형의 비행 장치. 캠프파이어 절대금지, 불필요한 소음 행위, 암벽 등반 등을 규제하고 있다.

3. 기반시설 및 활성화 프로그램 사례

가. 기반시설 사례

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알베르게”

순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는 크게 알베르게, 호스텔, 펜션, 호텔의 네 종류로 나뉜다. 알베르게는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나 성당에서 운영하지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알베르게도 있다. 그러나 일단 알베르게라는 이름이 붙으면 7~15유로 정도의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받고 있다.²⁶⁾

공립 알베르게는 예약 없이 오직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공립에 비해 3~5유로 비싼 사립 알베르게는 현지에서 추가로 1~2유로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저렴한 공립이 사립보다 먼저 만석이 되고 알베르게가 만석이 되면 조금 더 값을 내고 부근의 호스텔, 펜션에서 묵거나 조금 더 걸어가서 다음 알베르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공립(시립) 알베르게는 보통 1박만 허용하며 주인과 협의하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Galicia주 공립(시립) 알베르게는 숙소 배정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신체적 한계가 있는 순례자, 도보 순례자, 승마 순례자, 자전거 순례자, 차량이용 순례자 순으로 배정한다고 한다.²⁷⁾

대부분의 숙소에서 식사가 제공되기도 하나 대부분 주변 지역 상점에서 순례여권 확인 후 순례자용 할인 메뉴를 판매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숙소가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간단한 취사를 통해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다. 유럽의 비싼 물가에도 잠자리와 취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알베르게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26) 조현정. (2018. 11.).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1), 기독교사상.

27) 배연덕. (2015. 6. 20.). Albergue(알베르게, 순례자 숙소)는 어떤곳이며 어떻게 묵을 수 있나요?.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oleekr/220396011616>



카미노 데 산티아고(28)



알베르게(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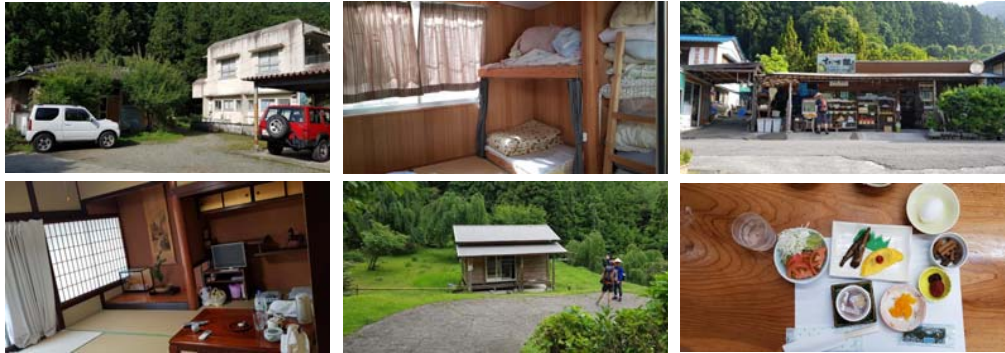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 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미노 프랑세스’ 순례길의 도시별 알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알베르게 숙소 사진과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운영 형태(공립, 사립, 협회, 시립, 교구), 개장시기, 이용가격, 숙소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와 함께 해당 알베르게만의 스탬프 세요 및 숙소 내부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2) 일본 시코쿠길 “슈쿠보”

순례자들은 절이 제공하는 숙소 ‘슈쿠보(宿坊)’나 절 주변의 민박, 여관, 비즈니스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순례자들은 숙소에서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고 밥을 제공하는 숙소에서 식사는 안하고 잠만 자는 ‘스도마리(素泊まり)’를 하기도 한다. 식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식사를 원하지 않는 순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숙박 방식인 ‘스도마리(素泊まり)’를 하게 되면 식사를 겸한 일반 숙박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슈쿠보(宿坊)’는 절에 있는 숙박용 건물로 스도마리가 아니라면 정진요리(일본식 사찰음식)를 맛볼 수 있다. 대개 1박 2식에 6천 엔대이며 스도마리는 4천 엔대이다. 슈쿠보는 대부분 욕장이 있어 피로를 풀기 좋다.

-
- 28) 허연&손동우. (2008. 1. 28.). 코엘료의 순례길 문화코드 되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08/01/50961/>
- 29) 정효정. (2016. 8. 21.). 푸엔테 라 레이나의 공립알베르게, #푸엔테 라 레이나, 오마이포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008478&tag=%ED%91%B8%EC%97%94%ED%85%8C+%EB%9D%BC+%EB%A0%88%EC%9D%B4%EB%82%98&gb=tag
- 30) 정효정. (2016. 12. 1.). 순례자 숙소(알베르게) 내부, #카미노, 오마이포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061652&tag=CAMINO&gb=tag



[그림 2-28] 민박, 여관, 스쿠보 그리고 식당³¹⁾

숙박시설들에 관한 정보는 관련 단체에서 발행한 책자나 도착한 절에서 얻을 수 있다. 시코쿠헨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순례지도에는 사찰의 위치와 관련 정보, 주소, 전화, 주차가능여부, 스쿠보 이용가능여부 정보를 지도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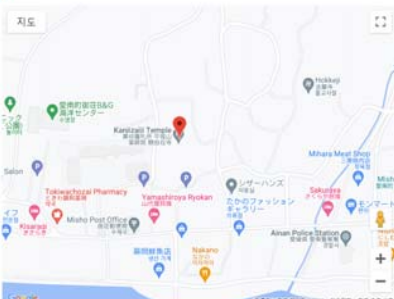
40



No. 40 Heijozan Kanjizai-ji
(へいじょうざん かんじざいじ)
Location: 2253-1, Misho Hirajo, Ainan-cho Minamiuwa-gun
Telephone : 0895-72-0416

Save to My Map

観自在寺の周辺マッ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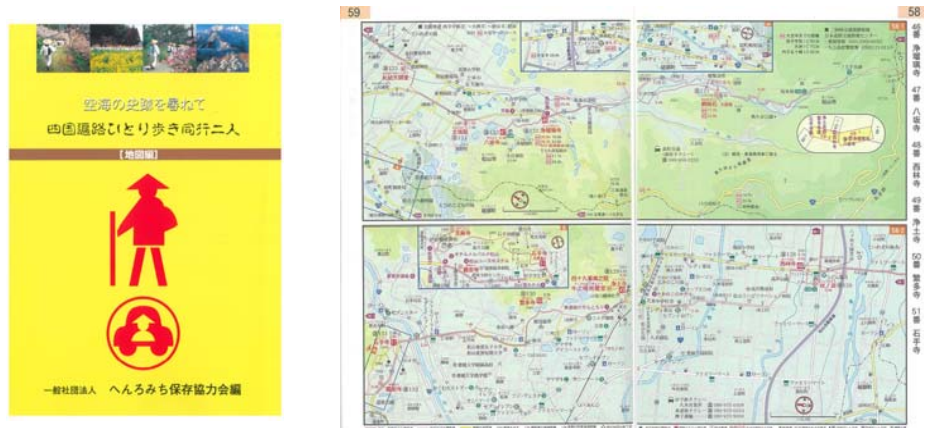
종파	겐연종대각사파
본존	약사여래
개기	훈법대사
창건	대통2년(807)
주소	〒795-4110 미나미후와군 아이난초 고소헤이조 2253-1
전화	0895-72-0416
주차장	
스쿠보	예

[그림 2-29] 시코쿠헨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순례지도 및 정보³²⁾

31) 김보국. (2019. 3.).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32) 시코쿠헨로 홈페이지. (2022. 5. 검색). 시코쿠 순례지도. <https://www.seichijunrei-shikokuhenro.jp/map/kochi/>

헨로미치(순례길)보존협력이사가 발행하는 노란 지도책 ‘시코쿠 순례 혼자 걷는 동행이인(四国遍路ひとり歩き同行二人)’에는 숙소정보, 편의점 위치, 세탁소, 머물 곳, 구카이 대사와 관련된 번외 사찰 등의 정보가 상세하다. 숙박 시설의 경우 슈쿠보, 여관, 비즈니스 호텔과 같은 약 650개의 숙박 시설의 주소와 연락처, 상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숙박 시설 목록에는 순례길 앞뒤 사찰 사이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일정 계획에 도움을 준다.



[그림 2-30] ‘시코쿠 순례 혼자 걷는 동행이인’ 지도책³³⁾

3) 일본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캠핑”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의 나토리 트레일 센터 정원은 야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을 걷고 있는 등산객이나 캠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텐트설치로 숙박하는 프리 텐트 사이트와 차를 정차해 숙박할 수 있는 오토캠핑 사이트가 있다. 야영장 도보 10~20분권내에 나토리 지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사이클 렌트샵, 쇼핑 센터, 스포츠 센터 등이 위치해있다.

야영장 내에 이용객들에 한해 무료샤워실, 코인 세탁기 및 건조기, 화장실, 바이오 화장실³⁴⁾, 개수대가 있고 무선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다.

33) 헨로미치보존협력회 홈페이지.(2022.5.검색). 도서 상품소개-시코쿠 순례 혼자 걷는 동행이인 지도책. <https://www.iyohenro.jp/product/detail>

34) 바이오 화장실 : 미생물의 힘에 의해 배설물을 분해·처리하는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오수에 의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화장실.



오토캠핑 사이트 전경



프리 텐트 사이트 전경



코인 세탁기 및 건조기



바이오 화장실

출처 :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2. 3. 25.).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나토리 트레일 센터 야영장에 대해서. <https://m-tc.org/blog/facilityintroduction/4906/>

[그림 2-31]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나토리 트레일 센터 야영장

4) 뉴질랜드 밀포드트랙 “오두막”

밀포드 트랙에서 숙박은 DOC 에서 운영하는 3개의 오두막 숙소에서 해결하며 캠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특히, 성수기인 Great Walks 시즌(10월 말~4월 30일, 마지막 출발 4월 28일)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숙박을 해결할 수 없다. 오두막에는 이층침대, 매트리스, 난방 시설, 화장실, 기본적인 조리 시설, 태양열 조명 및 흐르는 차가운 물이 있다. DOC 레인저가 상주하고 있고 오두막에는 조리 기구나 샤워 시설이 없다. 밀포드 트랙에 있는 3개의 DOC Great Walk 오두막 중 하나인 Clinton 오두막을 자세히 보면 공동 취침 레이아웃의 매트리스가 있는 이층침대 40개가 있으며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그레이트 워크 시즌에는 물 공급, 수세식 변기, 찬물이 흐르는 세면대(샤워는 없음), 연료로 난방이 가능하며 공동 주방 공간에 태양광 조명이 설치, 연료, 테이블 및 좌석이 있는 조리 시설(그러나 조리 기구는 없음), 레인저가 상주하고 있다. 그레이트 워크 시즌 외에는 가스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인 요리용 스토브를 가져와야 한다, 수세식 변기는 구덩이 변기로 대

체된다. 오두막 내부에서 흐르는 물이 차단된다. 물은 외부 수조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열면 가장 가까운 수로 또는 녹은 눈에서 얻을 수 있다. 오두막에 상주 레인저가 없다. 시즌에는 성인은 1인 1박 당 \$110 이며 17세 미만은 1인 1박당 \$55이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5) 미국 존뮤어트레일 “캠핑”

트레일을 완주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약 3주가 소요되며 숙박은 별도의 숙박시설이 없고 캠핑을 해야 하며 모든 Inyo 국유림 토지(및 인근 토지 관리국 토지)에서 캠프파이어, 숯불, 캠프 스토브 또는 모든 화염을 사용하려면 캠프파이어 허가가 필요하다. 화재 위험이 높은 기간 및 특정 지역에서는 캠프파이어가 제한될 수 있다. John Muir Trail(JMT)을 따라 있는 모든 황야 지역에서 캠프장은 흙, 자갈 또는 바위와 같은 내구성이 있는 표면에 있어야 하며 수원 및 트레일에서 최소 100피트(30미터/40보) 떨어져 있어야 한다. 초목이나 초원에서 야영은 금지되며 캠핑장은 트레일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면 합법적인 기존 사이트를 사용하고 암벽, 참호, 새 방화 고리(또는 기존 방화 고리에 돌 추가), 가지 침대, 캠프 가구 등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불 피우기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기존 방화 고리를 사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의 파이어 링에 돌을 추가하지 말고 살아있는 식물을 자르거나 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제거하지 말고 땅에서 발견된 죽은 나무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 운영프로그램 사례

1) 체험프로그램 : 일본 시즈오카현 “농박프로그램”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농박프로그램은 자연이 풍부한 농산 어촌 지역에서 농가 민박 등에 숙박하고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생활 체험이나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고, 그 지역의 매력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농산 어촌 체류형 여행이다.

현내 여러 농박지별 컨셉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農泊地域 MAP



출처 :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2022. 10. 7.). 농박 가이드.
<https://shizuoka.hellonavi.jp/category/activity/nohaku>

[그림 2-32] 시즈오카현의 농박지역 지도

마쓰자키초는 아름다운 계단식 논과 후지산을 바라보는 바다, 산악자전거와 바다 카약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농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산의 경사면에 이용하여 약 370장의 논이 이어지는 이시베의 계단식 논에서 사계의 변화를 즐길 수 있고 계단식 논에서 얻은 흑미와 적미를 사용한 우동이나 빵, 소주를 맛보거나 구매할 수 있다. 5월에는 이 논에서 풋볼 나이트가 개최되어 농촌의 아름다운 야간풍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운미해안은 바다 너머 후지산의 모습이 아름다워 현재 후지산 포토 스팟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름에는 족욕, 겨울에는 후지산 전망지로 찾는 명소이다.

옛날 지역민이 숯불구이를 위해 이용하던 산속 옛길을 산악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야마부시 트레일 투어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어 산악자전거 렌탈샵을 이용하여 초보자들도 산악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마쓰자키 초항 옆 현지식당에서는 냉동 수산물이 아닌 신선한 생물 해산물을 가정에서 좀처럼 할 수 없는 숯불로 구워주는 것으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있는 식당이다.



[전망] 이시베의 계단식 논



[전망] 계단식 논의 전망대(후지산 전망)



[체험] 초가지붕의 오두막 물레방아



[아간전망] 계단식 논이 촛불 나이트



黒田の黒米うどん



黒・赤米焼酎「百笑一喜」

[먹거리] 계단식 논에서 재배한 흑미, 적미로 만든 지역생산물



[체험] 운미해안의 미지근한 족탕-여름
[전망] 운미해안 뒤로 후지산 전경-겨울



[체험] 자전거 트레일 체험(아마부시 트레일 투어)



[먹거리] 현지인에게도 인기있는 '민에다방'
수산물식당(술밥 해산물구이)

출처 :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2022. 10. 7.). 농박 가이드.
<https://shizuoka.hellonavi.jp/category/activity/nohaku>

[그림 2-33] 시즈오카현의 마쓰자키초 농박 프로그램

시마다 오이가와 유역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살린 액티비티와 시설, 현지 차농가와 농산물도 맛볼 수 있는 농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다미 일본식의 방이 있는 농가 민박에서 사슴뿔을 깎아 악세서리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고, 지역산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소바를 맛볼 수 있는 복고풍의 현지 식당, 지역의 농산물을 뷔페 스타일로 만끽할 수 있는 농가레스토랑이 있다. 또 현지 농가의 신선한 식재료 구입이



[먹거리] 야외에서 식사가 가능한 복고풍
현지식당 '사쿠라 찻집'



[숙박] 시골을 체험할 수 있는 농가 민박
'이초카'
(다다미 일본식 방)



[체험] 민박내 운영하는 사슴볼 약세서리
만들기



[먹거리] 지역 농산물을 뷔페 스타일로
만끽할 수 있는 농가레스토랑(Da Monde)



[체험] 산의 경사를 이용한
우가야마의 칠곡
패러글라이딩



[먹거리/체험] (좌)현지 농가의 신선한 식재료 구입이 가능한
미치노에키 매점, (우)안접한 BBQ 코너 시설



출처 :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2022. 10. 7.). 농박 가이드. <https://shizuoka.hellonavi.jp/activity/nohaku/shimadashi>

[그림 2-34] 시즈오카현의 시마다 오이가와 유역 농박 프로그램

가능한 매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농가인접한 BBQ 코너에서는 식재료 구입만 해도 BBQ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시즈오카현 지정의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우가야마의 칠곡에서 경치를 조망하며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2) 체험프로그램 : 일본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해양프로그램” 35)

해양 프로그램, 서핑처럼 보드 위에 서서 패들을 젓고 해상을 누비는 마린 액티비티(SUP; Stand Up Paddle)에 참가하거나 카약 체험 등이 이루어진다. 마린 액티비티는 미나미 산리쿠에서 중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각 회당 10명의 인원제한을 두어 선착순 예약제로 체험회를 무료로 진행한다.



출처 :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2. 9. 검색).

[그림 2-35] 마린 액티비티 및 카약 체험

2021년 9월에 시행한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클린 활동은 트레일 연안 각지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최초의 트레일 청소 활동으로 시읍면과 협력하여 쓰레기봉투 제공이나 회수 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였다.

35)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m-tc.org/>



출처 :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1. 11. 10.).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클린 활동. <https://m-tc.org/blog/eventreport/5106/>

[그림 2-36]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클린 활동

3) 탐방로 이벤트 :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후지 “트레일 러닝”

세계적인 트레일 러닝 대회 중 하나로 일본 후지산 주변 800m 전후의 산들을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후지(UTMF; Ultra-trail Mt. Fuji)가 있다. 「작은 UTMF」는 매년 5월에 어린이를 위한 트레일 러닝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트레일 레이스를 달리는 이벤트로 기록의 계측과 완주증을 받을 수 있는 레이스 대회형식으로 치러진다.

트레일(비포장로)을 달려보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가하여 자연속에서 달리는 트레일 러닝의 즐거움을 알고 달리는 방법을 배우는 체험이 가능하며 보통 코스길이는 1~3km로 아이가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정비된 길이다.

4세 아이부터 어른까지 레이스 참가가 가능하며 초보자 어른을 위한 솔로 참가나 아이, 어른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레이스가 있으며 소정의 참가비가 필요하다.



출처 :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2021. 11. 10.).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트레일 러닝 첫 체험! 달리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작은 UTMF”」. <https://door.abc-mart.net/23289>

[그림 2-37]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트레일 러닝 “작은 UTMF”

4) 탐방로 이벤트 : 프랑스 랑도네 “챌린지 프로그램”

2~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도 보는 방법 습득, 숲속에서의 방향감각 및 주변 환경파악, 트레일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매년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고 참여를 독려한다. 진행방법은 참여자들이 트레일 상의 특정 지점들에 대한 지역 환경 및 문화, 역사 등과 관련된 질문의 답을 처음에 나누어준 질문지 종이에 적고,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대회이다.

5) 탐방로 이벤트 : 지오캐싱(Goecaching)

트레일상에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며 숨어 있는 보물을 찾는 게임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트레일 상에 본인이 생각하는 보물이나 작은 선물을 상자에 넣어 숨겨둔 후에 선물의 존재와 그 지점의 좌표를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 선물을 찾아 가는 게임이다. 선물을 찾은 사람은 그 상자에 자신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선물을 넣어 둔다.

6) 치유프로그램 : 벨기에 “청소년 심성교육”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 청소년을 교화시키고 있다. 소년원 재소자들과

어른들이 함께 걸으면서 세상을 다시 보고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벨기에 청소년의 60%가 사회복귀에 성공했다고 한다.

7) 치유프로그램 : 한국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³⁶⁾

(목적)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을 맞아 하루에 평균 36.1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나가자는 취지를 담은 길 걷기 캠페인이다. 이 밤길걷기 캠페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³⁷⁾ 주최로 미국자살예방재단의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S’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매년 시행, 2022년까지 17회째 개최되었다. 2021년까지 총 31만 여명이 참여하였고 밤길걷기 참가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벤트) 밤길걷기와 관련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그 중 ‘밤길걷기 참가영상 만들기’는 다양한 주제, 이야기, 캠페인 과정, 함께하는 이들, 걸었던 장소 등 밤길걷기 참여하는 영상을 만들어 응모하는 이벤트로 채택될 시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채택된 영상은 다음해 캠페인 홍보영상으로 사용된다. 또 ‘의미있는 참가사진 찍기’ 이벤트는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의 특별하고도 의미있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응모, 추천되면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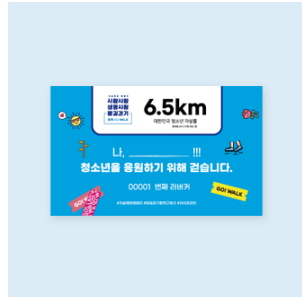
(방법) 밤길걷기 참가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 신청을 받으며 캠페인 티셔츠와 배번호를 착용 후 캠페인 참여를 위해 설치한 러닝 어플을 켜고 일정기간 내에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6.5km 걷기를 진행한다. 이후 대한민국 청소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정문에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인증 사진을 찍어 SNS 게시를 통해 완보를 인증한다.

36)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홈페이지. (2022. 9. 검색). <https://walkingovernight.com/>

37) 한국생명의전화는 대한민국 최초 전화상담 기관으로서 365일 24시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실천하는 국제 NGO임



캠페인 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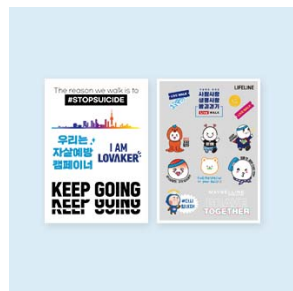
메달과 배번호



완보메달



러버 스카프와 인증 타투 스티커



출처 :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홈페이지. (2022. 10. 검색). <https://walkingovernight.com/apply/souvenir.shtml>

[그림 2-38] 캠페인 기념품

8) 홍보프로그램 : 일본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현장 토크 콘서트” 38)

일반 사단법인 트레일블레이즈 하이킹연구소의 주최로 「규슈 자연보도 미야자키 현 루트의 지금과 미래를 말한다」 토크 이벤트 개최(22.1.18), 「아마토미 트레일」 탄생기념 토크 이벤트 개최(22.1.6) 등의 트레킹 길을 소재로 현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며 길의 탄생과 역사, 문화, 길을 걸어본 소감 등을 함께 공유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동시 전송도 한다.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사진전은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사진전으로 등산객이자 사진작가 트레킹 길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라이브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하고 규슈 자연보도 40주년과 신에츠 트레일 개통 1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하여 장거리 자연보도

38) 트레일블레이즈 하이킹연구소. Works. <https://trailblaze-hi.org/works/>

와 트레일의 관리 운영 단체 인사들을 모아 각 트레일을 연결하고 관리, 운영에 대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기도 한다.



좌측 자료 : 트레일블레이즈 하이킹연구소. <https://trailblaze-hi.org/news/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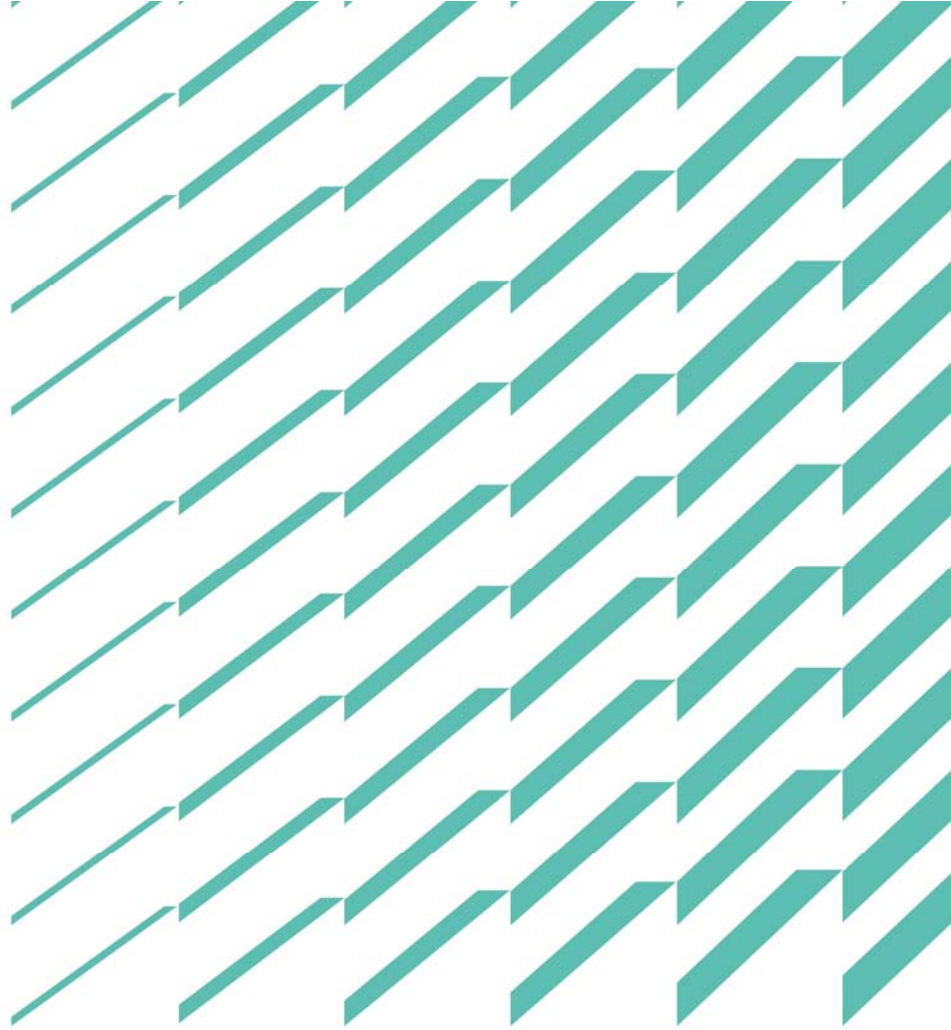
[그림 2-39] 「규슈 자연보호 미야자키현 루트의 지금과 미래를 말한다」 토크 이벤트 개최('22.1.18)

우측상단 자료 : 트레일블레이즈 하이킹연구소. <https://trailblaze-hi.org/news/282/>

[그림 2-40] 「아마토미 트레일」 탄생기념 토크 이벤트 개최('22.1.6)

우측하단 자료 : 트레일블레이즈 하이킹연구소. <https://trailblaze-hi.org/news/26/>

[그림 2-41] 트레일 좌담회 on YouTube Live 2020



제3장

생태문화탐방로 자원현황 및 적지분석

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자원 현황
2. 전라북도 탐방로 현황 및 시사점
3.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지표
4.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적지분석



제3장 생태문화탐방로 자원현황 및 적지분석

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자원 현황

본 장에서는 내실 있는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해 역사, 생태, 문화, 체험 등을 위한 다양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 및 활용하고자 도내에 분포된 자원을 조사하였다.

지도제작 및 다양한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구축된 공간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공간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자료는 데이터 가공 및 코딩 작업을 통해 공간데이터로 변환하였다.

GIS 공간분석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 구축된 공간DB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내 생태관광지, 국립·도립·군립공원, 천연기념물, 수목원, 정원, 정맥 등 ‘자연생태’ 관련 공간DB와 명승, 전통사찰, 문화유적지 등 ‘역사문화’ 관련 공간DB를 구축하였다.

[표 3-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자원 공간DB 구축 현황

구분	자원명	DB 출처
자연생태	생태관광지	JBSEC(전라북도 생태관광)
	국립공원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도립공원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군립공원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천연기념물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수목원	산림청(산림공간정보서비스)
	정원	산림청(산림공간정보서비스)
역사문화	명승	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전통사찰	공공데이터포털
	문화유적지	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가. 자연생태자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에 고려될 주요 자원으로는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생태문화탐방로를 통해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생태³⁹⁾와 자연경관을 느끼며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해 ‘자연생태자원’을 중요자원으로 선정하였고, 생태관광지, 수목원, 정원,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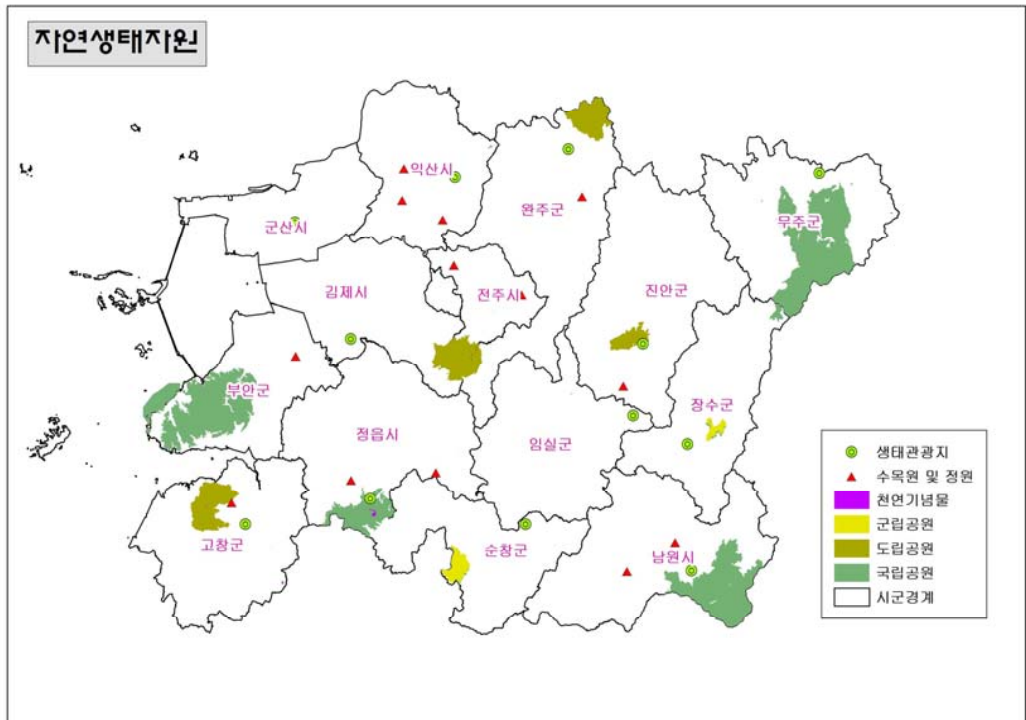
전라북도 내 생태관광지는 12곳이며, 국립공원은 국내 총 22곳 중 4곳(18%)이 운영되고 있고 이 외 도립공원 4곳, 군립공원 2곳이 관리·운영되고 있다.

[표 3-2] 자연생태자원 현황

자연생태자원	개수	내용
생태관광지	12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 익산 서동 농촌테마공원, 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김제 벽골제 생태농원,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진안 지오파크, 장수 뜬봉샘, 순창 장군목, 임실 성수산 자연휴양림, 고창 운곡람사르 습지
수목원	5	공립수목원(완주 대야수목원, 진안 고원수목원) 사립수목원(전주 수목원, 남원 아담원) 학교수목원(원광대학교자연식물원)
정원	8	지방정원(부안 수생정원, 정읍 구절초정원, 남원 함파우지방정원, 전주지방정원) 민간정원(익산 아가페정원, 달빛소리정원, 정읍 들꽃마당, 고창 꽃객 프로젝트)
천연기념물	32	고창(선운사 동백나무 숲, 문수사 단풍나무 숲, 도솔암 장사송, 이팝나무 등) 군산(말도 습곡구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김제(종덕리 왕버들, 행촌리 느티나무 등), 남원(진기리 느티나무 등) 정읍(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무주(반송, 구상화강편마암, 반딧불이 서식지 등) 부안(격포 후박나무군락, 호랑가시나무군락, 미선나무자생지 등) 익산(천호동굴), 임실(가침박달군락, 산개나리군락 등), 장수(의암송, 느티나무 등) 전주(곰솔), 지안(마이산 출사철나무군락, 천황사 전나무, 이팝나무군락 등)
국립공원	4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변산반도,
도립공원	4	마이산, 모악산, 선운산, 대둔산
군립공원	2	강천산, 장안산

출처 : 산림청(산림공간정보서비스),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3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함



[그림 3-1] 자연생태자원 현황

나. 역사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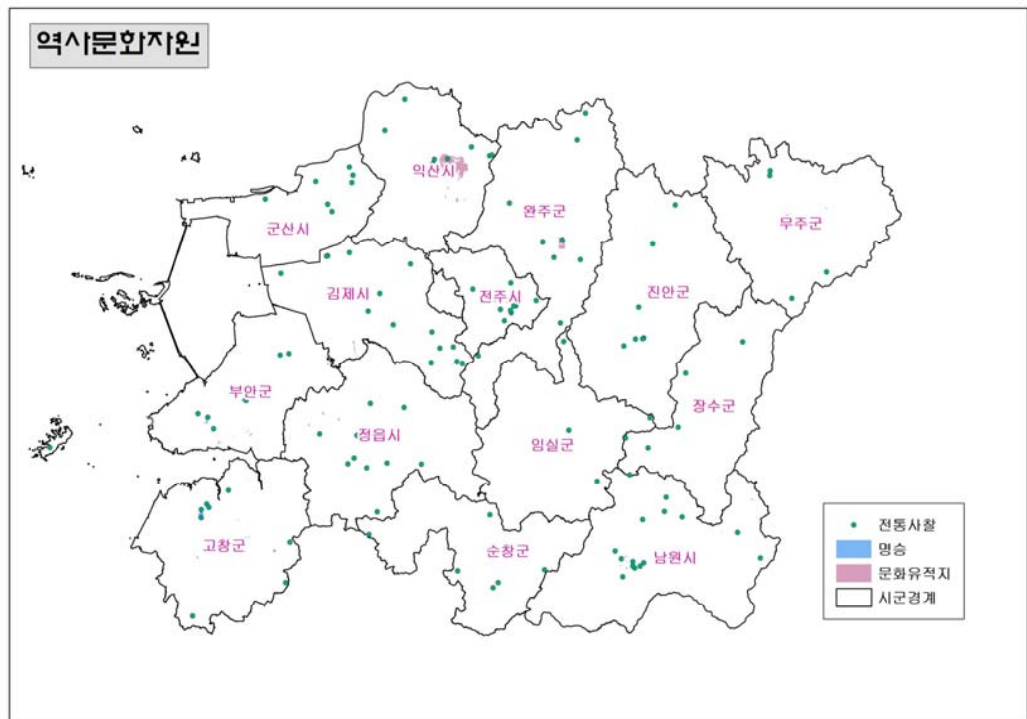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또는 마을의 변천과 연혁, 흥망의 과정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의 과정 등을 느낄 수 있는 자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명승⁴⁰⁾, 전통사찰, 문화유적지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구득 가능한 GIS 공간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유적지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보, 보물, 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를 포함하였다.

40)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등의 기념물 중에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말함

역사문화자원	개수	내용
명승	10	군산(선유도 망주봉 일원), 남원(광한루원), 완주(위봉폭포 일원), 진안(마이산)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고창(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부안(유금바위 일원, 직소폭포 일원, 채석강·적벽강 일원),
전통사찰	118	전주(남고사, 동고사, 불정사, 약수암 등), 익산(문수사, 백운사, 사지암, 석불사, 등) 군산(보천사, 불주사, 상주사, 성흥사 등), 김제(귀신사, 금산사, 망해사, 성모암 등) 남원(관음사, 귀정사, 극락암, 대복사, 덕음암 등), 완주(대원사, 봉서사, 송광사 등) 무주(백련사, 복고사, 안국사, 원통사 등), 진안(보흥사, 옥천암, 은수사, 천황사 등) 장수(미륵암, 성관사, 신평사, 영월암 등), 임실(상이암, 신흥사, 죽림암, 해월암 등) 순창(월명암, 강천사, 구암사, 대모암 등), 고창(도솔암, 문수사, 상원사, 선운사 등) 부안(개암사, 내소사, 내원암, 성황사, 실상사, 용화사, 월명암 등)
문화유적지	114	전주(경기전, 남고산성, 전동성당, 풍남문 등), 군산(발산리 석등, 오층석탑 등) 익산(미륵사지, 내비위성당 등), 김제(금산사, 벽골제 등), 남원(광한루, 남원읍성 등) 완주(송광사, 위봉산성 등), 무주(적상산성, 한푸루 등), 진안(수선루, 청자요지 등) 장수(장수향교, 고분군 등), 임실(진구사지 석등), 순창(석장승), 고창(고창읍성, 지석묘군 등), 부안(개암사 대웅전, 백산성 등)

출처 : 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사이트(www.data.go.kr)



[그림 3-2] 역사문화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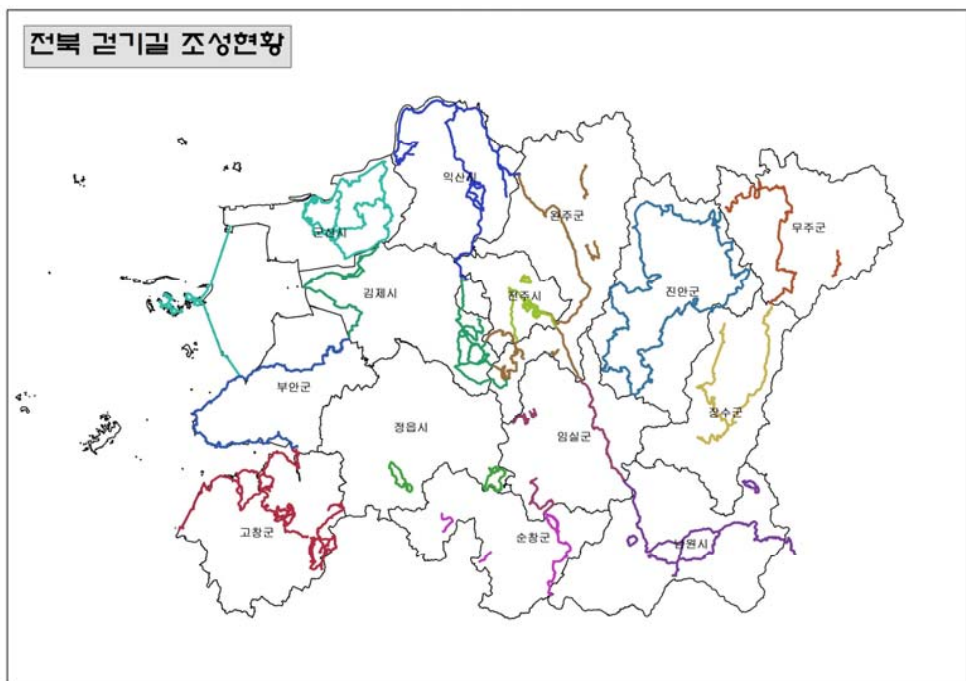
2. 전라북도 탐방로 현황 및 시사점

가. 전라북도 탐방로 현황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 탐방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리(www.durunubi.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걷기 여행길 GPX파일을 shp파일로 변환하여 GIS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전북 내 조성된 길 공간데이터를 재검토하여 노선별 중복구간을 제거 후 시·군별로 길 조성 현황을 집계하였다.

집계 결과 전라북도 내 조성된 걷기 길의 총 길이는 약 1,544.0km이며, 군산시가 203.0km로 가장 길이가 길고, 정읍시가 40.5km로 가장 길이가 적다.⁴¹⁾ 걷기길 코스는 고창군이 19개 코스로 가장 많으며, 임실군이 4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⁴²⁾.

[그림 3-3] 전라북도 걷기길 조성 현황



41) 전라북도 내 걷기길 조성현황 결과는 GIS공간데이터 기반으로 산출하여 실제 길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2) 두루누리(www.durunubi.kr), 걷기 여행길 자료 참고

[표 3-4] 시군별 걷기 길 조성 현황

(단위: 개, km)

시군	코스	길이	비고
전라북도	145	1544.0	
전주시	8	61.0	건지산길, 성사대문안옛길, 이순신백의종군길2, 3코스, 한옥마을 둘레길, 천년전주마실길, 도란도란시나브로길 등
군산시	14	203.0	구불길 1~8코스, 서해랑길 53, 54코스 등
익산시	9	138.0	미륵산둘레길, 아름다운순례길 2~5코스, 웅포곰개나루길, 함라산둘레길, 이순신백의종군길 1코스, 익산둘레무왕길 등
정읍시	8	40.5	대장금마실길 1~5코스, 정읍사오솔길 1~3코스 등
남원시	12	110.4	교룡산둘레길, 덕음산솔바람건강길 1~2코스, 흥부대박길 이순신백의종군길 4~6코스, 지리산둘레길 1~3코스, 등
김제시	11	130.5	금구명품길 1~2코스, 모악산마실길 1~2코스, 새만금바람길, 새만금광역탐방로, 서해랑길 51~52코스, 아름다운순례길 6~8코스 등
완주군	12	129.8	고창마실길, 경천애인장검다리길, 구이저수지둘레길, 운문골마실길, 모악산마실길, 완주상편백숲길, 아름다운순례길 1, 9코스 등
진안군	12	199.5	진안고원길 1~14코스, 진안용담담 감동벼룻길 등
무주군	6	77.9	구천동어사길, 예향천리금강변마실길, 예향천리백두대간마실길 1~4코스 등
장수군	9	83.8	장수 뜬봉샘금강발자원길, 방화동생태길, 장수송마실길, 장안산마실길, , 백두대간마실길 1~3코스 등
임실군	4	58.4	섬진강길, 옥정호마실길, 옥정호물안개길 등
순창군	6	45.2	강천산길, 선비의길, 예향천리마실길 1~3코스, 장군목길 등
고창군	19	177.8	고창1000리길 1~4코스, 서해랑길 41~44코스, 예향천리마실길 1~7코스, 운곡습지생태길 1~4코스 등
부안군	15	88.2	변산마실길 1~8코스, 서해랑길 45~50코스 등

출처 : 두루누리(www.durunubi.kr), 걷기 여행길 현황자료 재인용

이 중 서해랑길은 군산-김제-부안-고창으로 이어져 서해의 아름다운 전경과 일

물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진안고원길은 총 길이 199.5km⁴³⁾(15개 구간)의 걷기 여행길로 백패킹과 라이딩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코스이다. 이 밖에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걷기 길은 아름다운순례길, 새만금바람길, 이순신백의종군길, 지리산둘레길, 예향천리마실길, 섬진강길, 구불길 등이 조성되었다.

나. 시사점

전라북도 내 조성된 걷기 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코스별로 일부 구간들이 중복되어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노선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새만금 광역탐방로와 서해랑길 일부 구간이 중복되어 있었으며, 김제시는 모악산 마실길과 아름다운 순례길, 부안군은 변산 마실길과 서해랑길, 익산시는 옹포 곰개나루길과 함라산둘레길, 순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과 장군목길, 이순신 백의종군길, 완주군은 모악산 마실길과 아름다운 순례길, 장수군은 백두대간 마실길과 장수 장안마실길, 방화동생태길 일부 구간들이 중복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외부 홍보에도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길의 명칭을 일원화하거나 기 조성된 길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자체별로 국비 확보를 통하여 조성된 다양한 걷기 길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절되고 연결성이 부족하였다. 향후 전라북도의 다양한 생태자원과 생태관광지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단절구간을 보완하고 연결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읍-순창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권역의 걷기길 조성이 취약하였다. 동측은 무주-진안-장수를 이어지는 동부권 지역은 산과 계곡, 정맥 등으로 이어지는 진안고원길, 백두대간 마실길, 방화동 생태길 등 산악길이 잘 조성되어 있었으며 군산-김제-부안-고창으로 이어지는 서부 권역은 서해랑길, 구불길, 변산 마실길, 고창 1000리길 등 해안길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반면 정읍과 순창지역은 조성된 걷기 길의 길이가 40.5km, 45.2km로 14개 시군중 길이가 가장 작았다.

43) 전북일보 등 보도자료에는 210.2km로 알려져 있으나, 본 보고서의 결과 값은 GIS 공간데이터 산출 결과 길이로 실제 길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3.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지표

가. 개요

1) 지표선정 목적과 고려사항

■ 생태문화탐방로 지표선정 목적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을 구상하고 적정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탐방 자원들과 수요자 접근성 등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적지선정을 위한 과학적,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문화탐방로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과학적·객관적·공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노선선정 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 생태문화탐방로 지표선정 고려사항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지표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태문화탐방로를 걸으면서 자연환경이 주는 상쾌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하며, 탐방로 곳곳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자원들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탐방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생태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의 유무를 노선선정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생태문화탐방로의 노선선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접근성에 관한 부분이다.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탐방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걷다가 쉬거나 숙박하는 등 사람들의 탐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탐방로의 진입부 또는 중간 거점에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고려하도록 노선이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탐방객의 접근성을 반영하는 지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기존에 유사 연구에서 활용했었던 노선선정 지표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탐방로 적지분석에 활용할 지표들을 선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2015)」, 전라북도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2008)」, 「생태·문화탐방로 지역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2008)」를 검토하였다.

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2015)⁴⁴⁾

환경부는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07.11)」에 따라 2008년부터 퇴계 오솔길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부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현재 약 88개소에 대한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실제 생태문화탐방로를 구축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2008)」를 통해 계획수립과 노선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5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2008)」(이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개념정의, 탐방로 설정 및 조성 방법, 탐방로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생태탐방 자원 및 노선선정 기준

상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태탐방자원을 크게 탐방자원과 연결자원 및 보조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3-4) 참조). 또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표 3-5]와 같은 탐방 잠재가치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자원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조성 가능지역을 제시하였다. 노선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크게 ① 자연자원 및 경관자원 인접성, ② 접근성, ③ 자연환경 및 탐방 기회성, ④ 환경훼손 최소화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4) 환경부(2015),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

[표 3-5]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서 제시된 생태탐방자원

구분		생태탐방 자원
탐방자원	자연자원	•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 철새도래지, 수목원 등
	인문자원	• 역사, 문화(천연기념물, 세계문화유산 등) 등
연결자원	자연자원	• 하천
	역사자원	• 옛길
보조자원 (탐방자원 연결시 보조적으로 체험가능한 자원)		• 생태공원, 전통사찰, 유적지 등

[표 3-6]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서 제시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지역 분석 기준표

분류		평가기준
자연자원 및 경관자원 인접성	• 생태자연도 등급 • 산림에서의 거리 • 내륙수에서의 거리 • 하천(국가, 지방1급, 지방2급)에서의 거리 • 호소 및 습지 • 식물(임상도) • 동물발견지점(포유류, 조류, 곤충, 양서류, 파충류)	점수(0,1,2,3)
접근성	• 고속도로 • 일반국도 • 지방도로 외 • 철도역	점수(0,1,2,3)
자연환경 및 탐방 기회성	• 산림유전자보호림에서의 거리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서의 거리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거리 • 문화재 보호지역에서의 거리 • 자연공원에서의 거리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거리 • 생태계변화관찰지역에서의 거리 • 습지보호지역	점수(0,1,2,3)
환경훼손 최소화	법적보호지역(자연공원, 산림유전자보호림,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상기 보호지역 해당시 제외

나)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2008)⁴⁵⁾

전북연구원에서는 환경부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추진에 부응하여 지역의 고유한 생태와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광역생태탐방로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우수한 탐방자원에 대한 DB구축, 사례조사, 현지조사, 자문을 통해 생태관광 노선선정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북도 광역생태탐방로 노선(안)을 선정하였다.

■ 노선선정 지표

상기 연구에서는 노선선정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생태탐방자원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탐방자원은 생태탐방 대상이 되는 자원으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연결자원은 선형 자원으로 탐방로 노선 선정 시 개별 자원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역사문화관광, 자연생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관광의 3가지 세부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보조자원으로 역사문화관광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National trust 문화자원, 문화유적지, 전라북도 F-tour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3-7] 전라북도 생태탐방자원 평가지표(2008)

평가항목(지표)		자원명
탐방자원	자연생태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National trust 자연자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 천연보호구역 • 철새도래지 • 습지보호지역 • 수목원
	역사문화관광	• 천연기념물 • 세계문화유산 • 명승지
연결자원	역사문화관광	• 옛길(삼남대로)
	자연생태	• 국가1급 하천 • 지방1·2급 하천 • 자연체험가능지역
	자연생태, 역사문화관광	• 아름다운산책로

45) 김보국 외(2008),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

평가항목(지표)		자원명
보조자원	역사문화관광	• 전통사찰 • Natioanl trust 문화자원 • 문화유적지 • F-tour

다) 생태·문화탐방로 지역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2008)⁴⁶⁾

전북연구원은 「국도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연구(2008)」의 후속과제로 부안군을 대상으로 지역단위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해 상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역에 대해 수행했었던 이전 연구에서 한 단계 보완하여 부안군 지역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노선선정 방법을 제시하여 노선안을 제시하였다.

■ 노선선정 지표

기존 평가지표와 새롭게 평가지표에 반영한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항목을 “탐방자원”, “우수경관지역”, “생태우수지역”, “완만한 경사지역”, “생태민감지역 보호”, “주변녹지 및 유사시설”, “기존탐방가능노선”, “다른교통수단노선”, “대중교통시설”, “거점시설”로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3-8] 부안군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평가지표(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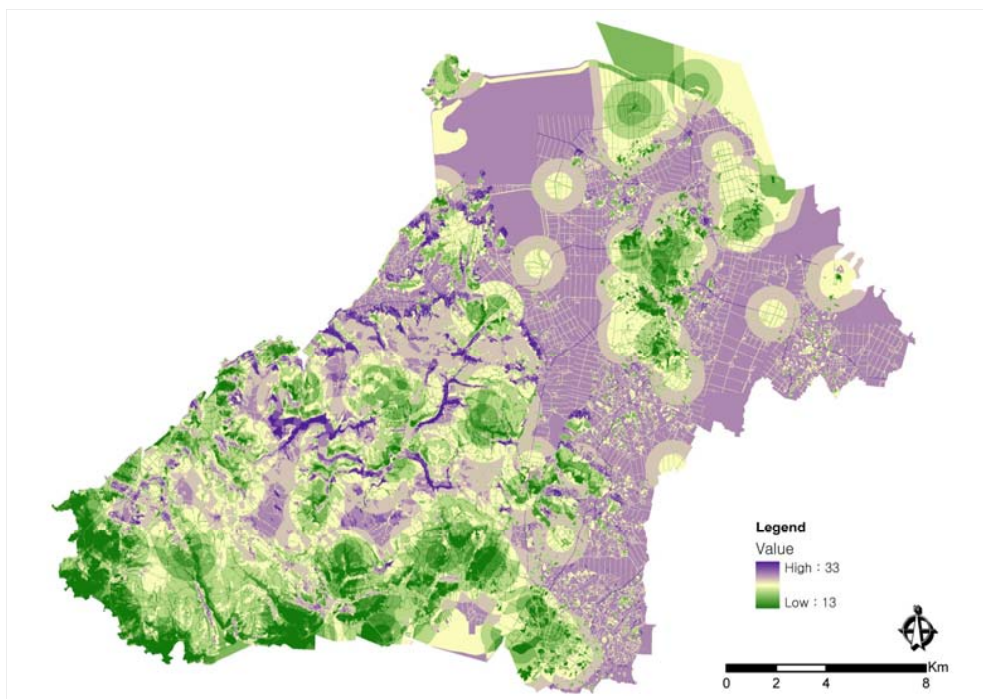
평가항목(지표)	자료명	자료출처
탐방자원	• 주요 문화재 • 유적지 • 전통사찰 • 관광지	문헌, 인터넷 조사
우수경관지역	• 변산8경 • 지형경관자료	- 전국자연환경조사(환경부)
생태우수지역	• 생태자연도(1,2,3등급)	생태자연도
생태민감지역 보호	•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주변녹지 및 유사시설 네트워크	• 지적도 상 임야와 공원 •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산로	지적도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	• 버스터미널 • 주차장	

46) 김보국 외(2008), 생태·문화탐방로 지역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

평가항목(지표)	자료명	자료출처
기존활용 가능 노선 및 다른 교통수단 노선	•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다른교통수단 노선	국도, 지방도
거점지역과의 연결성	•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 정부지원 테마마을	인터넷 조사

■ 탐방로 적합지역 평가

상기 연구에서는 노선선정 계획요소(평가지표)별 평가결과(점수)를 중첩 분석하여 부안군의 생태·문화탐방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13~33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탐방로 조성 적합지역은 해안가와 부안을 주변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4] 부안군 생태·문화탐방로 노선 적합성(Travel Cost)분석도 결과

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적지분석을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에 전북연구원에서 2008년에 수행했던 연구⁴⁷⁾를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항목은 ① 기존탐방로, ② 보전자원, ③ 탐방자원, ④ 연결자원, ⑤ 기반시설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평가항목별로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공간적인 적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평가지표별로 공간자료(GIS 자료)로 구축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공간자료로 구축되어 있고, 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1) 기존 탐방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과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구축된 기존 탐방로 노선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생태탐방로 노선도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에 구축된 탐방로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하나로 고려하였다. 선정된 기존 탐방로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탐방로,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전라북도 천리길과 아름다운순례길, 부안군에서 조성한 부안 생태문화탐방로이다.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⁴⁸⁾ 사이트로부터 구득하고, 공간분석을 위해 SHP자료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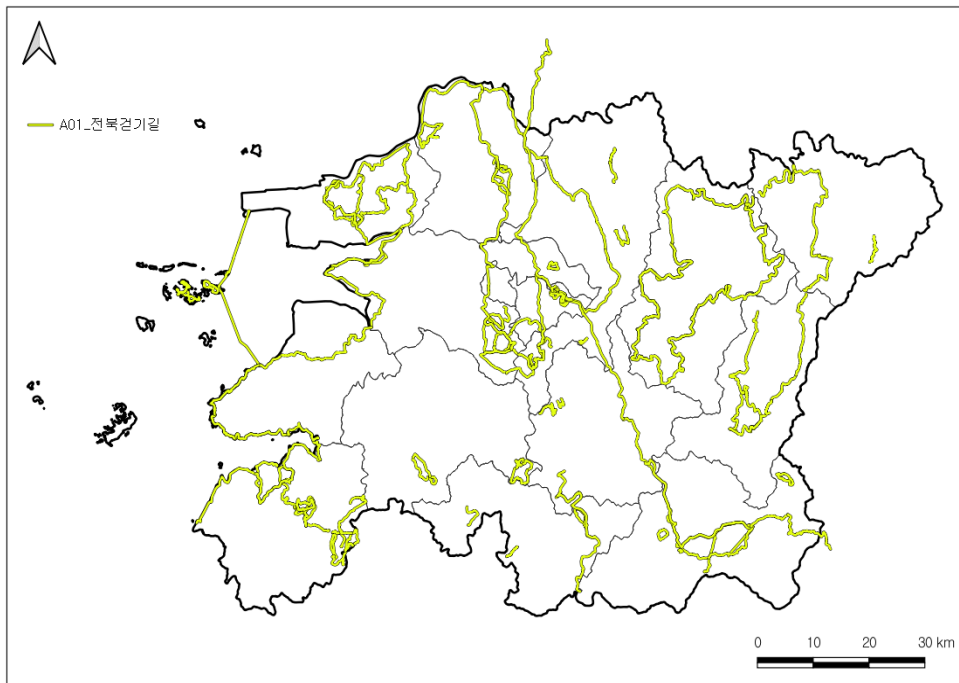
대표적인 탐방로는 군산-김제-부안-고창으로 이어지는 ‘서해랑길’과 익산-김제-전주-완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순례길’, 진안군의 ‘진안고원길’, 익산-전주-완주-임실을 통과하는 이‘이순신백의중군길’, 무주-장수로 이어지는 ‘백두대간마실길’, 임실-순창으로 이어지는 ‘섬진강길’ 등이 있다.

47) 김보국 외(2008),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

48) 두루누리 홈페이지(2022), <https://www.durunubi.kr/>

[표 3-9] 기존탐방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기관/ 자료출처	자료형태 (자료변환)
기존 탐방로	기존 탐방로	국가생태탐방로	A01_전북건기길	두루누리 (한국관광공사)	GPX(KML) → SHP(선)
		전라북도 천리길			
		아름다운순례길			
		부안 생태문화탐방로			



[그림 3-5] 기존 탐방로 현황

2) 보전자원

보전자원은 자연·생태적 가치가 주변 지역보다 뛰어난 곳으로 탐방객들에게 자연을 생각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하고, 때론 영감을 얻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은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백두대간의 핵심지역과 같이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수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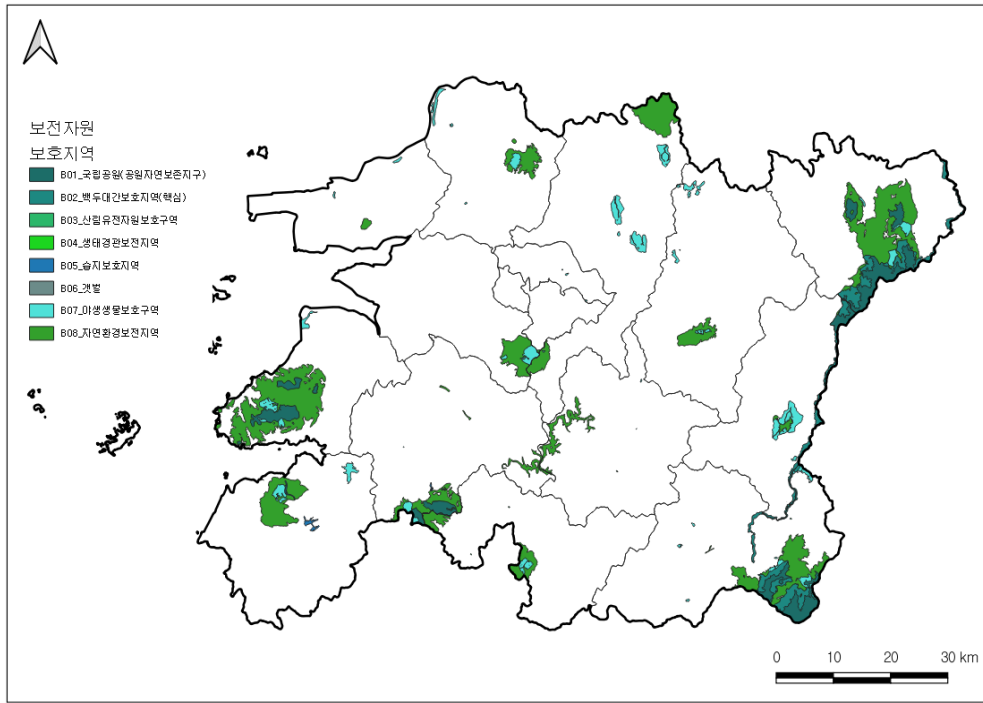
이 대표적이다. 독수리, 황새, 원앙새 등의 조류, 고라니, 삥, 담비 등과 같은 포유류의 서식공간, 습지보호지역 등도 보전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보전자원은 즉 자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탐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탐방객의 접근으로 인해 훼손되고, 자연적 가치가 하락하여 결국 탐방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전자원은 탐방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함께 보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전자원을 대변하는 평가항목으로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호지역 중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공원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내륙습지), 「습지보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_갯벌(연안습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평가지표로 산정하였다.

[표 3-10] 보전자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기관/ 자료출처	자료형태 (자료변환)
보전 자원	보호 지역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	B01_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국립공원공단	SHP(면)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B02_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	한국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KDPA)	SHP(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B03_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SHP(면)
		습지보호지역	B04_습지보호지역		SHP(면)
		습지보호지역_갯벌	B05_갯벌		SHP(면)
		야생생물보호구역	B06_야생생물보호구역		SHP(면)
		자연환경보전지역	B07_자연환경보전지역		SHP(면)



[그림 3-6] 보전자원 현황

3) 탐방자원

탐방자원은 자연생태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생태적 자원은 우선 공원지역을 들 수 있다. 공원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유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국민의 여가와 휴양을 위해 지정하고 시설을 조성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학술 및 관상적인 가치가 높아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천연기념물⁴⁹⁾,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명승지·유적지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에 지정되는 경관보호구역, 전라북도가 지정한 12곳의 생태관광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수목원, 정원 등을 들 수 있다.

4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5966

역사문화 자원은 명승, 전통사찰, 문화유적지를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명승(名勝)은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하나로 경치가 뛰어난 지역에 대해 지정한 곳이다. 전통사찰은 전국의 불교사찰 중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찰을 해당 사찰의 신청에 의해 지정 등록한 것으로, 전통불교에 대한 미래의 문화재적 가치를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⁵⁰⁾ 문화유적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등이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에 지정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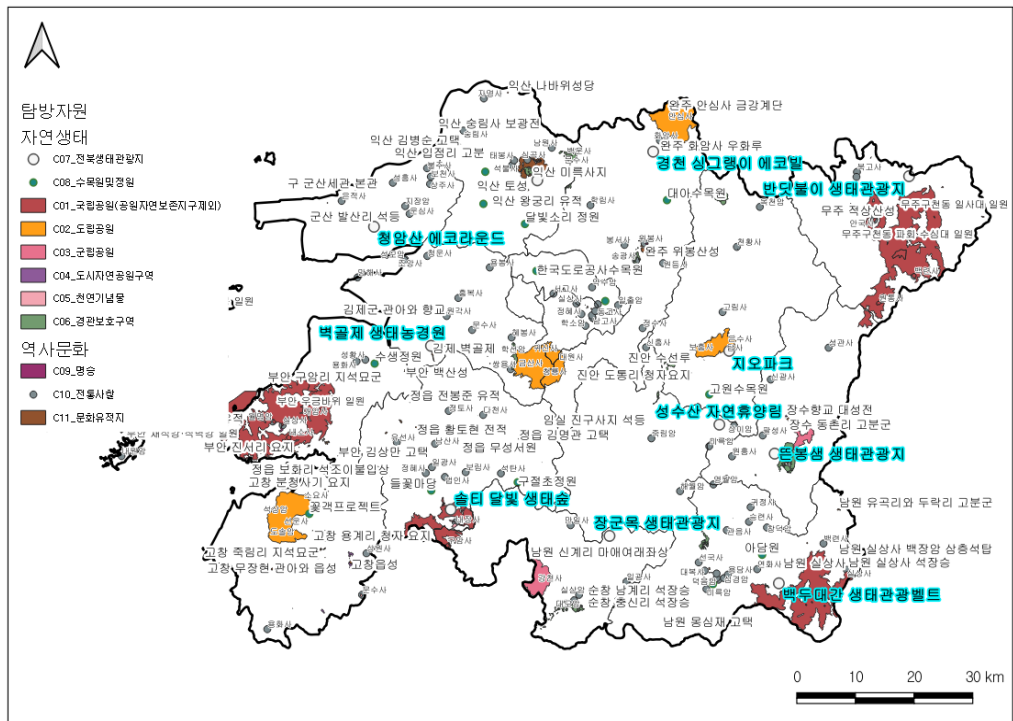
[표 3-11] 탐방자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기관/ 자료출처	자료형태 (자료변환)
탐방 자원	자연 생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제외)	C01_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제외)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SHP(면)
		도립공원	C02_도립공원	환경부 한국보호지역통합 관리시스템 (KDPA)	SHP(면)
		군립공원	C03_군립공원		SHP(면)
		도시자연공원구역	C04_도시자연공원구역		SHP(면)
		천연기념물	C05_천연기념물		SHP(면)
		경관보호구역	C06_경관보호구역		SHP(면)
		생태관광지	C07_전북생태관광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 센터	주소 → SHP(점)
		수목원, 정원	C08_수목원및정원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SHP(점)

50) e-나라지표(2022),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29&board_cd=IN DX_001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기관/ 자료출처	자료형태 (자료변환)
역사문화	명승		C09_명승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	CSV → SHP(면)
	전통사찰		C10_전통사찰	전라북도 공공데이터포털	CSV → SHP(점)
	문화유적지		C11_문화유적지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	CSV → SHP(면)



[그림 3-기] 탐방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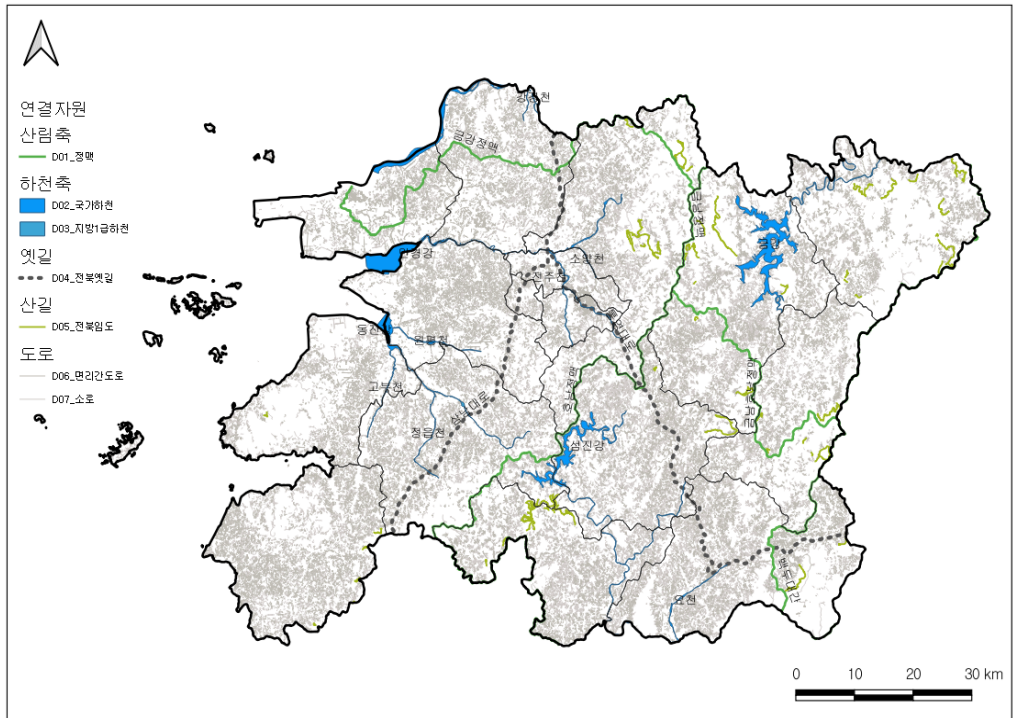
4) 연결자원

연결자원은 선형적인 자원으로, 각각의 개별 자원들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연계성이 없이 탐방로가 구축될 경우 자원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효과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고, 자칫 복잡하고 사람들이 걷기에 불편한 노선이 설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축과 하천축, 옛길, 산길, 도로 등 5가지 항목을 연결자원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하였다. 첫째, 산림축은 정맥을 선정하였다. 하천축으로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을 선정하였다. 옛길로는 삼남대로와 통영대로를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정민 교수와 함께 구글영상 등의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위성 및 항공영상과 옛 문헌 등을 참고하여 직접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산길로는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도정보를 활용하였다. 도로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면리간도로와 소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12] 연결자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기관/ 자료출처	자료형태 (자료변환)
연결 자원	산림축	정맥	D01_정맥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SHP(선)
	하천축	국가하천	D02_국가하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	SHP(면)
		지방1급하천	D03_지방1급하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	SHP(면)
	옛길	삼남대로, 통영대로	D04_전북옛길	직접구축 (전북대 박정민 교수)	SHP(선)
	산길	임도	D05_전북임도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SHP(선)
	도로	면리간도로, 소로(농로포함)	D06_면리간도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	SHP(선)
			D07_소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포털	SHP(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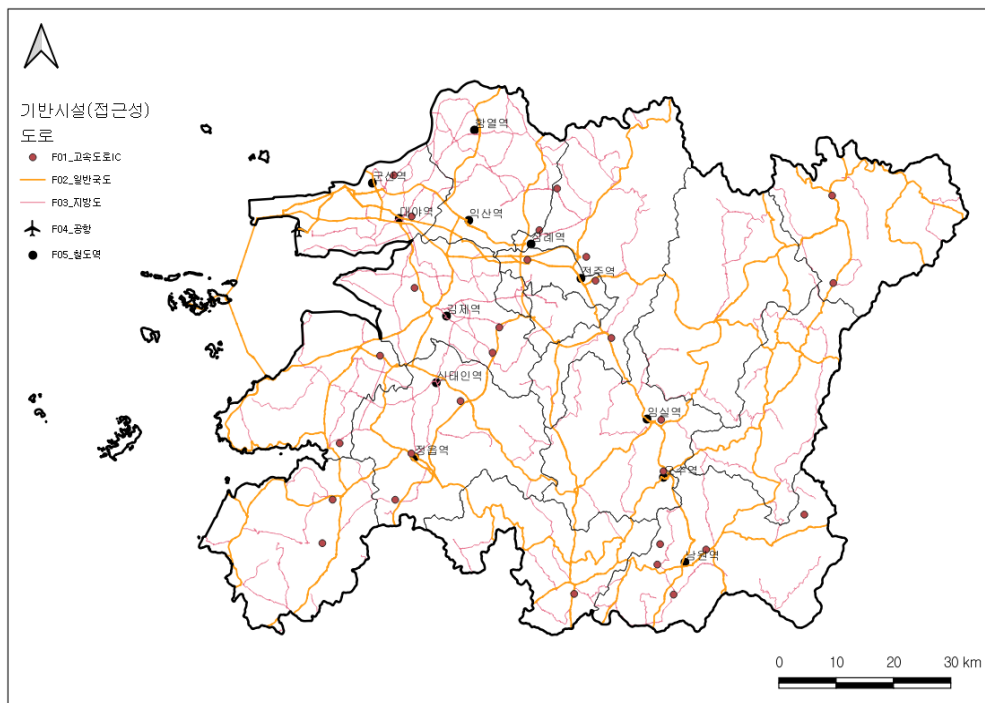
[그림 3-8] 연결자원 현황

5)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탐방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도로, 공항, 철도 등을 반영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지표로 도로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국도와 지방도 노선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타 지역에서 방문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철도역도 접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지표로 포함하였다.

[표 3-13] 기반시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기관/ 자료출처	자료형태 (자료변환)
기반 시설 (접근성)	도로	고속도로 IC	F01_고속도로IC	한국도로공사	EXCEL SHP(점)
		국도, 지방도	F02_일반국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SHP(선)
			F03_지방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SHP(선)
	고속도로 IC		F04_공항	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포털	CSV SHP(면)
	국도, 지방도		F05_철도역	국가철도공단 공공데이터포털	EXCEL SHP(점)



[그림 3-9] 기반시설 현황

4.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적지분석

가. 적지분석 방법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의 조성 가능지역을 공간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기반의 공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활용된 공간분석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GIS 분석 프로그램인 QGIS 3.10.11⁵¹⁾이다.

적지분석 과정은 1) 평가지표별 평가와 2) 종합평가 순으로 수행하였다.

■ 평가지표별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개별 평가지표별로 자원이 가진 가치를 보전가치와 탐방가치의 2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표 3-10 참고). 이는 평가 대상지표들이 가진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해야 하는 측면과 이용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원의 희소성과 특이성 등의 요소로 인해 타 자원에 비해 생태관광적 측면에서 이용가치도 동시에 보유한다. 마찬가지로 삼남대로, 통영대로와 같은 옛길의 경우 탐방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보전가치는 낮은 것이다.

또한 대상 자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탐방자원의 보전가치와 탐방가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원으로부터 탐방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범위라고 할 수 있는 5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⁵²⁾

[표 3-14]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방법

구분	대상자원	영향범위(500m)
보전가치	해당 자원이 가진 보전가치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해당 자원이 가진 보전가치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탐방가치	해당 자원이 가진 탐방가치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해당 자원이 가진 탐방가치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51) QGIS 3.10.11 -A Coruña, <https://qgis.org/en/site/>

52) 환경부가 제시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지역 분석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원에 대해 지표별 평가점수로 400~600m 거리에 대해서는 1점, 600m 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고 있음 (환경부, 2015,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

자원이 가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평가 대상 자원이 가진 가치를 1~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표 3-14) 참고).

[표 3-15] 자원 가치별 평가 점수 부여

자원 가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점수	1	2	3	4	5

다음으로 대상 자원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방법은 전 단계에서 구해진 평가지표별 탐방가치에서 보전가치를 뺀 값을 통해 구하였다(아래 식 참고).

$$\text{평가지표별 점수}(IS) = \text{평가지표별 탐방가치 점수}(VS) - \text{평가지표별 보전가치 점수}(CS)$$

■ 종합 평가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구한 평가지표별 점수를 모두 더하여 최종 점수를 선정하였다(아래 식 참고).

$$\begin{aligned} \text{종합 점수}(TS) = & \text{기존 탐방로 지표별 점수 합계} + \text{보전자원 지표별 점수 합계} + \\ & \text{탐방자원 지표별 점수 합계} + \text{연결자원 지표별 점수 합계} + \\ & \text{기반시설 지표별 점수 합계} \end{aligned}$$

나.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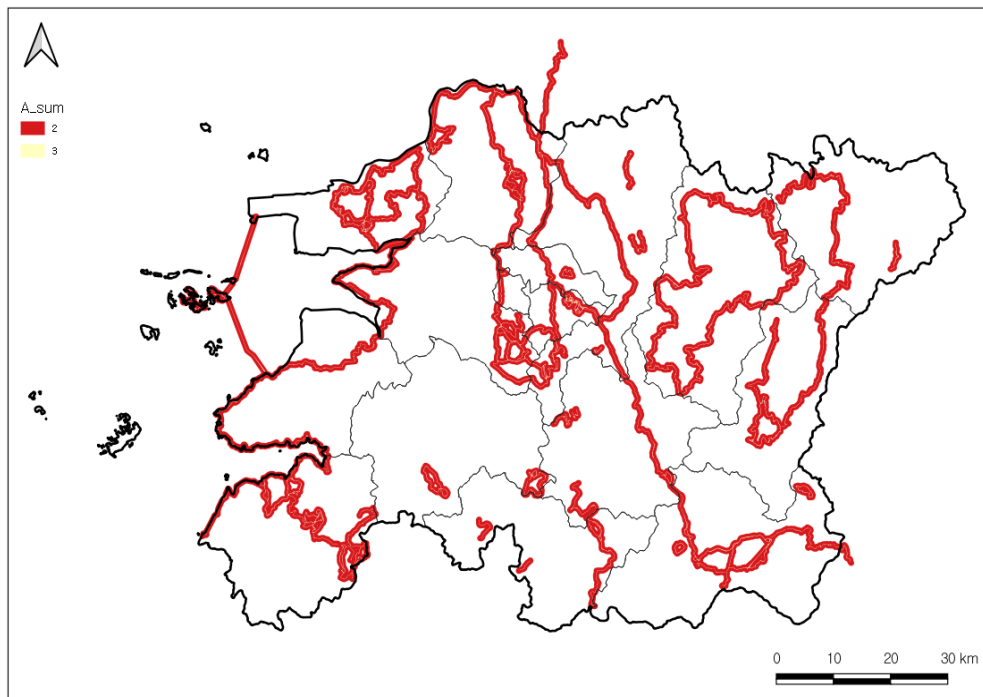
1) 지표별 평가

가) 기존 탐방로

기존 탐방로부문 평가지표인 전북견기길에 대한 대상자원 및 영향범위에 대한 각각의 보전가치 점수와 탐방가치 점수,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 결과는 표 [표 3-15] 및 [그림 3-9]와 같다. 평가 결과 점수 값은 2점과 3점인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표 3-16] 기존 탐방로 부문 평가지표 점수산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대상자원			영향범위(500m 이내)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기존 탐방로	기존 탐방로	A01_전북견기길	1	4	3	1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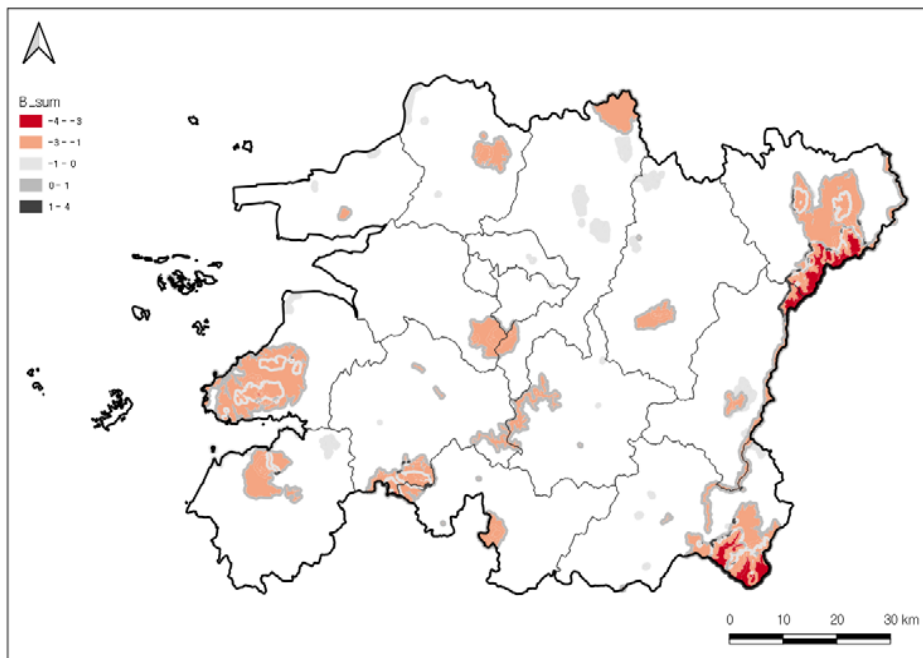
[그림 3-10] 기존 탐방로 부문 평가 점수

나) 보전자원

보전자원 부문의 각 평가지표별 대상자원과 영향범위에 대한 보전가치 점수와 탐방가치 점수 및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 결과는 [표 3-16] 및 [그림 3-10]과 같다. 평가 결과 보전자원 부문의 점수 합계는 -4~4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보전자원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분류	평가 항목	평가지표	대상자원			영향범위(500m 이내)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보전 자원	보호 지역	B01_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5	4	-1	4	5	1
		B02_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	5	4	-1	4	5	1
		B03_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	3	-1	3	4	1
		B04_습지보호지역	5	4	-1	4	5	1
		B05_갯벌	4	4	0	3	5	2
		B06_야생생물보호구역	4	3	-1	3	4	1
		B07_자연환경보전지역	4	3	-1	3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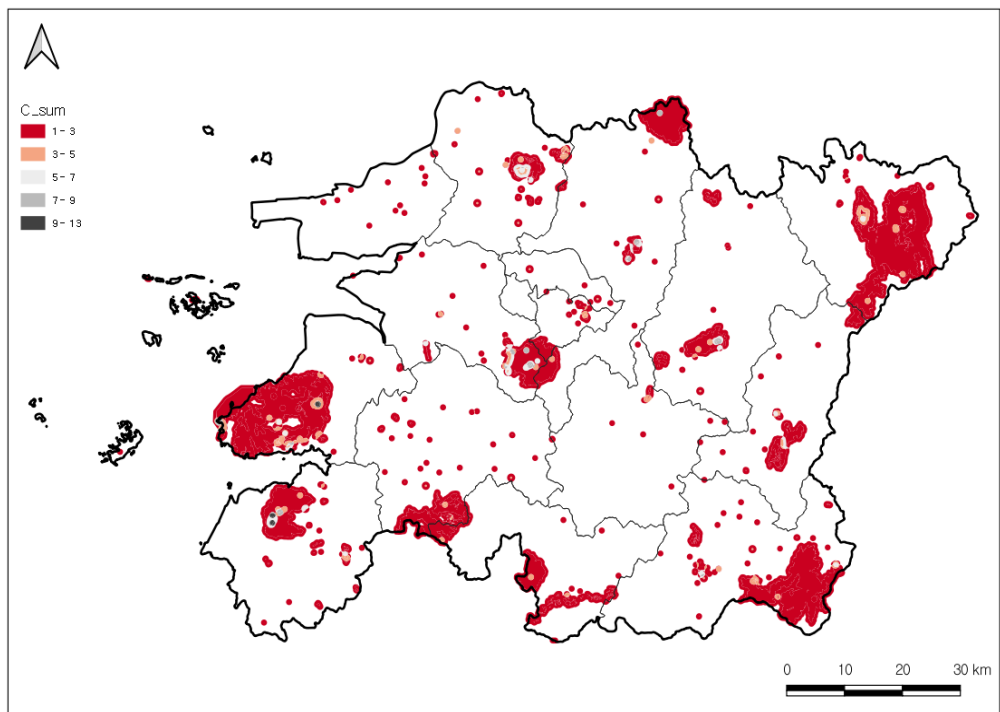
[그림 3-11] 보전자원 부문 평가 점수

다) 탐방자원

탐방자원 부문의 각 평가지표별 대상자원과 영향범위에 대한 보전가치 점수와 탐방가치 점수 및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 결과는 표 [표 3-17] 및 [그림 3-11]과 같다. 평가 결과 탐방자원 부문의 점수 합계는 1~13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탐방자원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분류	평가 항목	평가지표	대상자원			영향범위(500m 이내)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탐방 자원	자연 생태	C01_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3	5	2	2	4	2
		C02_도립공원	2	5	3	1	4	3
		C03_군립공원	2	5	3	1	4	3
		C04_도시자연공원 구역	2	4	2	1	3	2
		C05_천연기념물	3	4	1	2	3	1
		C06_경관보호구역	2	4	2	1	4	3
		C07_전북생태관광 지	1	5	4	1	4	3
		C08_수목원및정원	1	5	4	1	4	3
	역사 문화	C09_명승	2	5	3	1	4	3
		C10_전통사찰	1	4	3	1	3	2
		C11_문화유적지	2	5	3	1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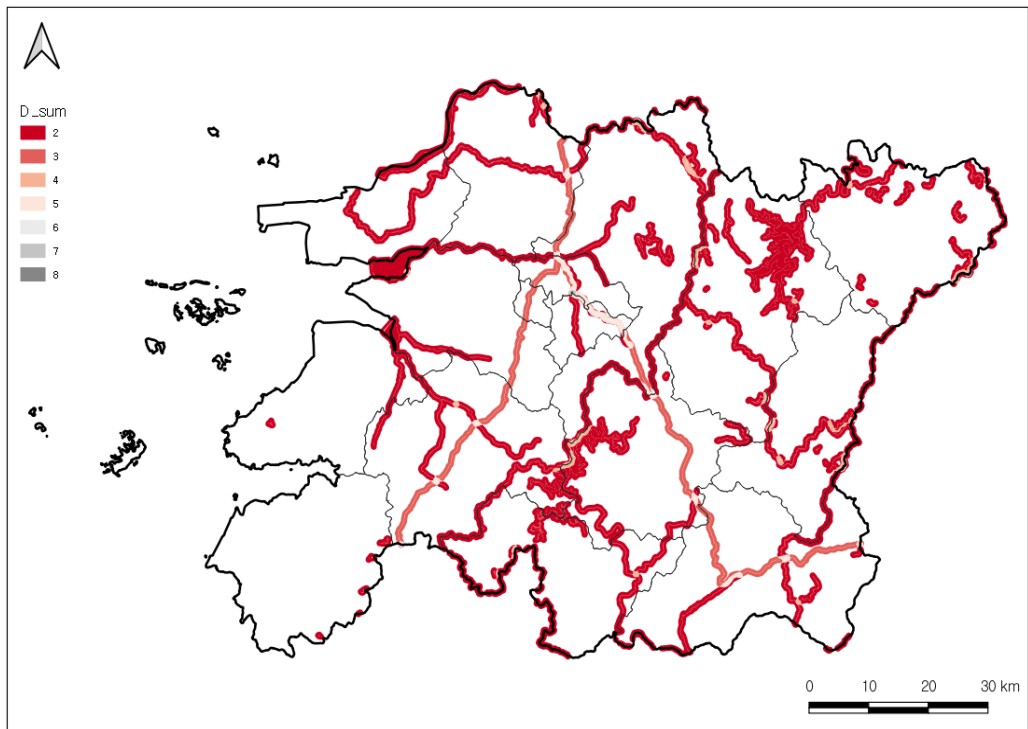
[그림 3-12] 탐방자원 부문 평가 점수

라) 연결자원

연결자원 부문의 각 평가지표별 대상자원과 영향범위에 대한 보전가치 점수와 탐방가치 점수 및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 결과는 [표 3-18] 및 [그림 3-12]와 같다. 연결자원 중에서 먼리간 도로와 소로는 자원의 수가 많아 노선 선정을 위한 용도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상기 두 항목은 평가지표별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평가 결과 연결자원 부문의 점수 합계는 2~8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 연결자원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대상자원			영향범위(500m 이내)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연결 자원	산림축	D01_정맥	3	5	2	2	4	2
	하천축	D02_국가하천	3	5	2	2	4	2
		D03_지방·급하천	2	4	2	1	3	2
	옛길	D04_전북옛길	1	5	4	1	4	3
	산길	D05_전북임도	1	4	3	1	3	2
	도로	D06_면라간도로	세부 탐방로 노선 선정시 활용					
		D07_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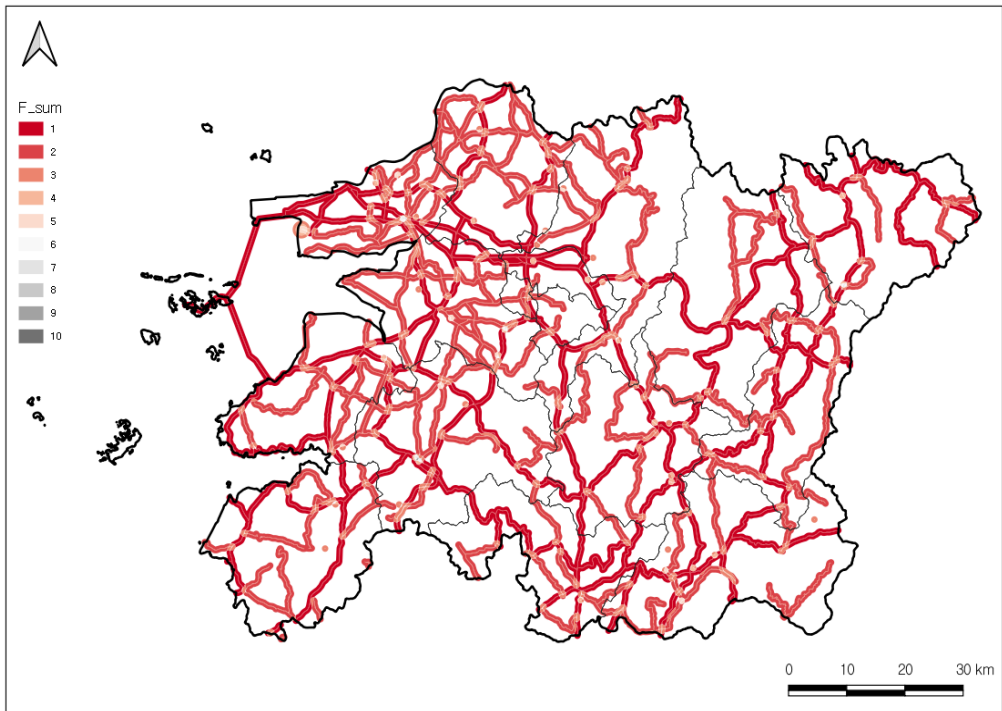
[그림 3-13] 연결자원 부문 평가 점수

마)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문의 각 평가지표별 대상자원과 영향범위에 대한 보전가치 점수와 탐방가치 점수 및 평가지표별 점수 산정 결과는 [표 3-19] 및 [그림 3-13]과 같다. 평가 결과 기반시설 부문의 점수 합계는 1~10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0] 기반시설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산정 결과

분류	평가항목	평가지표	대상자원			영향범위(500m 이내)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보전 가치	탐방 가치	점수 (탐방·보전)
기반 시설 (접근성)	도로	F01_고속도로IC	1	5	4	1	4	3
		F02_일반국도	1	3	2	1	2	1
		F03_지방도	1	4	3	1	3	2
	공항	F04_공항	1	5	4	1	4	3
	철도역	F05_철도역	1	5	4	1	4	3



[그림 3-14] 기반시설 부문 평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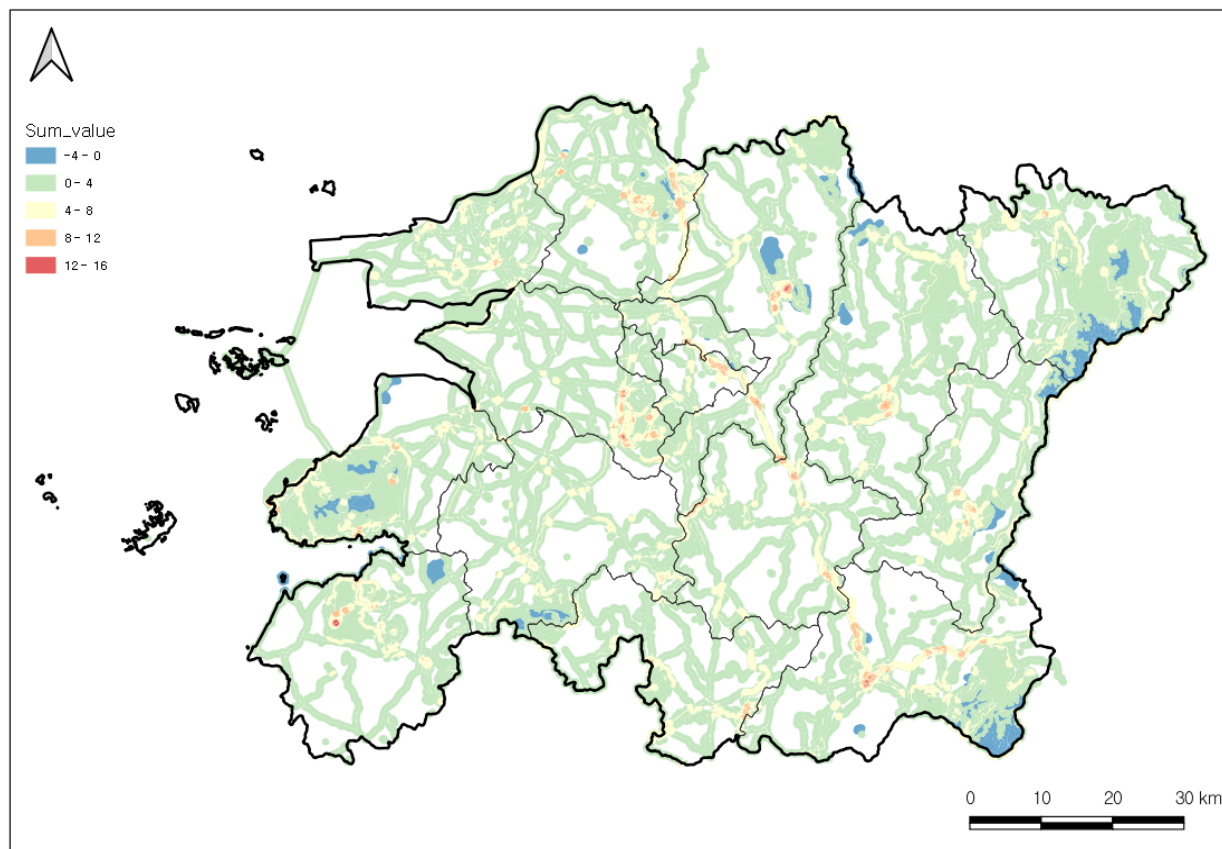
2) 종합 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점수를 합친 종합 점수는 [그림 3-14]와 같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4~16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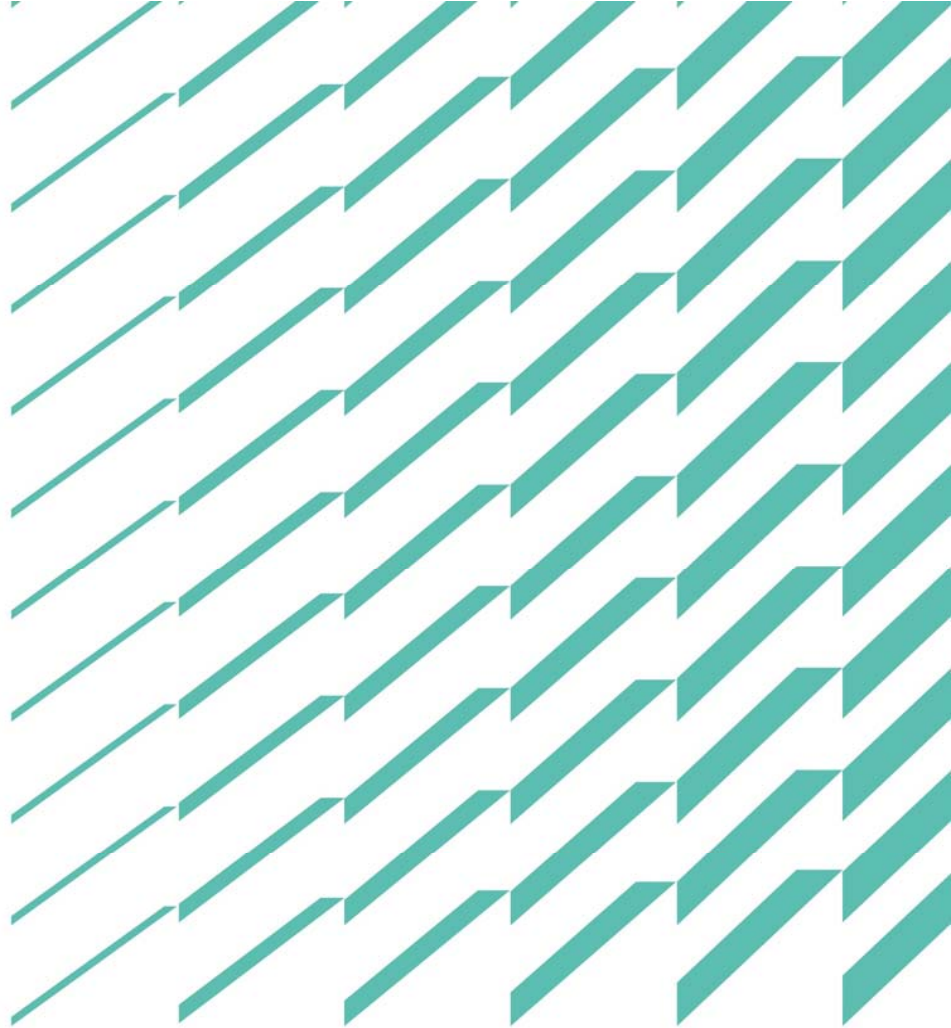
-4~0점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태문화탐방로 적지로서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자원이 가진 보전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0~4점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태문화탐방로 적지로 선정되기에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주변의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에 비해서는 탐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정맥과 같은 산림축, 도로 주변지역이 이 구간에 해당되었다.

4~16점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형자원인 옛길(통영대로와 삼남대로)과 국도가 타 자원들과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악산과 마이산, 변산반도, 고창 선운산, 남원 시가지, 진안 운일암반일암 지역, 덕유산국립공원 설천지구, 익산 왕궁리 지역, 금강 하구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5]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점수



제4장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및 활성화 방안

1.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적정 노선(안)
2. 생태문화탐방로 활성화 방안
3. 생태문화탐방로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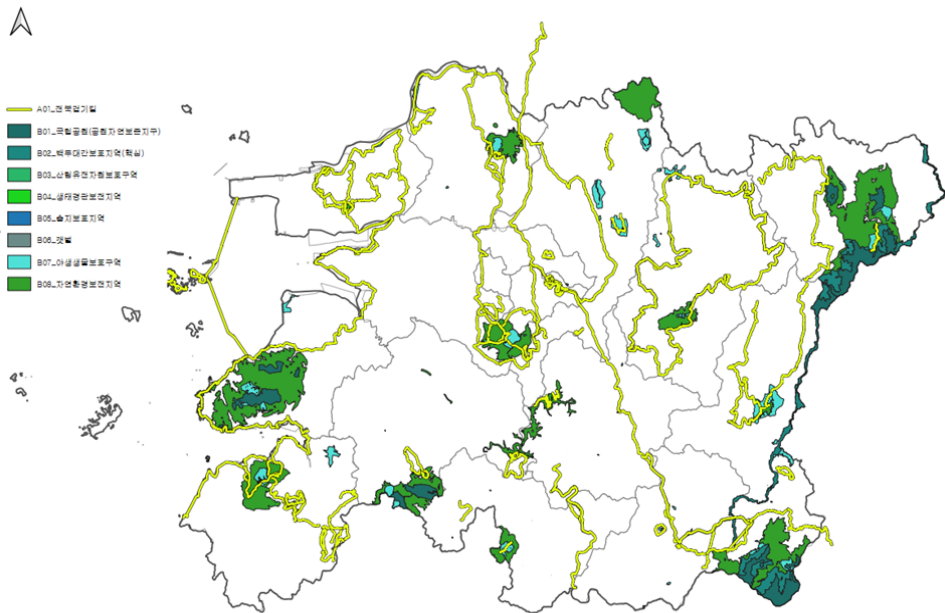


제 4 장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및 활성화 방안

1.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적정 노선(안)

가. 노선선정 기준 설정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걷기여행객들의 유입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탐방로를 우회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탐방자원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그림 4-1] 기존 탐방로와 보호지역 현황

다음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구축한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탐방로와 혼선을 유발하거나 신규 탐방로가 과도하게 구축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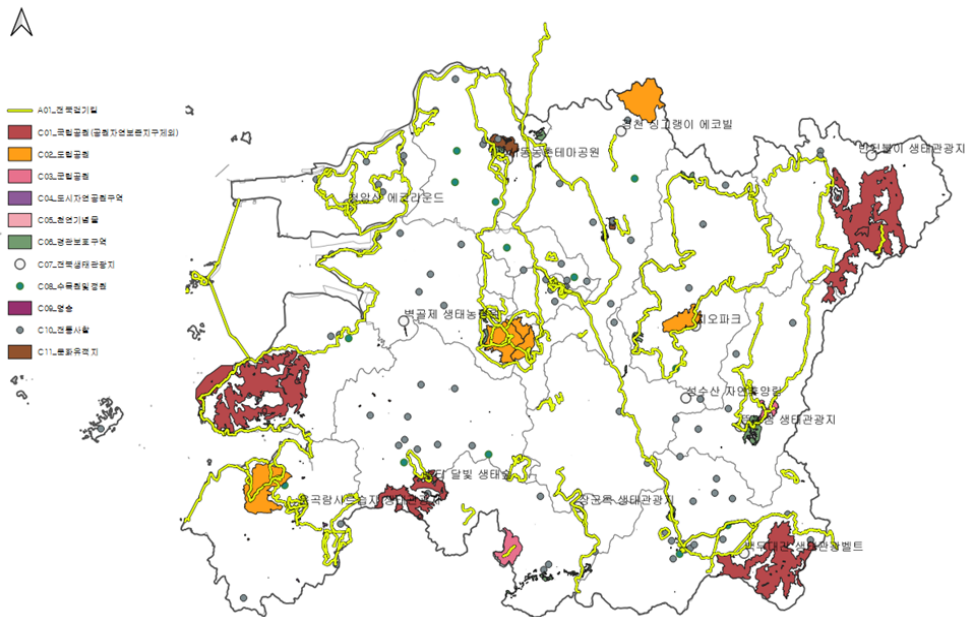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탐방노선 구축시 생태관광마을, 생생마을 등의 위치여부를 검토하여 생태

관광사업, 마을사업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험 프로그램, 체류 인프라 등을 보유한 거점 마을들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 노선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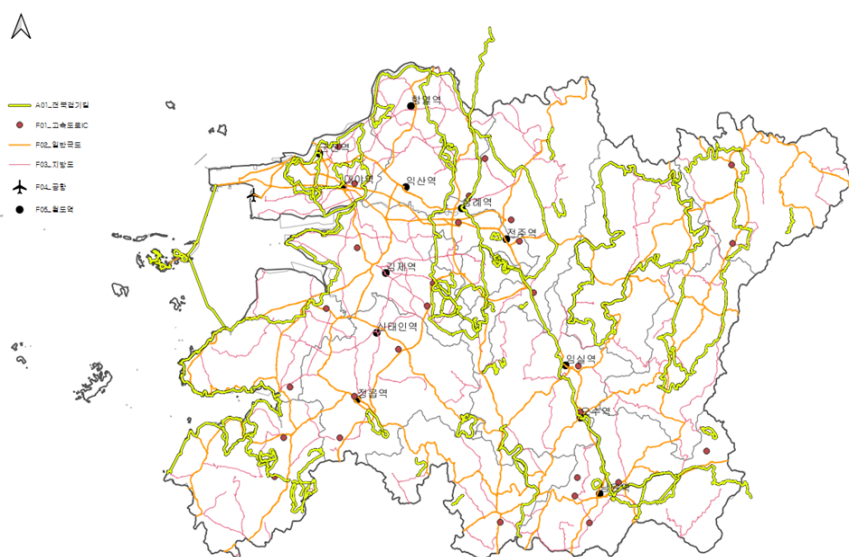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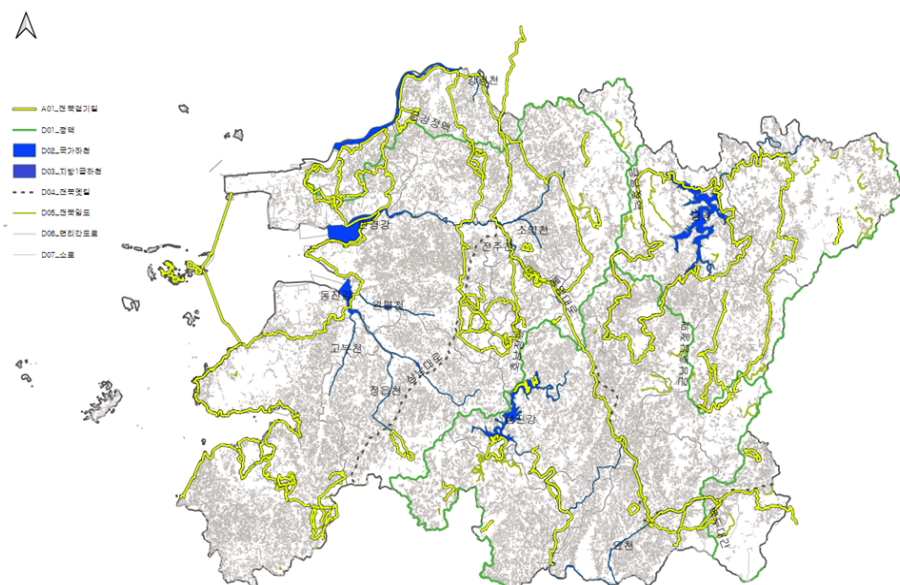
연구실분석 → 임의 제안노선 추출 → 위성사진 분석 → 현장확인 → 노선변경 및 보완 → 노선확정의 과정으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선정하였다.

연구실 분석은 생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된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여 전라북도내 연결기능 노선들을 찾았으며 안전성을 확보한 경기가 중요하므로 기존 탐방로, 마을길, 임도, 농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가급적 차량 왕래가 많은 국도와 지방도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그림 4-2] 기존 탐방로와 탐방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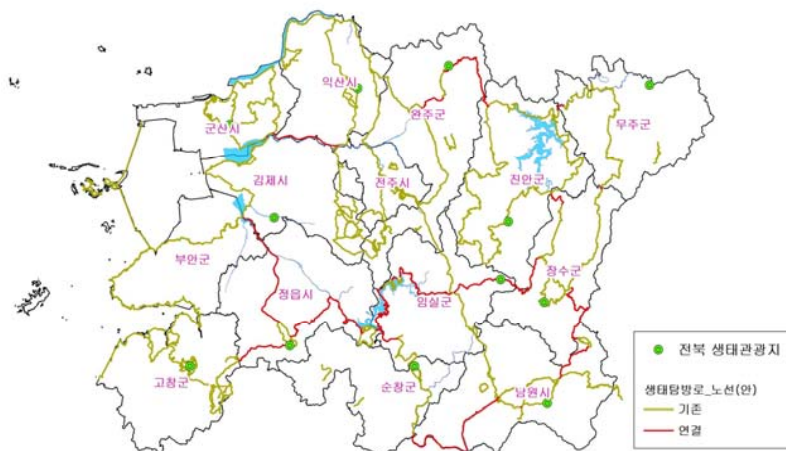
또한 고속도로 IC, 일반국도, 지방도, 공항, 철도역 등의 위치정보를 확보하여 교통기반시설로부터 탐방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안 노선설정시 고려하였다.



[그림 4-4] 기존탐방로와 교통 기반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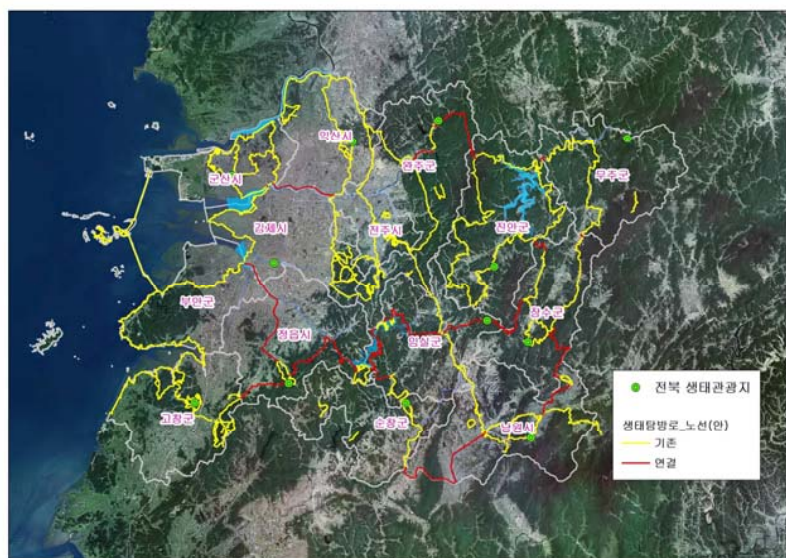
임의 제안노선 추출은 연구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결노선이 전라북도 전체에 구석구석
접근이 가능하도록 외부노선, 내부노선, 횡단노선 구축을 계획하고 생태관광지, 기존 탐방로가

가능한 많이 포함되도록 제안노선을 추출하였다.



[그림 4-5] 임의 제안노선 추출

위성사진분석은 연구실 분석을 통해 임의 설정된 제안노선이 걷기가 가능한 노선인지 위성사진을 통하여 확인하고 걷기가 어려운 노선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림 4-6] 제안노선 위성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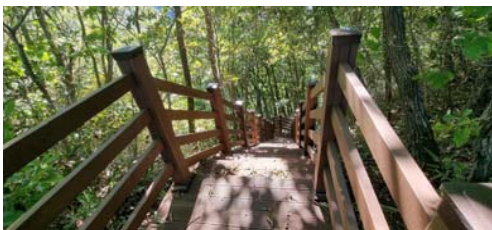
현장확인인은 전라북도 천리길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임의 설정된 노선중 신규노선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노선 상황과 변경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선(안)



위성사진 확인



현장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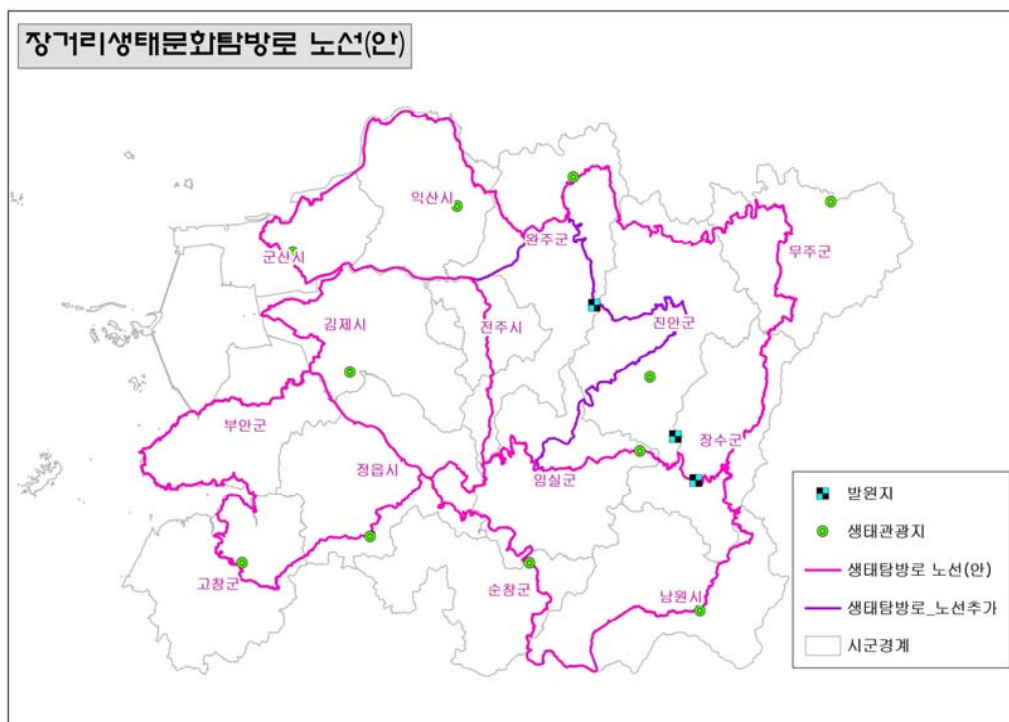
[그림 4-7] 임의 제안노선 현장조사

[표 4-1] 현장조사 항목

구분	항목
노선 상태	난이도, 경사, 생태경관성, 노면상태, 대체노선 제안
노선 안전성	위험성, 지장물, 소음, 도로구간
노선 자원성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마을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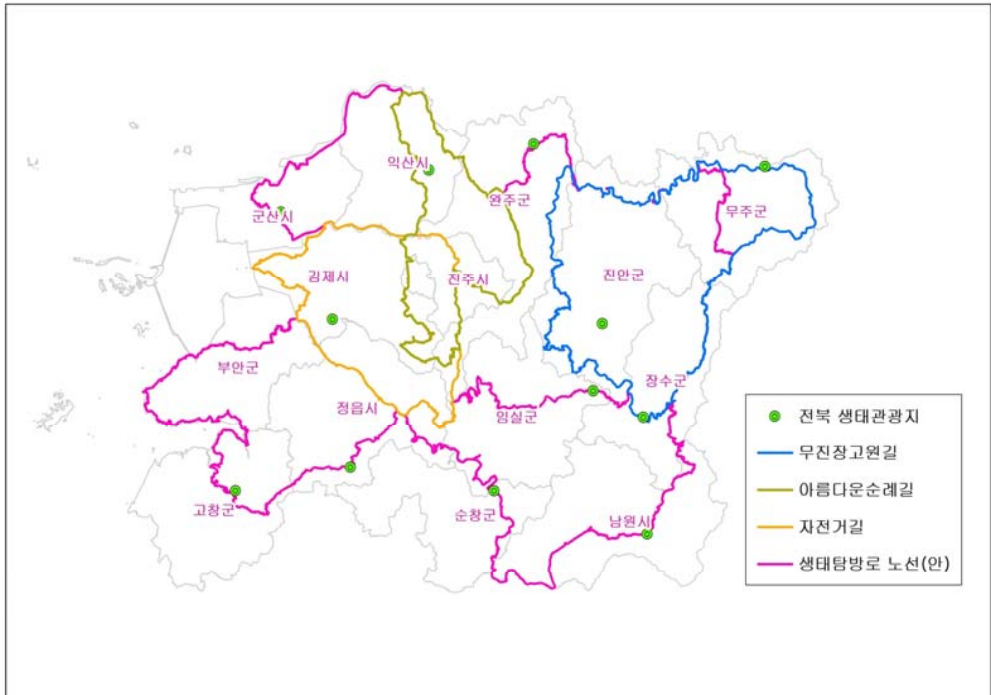
노선변경 및 보완은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임의 설정된 노선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제안 노선을 설정하였다

노선확정은 관계기관(전라북도,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등)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을 확정 제안 하였다.



[그림 4-8]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

현재 전라북도내에는 장거리 걷기길로 아름다운 순례길이 운영되고 있으며 진안고원길을 확장하여 무진장고원길(예정)을 계획하고 있다. 제안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와 기존 구축되었거나 구축계획 중인 장거리 걷기길을 활용하여 기존 장거리 걷기길의 활성화와 제안 노선(안) 중 진안군,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의 연계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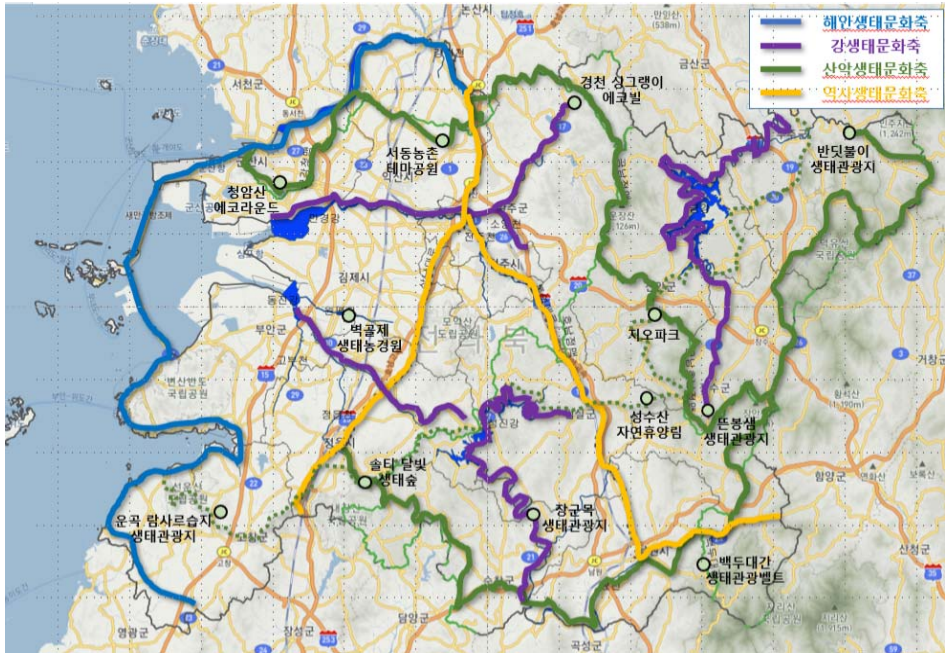
[그림 4-9] 제안노선과 기존 장거리 걷기길 연계 노선(안)

다. 노선 현황 및 유형구분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탐방로로 제안된 노선의 길이는 1,029.5km(생태탐방로 873.7km, 155.8km)이며 아름다운 순례길 197.8km와 무진강고원길(예정) 258.8km를 포함할 경우 1,486.1km가 구축될 수 있다.

노선의 유형은 노선이 가지고 있는 지형과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개 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안 노선은 그림과 같이 백두대간과 정맥(금남호남, 금남, 호남)을 잇

는 산악생태문화축, 전라북도 강(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과 호수(용담댐, 섬진댐)의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역사문화와 생태가 융합되는 강생태문화축, 새만금과 전라북도 해안의 생태계 보고인 서해안 갯벌을 잇는 해안생태문화축, 동학혁명길, 한양 과거길, 충신들의 유배, 태조 이성계의 승전 등 많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삼남대로와 통영대로를 고려한 역사생태문화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4-10] 제안 노선(안) 생태문화축 유형

산악생태문화축은 국립공원(지리산, 덕유산, 내장산)과 도립공원(마이산), 강 발원지(금강 뜰봉샘, 섬진강 데미샘)를 포함하고 있어 우수한 산악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야문화(장수, 남원), 태조 이성계 건국신화(황산대첩비, 성수산 상이암) 등 역사적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

강생태문화축은 호수(용담호, 옥정호)와 강(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으로 부터 하천과 호수가 제공하는 갈대, 철새, 습지, 지질 등의 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기문화, 일제강점기, 수몰 등의 역사자원 그리고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소리(동편제), 농학(임실 필봉), 창극(춘향, 흥부) 등을 주요 문화자원이 있다.

역사생태문화축은 옛길인 삼남대로와 통영대로를 주요 축으로 하고 있다. 넓은 평야지

대를 통과하는 두 대로는 여름엔 푸르고 가을엔 황금색 물결을 이루는 논경지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노선이었던 만큼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다. 삼남 대로는 정약용, 송시열 등의 유배, 농학농민혁명, 일제강점시수탈 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통영대로는 이순신의 백의종군, 태조 이성계의 격전지, 이몽룡과 춘향의 이별 등 역사와 문학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해양생태문화축은 금강, 만경강과 동진강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과거 기수역을 형성했던 곳은 갯벌과 습지가 발달하여 생물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국내 주요 철새서식지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 서해안의 갯벌과 지질자원이 세계적 인증을 획득하면서 보전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하천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철기문화 유입, 왜구와의 전투, 고인돌 등 고대 전라북도 문명형성에 기여한 역사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2. 생태문화탐방로 활성화 방안

가. 마을자원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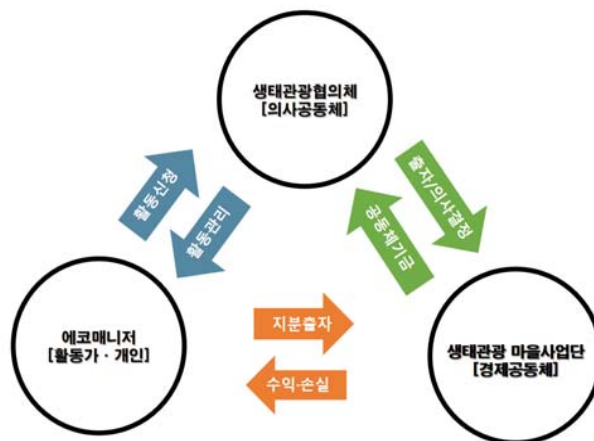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구축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동하는 탐방객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이다.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탐방객을 위해 마을에 마련된 편의시설을 탐방객이 이용하며 마을공동체와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탐방객과 마을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는 기반시설 구축과 더불어 외부인에게 삶의 터 일부를 개방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생태관광육성사업을 통하여 12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생생마을사업으로 1,030여개 마을이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되고 있다.

[표 4-2] 전라북도 생생마을 추진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개소	23	30	50	64	83	49	77	254	60	73	87	70	61	49	1,030

출처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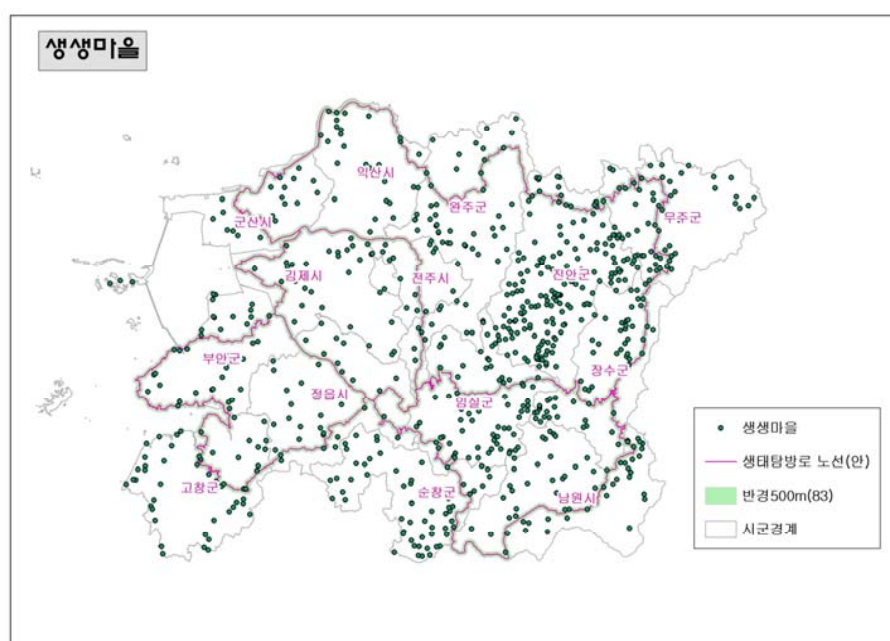


[그림 4-11] 전라북도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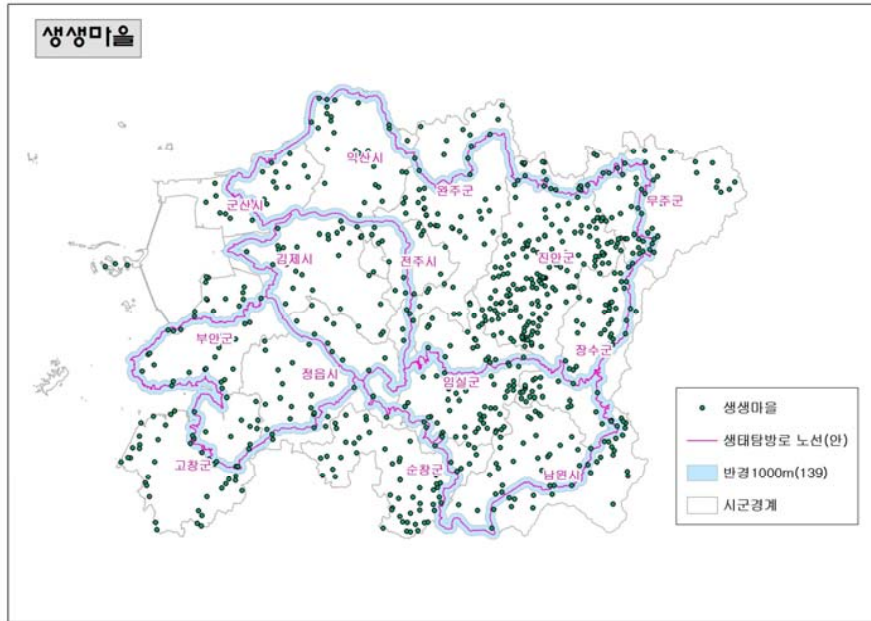
출처 :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2019

거버넌스 구축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환경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마을들은 외부인에 배타적인 마을들에 비해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기대효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거리 생태탐방로 노선(안) 주변 마을중 마을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성공적으로 마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을을 거점마을로 선정한 후 탐방로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태문화탐방로를 기준으로 좌우측 각 500m 범위내 생생마을은 83개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좌우측 각 1000m 범위내 생생마을은 139개소가 위치해 있다.



[그림 4-12] 생태문화탐방로 좌우 각 500m 생생마을 현황지도



[그림 4-13] 생태문화탐방로 좌우 각 1000m 생생마을 현황지도

나. 전라북도 고유 역사문화과의 연계

제안된 1,029.5km(생태탐방로 873.7km, 155.8km)은 전라북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강, 산, 해안 등 생태을 기반으로 설정된 산악생태문화축, 강생태문화축, 역사생태문화축, 해안생태문화축에 전라북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고육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제길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전라북도 가야문화, 철기문화 형성의 역사적 기반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재평가 받고 있으며 동학혁명의 발상지, 4대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이 주요 순례지와 포교지, 동편제 명창과 판소리 이야기 등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 받고 있는 지역이다.

4개 축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을 소재로 가야길(남원, 장수 일원), 금강마실길(무주, 진안 일원), 동학길(고창·정읍·순창 일원), 문물교류길(익산·군산·부안 일원), 순례길(익산·완주·전주·김제 일원) 등 5개 주제길을 제안해 볼 수 있다.

1) 가야길(남원 방면)

전라북도의 주요 옛길인 가야길 복원은 확인된 가야의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된 유적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유적들은 대부분 운봉고원을 통해 연결되었고, 남원을 중심으로 임실, 장수 등으로 확산되었다.

운봉일대는 그동안 마한과 백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 1970년대 임실 금성리 고분에서 대가야 토기가 출토되고, 1982년 남원 월산리와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이 발굴되면서 주목 받았다. 이곳은 동쪽으로 팔랑치를 넘어 함양으로, 동남쪽으로 섬진강을 따라 하동과 진주 방면, 서북쪽으로 임실을 통해 동해안, 북쪽으로 장수와 진안을 거쳐 금강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을 중심지이다.⁵³⁾ 따라서 운봉을 중심으로 한 남원, 장수, 진안, 임실 등은 가야와 백제, 신라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가시적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을 가야를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탐방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4-3] 가야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	문화재현황
1	아막성	남원시 아영면 성리 83번지	도지정문화재
2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남원시 성내길 35-4	사적
3	월산리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 1-10	도지정문화재
4	청계리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도지정문화재
5	황산대첩비지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84 (화수리)	사적
6	여원치(마애불)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5-3번지	도지정문화재
7	정령치(개령암지마애불상군)	남원시 산내면 정령치로 1523	보물
8	교룡산성	남원시 산곡동 16-1번지	도지정문화재
9	동촌리 고분군	장수군 덕산로 128-1	사적
10	침령산성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도지정문화재
11	금성리 고분군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	해당 없음

53) 박장근,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2) 금강마실길(무주·진안 방면)

무주와 진안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이다. 금강마실길은 금강 수계에 위치한 유적 및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유적들은 대부분 금강을 중심으로 진안과 무주 등으로 확산되었다.

금강의 수계를 따라 주천면의 운일암 반일암, 용담 지역의 수몰된 문화재를 모은 망향의 동산, 무주측 첫 강변 마을인 도소마을과 대소마을, 남대천과 합류한 뒤의 서면마을이 한 축이다. 한편, 적상산성에서 무주 읍내 방향으로 나와 읍내의 한벽루를 경유하여 서면마을에 이르는 경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방면으로 토통리 청자요지에서 마이산 일대를 거쳐 죽도를 경유하여 다시 송풍리로 합류할 수 있다.

[표 4-4] 금강마실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	문화재현황
1	적상산성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번지	사적
2	한풍루	무주군 한풍루로 326-5	보물
3	서면마을(소이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447	해당 없음
4	대소마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해당 없음
5	도소마을	무주군 부남면 유섬길 153	해당 없음
6	죽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211-1	해당 없음
7	망향의 동산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산 4-1	도지정문화재
8	운일암 반일암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926	해당 없음
9	마이산	진안군 마이산로 240-34	명승, 보물, 천연기념물, 도지정문화재
10	도통리 청자요지	진안군 중평안길 13	사적

3) 동학길(고창·정읍·순창 방면⁵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가 바로 정읍과 고창, 순창이다. 동학길은 생태길에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화중이 체포되었던 고창군 부안면부터 인천강을 따라 선운사 도솔암, 고창읍성, 천원역, 황토현, 만석보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 한편, 천원역에서 내장산을 거쳐 무성서원, 전봉준장군 피체지, 김개남 피체지로 연결된다.

54) 관련 내용은 문화재청과 디지털고창문화대전, 디지털순창문화대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현재의 길에서는 무장읍성이 빠졌지만 향후 무장읍성에서 고창읍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추가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

[표 4-5] 동학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	문화재현황
1	손화중 피체지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322-65	해당 없음
2	선운사 도솔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보물, 천연기념물, 도지정문화재
3	고창읍성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	도지정문화재
4	천원역	정읍시 입암면 천원아랫길 3	해당 없음
5	황토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사적
6	만석보지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7-1	도지정문화재
7	무성서원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사적(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8	전봉준 피체지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43	도지정문화재
9	김개남 피체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702	해당 없음

4) 문물교류길(익산·군산·부안 방면)

문물교류길은 금강 중하류부터 서해안에 이르는 경로이다. 이곳은 고조선의 준왕이 남하하였던 길이기도 하고, 후백제가 대중국 무역을 하였으며 고려시대 송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던 국제교역항이었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 조운을 통해 한양으로 청자와 곡식 등을 진상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산항을 통해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일본으로 실어 갔던 수탈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문물의 교류 중심지가 바로 이 길이다.

성당포구에서 웅포, 나포, 군산항을 거쳐 새만금의 중심지인 선유도, 부안의 수성당, 곰소항까지 이어지는 경로이다. 금강과 서해안이라는 요소가 있어 기존의 길을 이용할 수 있다.

[표 4-6] 문물교류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	문화재현황
1	성당포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답723-31	도지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2	웅포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해당 없음
3	군산항(군산진, 군산창)	군산시 장미동 일대	국가등록문화재
4	선유도(고군산도)	군산시 옥도면	도지정문화재, 명승
5	죽막동 유적(수성당)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도지정문화재
6	곰소항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02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도지정문화재

5) 순례길(익산·완주·전주·김제 방면)

순례길은 금강 중하류부터 전라북도 중앙을 크게 도는 경로이다. 이곳은 김대건 신부가 처음 조선땅에 도착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나바위 성당부터 숲정이 성지, 천호성지, 송광사, 전동성당으로 이어진다. 이후 다시 김제의 금산사를 거쳐 완주의 초남이 성지를 지나 삼남대로를 타고 미륵사지를 통해 원래 길로 가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천주교와 불교 등의 전라북도 대표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여산향교(유교), 고산향교(유교), 치명자성지(천주교), 귀신사(불교), 금산교회(기독교), 원평 집강소(동학), 금구향교(유교)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표 4-7] 순례길 관련 역사자원 목록

번호	명칭	소재지	문화재현황
1	나바위 성지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사적
2	숲정이 성지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95	도지정문화재
3	천호 성지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해당 없음
4	송광사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보물, 도지정문화재
5	전동성당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사적
6	금산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사적, 국보, 보물, 도지정문화재
7	초남이 성지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해당 없음
8	미륵사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사적, 국보, 보물

다.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

1) 기반시설(민박과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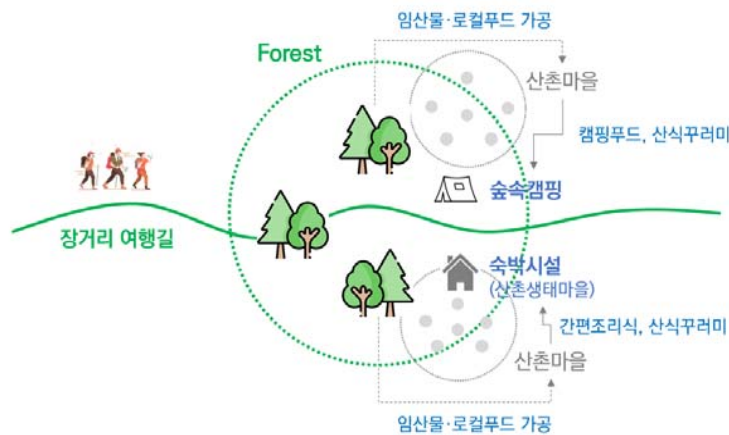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농산어촌은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역활력 및 지역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들어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탐방로의 광역화, 장거리 도보여행과 함께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캠핑 인구(통계청)는 2010년 60만명에서 2020년 7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그 증가속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거리 도보여행자들과 농산어촌지역의 사람, 자원, 공간을 연결시켜 여행자들에게는 농산어촌의 문화와 감성을 제공하고, 농산어촌에는 도시의 사람과 자본을 유입시켜 마을활력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보여행자들은 농산어촌에 신선한 활력과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농산어촌은 도보여행자들에게 비일상적 체험과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에코캠핑은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즐기는 캠핑 또는 농산어촌의 숙박시설에서 농산어촌의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농산어촌 공동체와 연결할 경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연결(network) → 소생(recover)
- 연결 : 도보여행객 + 지역(농산어촌), 사람(주민)
 - 소생 : 감성문화, 지역경제, 마을공동체



[그림 4-14] Forest Camping 개념도

걷기여행객 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은 숙박시설이다. 생생마을사업 등을 통하여 숙박시설을 보유한 마을의 경우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구축이 가능하며 생태관광사업, 새롭게 숙박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마을공동체의 경우 마을공유지를 활용하여 에코캠핑베이스 조성이 필요하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캠핑 푸드 공급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2) 프로그램 개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는 매니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건강관리, 생태 탐방, 역사문화탐방, 치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생태문화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선을 선정하고 탐방로 구축, 마을공동체 참여기반 등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탐방로 코스별 탐방과 완주를 기념하고 인증하는 패스는 대부분 걷기길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역사문화, 생태 등을 주제로 한 탐방프로그램운영, 홈페이지를 활용한 탐방로 소개, 숙박 및 음식점 정보, 주변 관광지 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탐방로 공통적인 프로그램이다.

전라북도 천리길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천리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리길 해설사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 전북천리길 스탬프 투어, 전북천리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5] 전북천리길 스탬프 투어 예시

천리길의 한단계 발전 모형이 될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탐방로는 길어진 길이 만큼 더욱 다양한 생태 및 역사문화적 소재를 보유하게 되며 단순 걷기 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탐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코스별 구분 및 난이도 분석이 필요하다. 전북 천리길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걷기여행길, 이용 난이도 분류체계 연구’ 기준에 따라 쉬움에 매우 어려움까지 4가지 난이도로 구분하고 있다.



$$\text{거리} + (\text{누적 고도}/100) \times 1.5 + (\text{최대 경사}/5)$$

[그림 4-16] 전라북도 천리길 난이도 구분

산림청 숲길은 경사도, 구간거리, 노면상태, 노면폭, 안내표수 유무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용등급 (난이도)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노선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검은색
픽토그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22), 숲길 이용등급(난이도) 산출 가이드

[그림 4-17] 숲길 이용등급(난이도) 구분

구간별 적용 프로그램은 연령대별, 참여단위별(가족, 사회적 약자 등),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프랑스 랑도네협회는 도보여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맹단체와 회원들에게 매년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8] 프랑스 랑도네 운영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세부내용
도전 랑도네	게임형식의 행사로 랑도네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
장애인 랑도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을 운영되는 프로그램
건강 랑도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연대 랑도네	출소할 제소자를 대상으로 사회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한 길 한 학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랑도네 걷기 프로그램을 교과목과 연계학습 프로그램을 활용

출처 : 김소영·이재영(2014), 프랑스 랑도네 협회 사례를 통한 한국의 문화탐방로 운영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국외사례에서 소개된 체험프로그램 유형인 일본 시즈오카현 ‘농박프로그램’,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해양프로그램’, 탐방로 이벤트 유형인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후지 트레일 러닝’, 치유프로그램 유형인 벨기에 ‘청소년 심성교육’, 한국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홍보 프로그램 유형인 일본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현장 토크 콘서트’를 프로그램 개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생태문화탐방로 관리방안

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활용방안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2015.10.30. 제정)’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조례에 제시된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생태관광사업과 더불어 전북천리길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 천리길 해설사 육성, 천리길 홍보, 천리길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천리길은 산들길, 해안길, 강변길, 호수길로 구분되고 있으며 44개 노선을 완주할 경우 통합인증서 및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되어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의 기능〉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생태관광사업으로 포함하여 운영·관리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유사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천리길 해설사 육성·교육, 탐방로 행시 기획 및 운영(초록 원정대), 홍보(SNS, 방송매체) 등 시기적, 공간적으로 제한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을 확대시켜 상시적, 광역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는 생태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생태관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참여마을 중심으로 생태관광협의체 및 생태관광 마을사업단 조직, 에코메니저 육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실패 및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4-9]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기획운영	·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장기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계획 통합 지원조정 · 생태관광지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관리 · 전북형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상품 사업화 기획·운영
컨설팅 네트워크	· 지역맞춤형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생태체험프로그램 등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성화 등 · 12개 시군 생태관광지 및 생태마을 방문객(탐방객, 여행사 등) 네트워크 구성관리
생태자원 관리	·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생태자원 특화사업 발굴(생태, 인문자원 DB 구축관리) · 생태자원 보전 및 생태자산 인벤토리 구축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	· 생태관광지 운영주체(주민, 에코매니저 등) 교육 및 지원 ·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주민 서비스안전 등 교육
홍보·마케팅	· 홍보방안 마련 및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마케팅 · 홍보자료(가이드북,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배포, 생태관광 홈페이지 관라운영 · 생태관광 공동 마케팅(공동브랜딩, 생산제품 홍보, 숙박 안내 등)

자료 :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2019

나.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협의체 구성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별도 독립적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협의체(가칭)을 조직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로 프랑스랑도네협회, (사)제주올레 등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의 경우 걷기여행을 활성화기 위하여 전국 단위 걷기 네트워크 조직인 랑도네협회(FFRR, Fédération Francaise de la Randonnée Pédestre)가 있으며 지도제작팀, 정부협력팀, 기업협찬유치팀, 법률팀, 안내책자 판매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도보여행 길이는 180,000km로 장거리 구간(Grande Randonnée, GR) 65,000km 단거리 구간 (Petite Randonnée, PR) 115,000km로 구분할 수 있다. GR은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 구간이며 PR은 10~20km의 구간으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짧은 코스로 개발되어 있다. 그 외 GRP(Grande Randonnée de Pays) 구간이 160km정도의 길이규모를 가지고 순환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매일 500여개 걷기 모임이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걷기 동호회가 25,000개가 활동하고 있다.

랑도네협회는 도보여행 코스개발, 오솔길 보호와 보전, 지형안내도 발행, 도보여행 장려 및 실현화, 지도자 교육과정 등 5개 세부미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지도위원회와

대표, 특수위원회와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전국 120여개 지방, 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위원회들은 지역의 클럽 및 협회를 통합조직하고 있다.⁵⁵⁾

[표 4-10] 프랑드랑도네협회 세부미션 별 활동내용

세부미션	활동내용
도보여행 코스개발	애호가들이 도보여행을 하나의 필수적인 생활스포츠로 여길 수 있도록 새로운 도보 여행코스를 찾고 표지들을 설치
오솔길 보호와 보전	인적이 닿을 수 있는 오솔길들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에코 베이예(Eco Veille) 프로그램
지형 안내도 발행	도보여행 시 여행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필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형 안내도
도보여행 장려 및 실현화	3,050개의 가맹단체와 협회위원회 회원들을 위해서 해마다 수 천 개의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제안
지도자 교육과정	이수과정, 완성과정, 보충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 자격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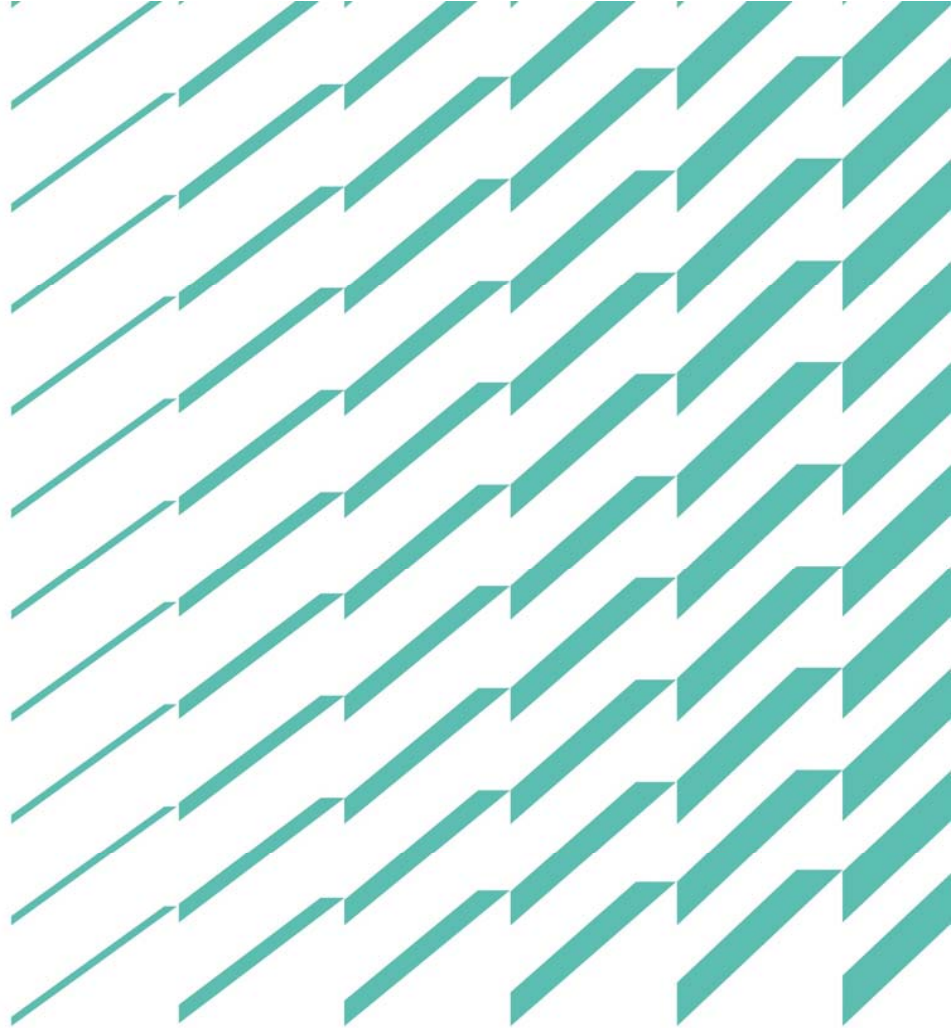
(사)제주올레는 비영리단체로 2007.9년 발족하였다. 제주올레트레일은 장거리 제주도 걷기여행길로 27코스 437km를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1부문 3개팀(트레일부문, 홍보마케팅, 후원교육환경팀, 경영지원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활동내용은 표와 같다.

올레길의 개발과 운영은 대중관광 중심이었던 제주도의 관광사업 추진방향을 바꾸는 주요한 개기가 되었으며 단기에서 장기로 체류일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에 생태탐방로가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일본(큐슈, 미야기) 몽골(울란바토르)에 코스개발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발전적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4-11] (사)제주올레 주요 활동내용

조직	활동내용
트레일부문	제주올레 개발 및 운영, 대외교류
홍보마케팅	제주올레 브랜드 관리, 콘텐츠 개발, PR, 인쇄물 발행
후원교육환경팀	후원, 교육(제주올레 아카데미, 길동무 전문교육) 탐사과정(길유지, 보수교육), 환경(올레길 생태복원, 클린올레 등)
경영지원팀	총무, 인사, 회계, 노무

55) (사)숲길, 프랑스 랑도네 답사 보고서, 2008, 관리 운영을 위한 프랑스 답사 보고서



제5장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제 5 장 결론 및 고찰

1. 결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산림청 숲길,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및 코리아둘레길(해파랑길, 남해랑길, 서해랑길), 행정안전부 명품녹색길 등이 추진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예향천리 마실길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의 각종 탐방로 사업의 공모 참여와 전라북도 자체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내에는 지리산 둘레길, 부안 변산 마실길, 진안 고원 마실길, 군산 구불길, 아름다운 순례길 등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걷기길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자체적으로 2016년 생태관광육성사업과 2017년 전북천리길사업을 추진하는 생태관광 정책의 선도 지자체가 되고 있다. 고창 운곡습지, 정읍 월영습지 등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되었다.

생태관광지와 탐방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전라북도 내에 확산하고 탐방로 간 연계성 확보 및 생태관광지와 탐방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점적으로 존재하는 자원들을 선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구축이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 증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어 인구소멸가능성이 높은 마을들과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연계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선 구축 및 노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지표개발하고 생태관광지, 천리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등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자원현황을 조사한 후 생태문화탐방 자원을 연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을 제안하고 제안 노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전북연구원에서 2008년에 수행했던 연구⁵⁶⁾를 참고하여 ① 기존탐방로, ② 보전자원, ③ 탐방자원, ④ 연결자원, ⑤ 기반시설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평가항목별로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5-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분류	평가항목	
기존 탐방로	기존탐방로	국가생태탐방로, 전라북도 천리길, 아름다운순례길, 부안 생태문화탐방로
보전자원	보호지역	국립공원-자연보전지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_갯벌,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탐방자원	자연생태	국립공원(자연보전지구 제외), 도립공원, 군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천연기념물, 경관보호구역, 생태관광지, 수목원, 정원
	역사문화	명승, 전통사찰, 문화유적지
연결 자원	산림축	정맥
	하천축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옛길	삼남대로, 통영대로
	산길	임도
기반시설 (접근성)	도로	면리간도로, 소로(농로포함)
	도로	고속도로 IC,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IC
		국도, 지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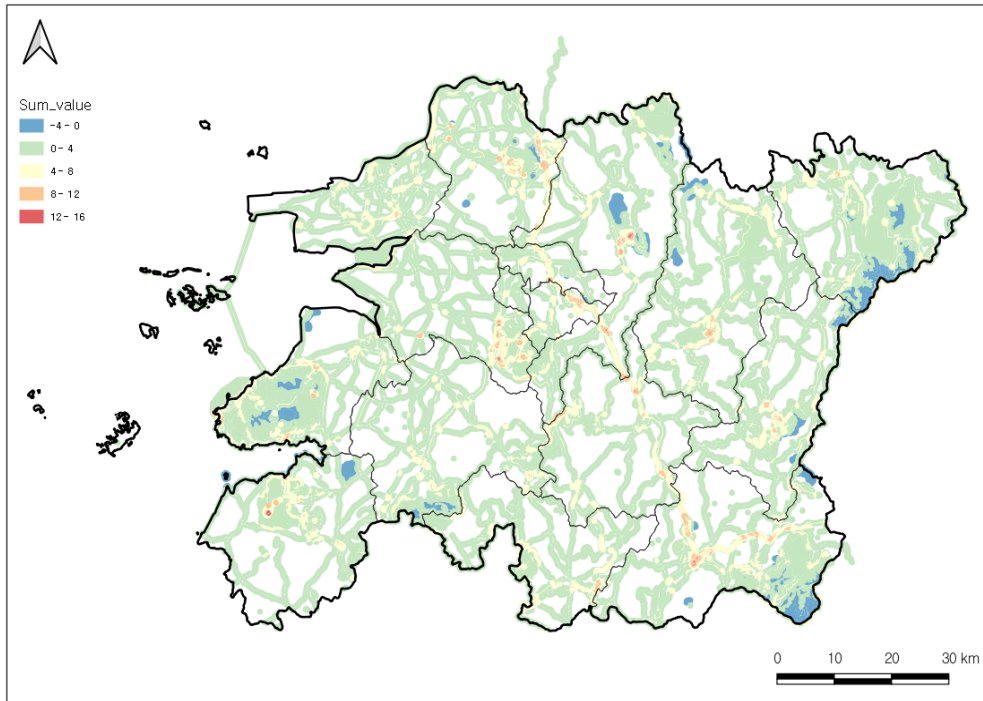
대상 자원으로부터 탐방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범위라고 할 수 있는 5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⁵⁷⁾

부문별 평가지표 점수를 합친 종합 점수는 [그림 5-1]과 같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56) 김보국 외(2008),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

57) 환경부가 제시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가능지역 분석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원에 대해 지표별 평가점수로 400~600m 거리에 대해서는 1점, 600m 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고 있음(환경부, 2015,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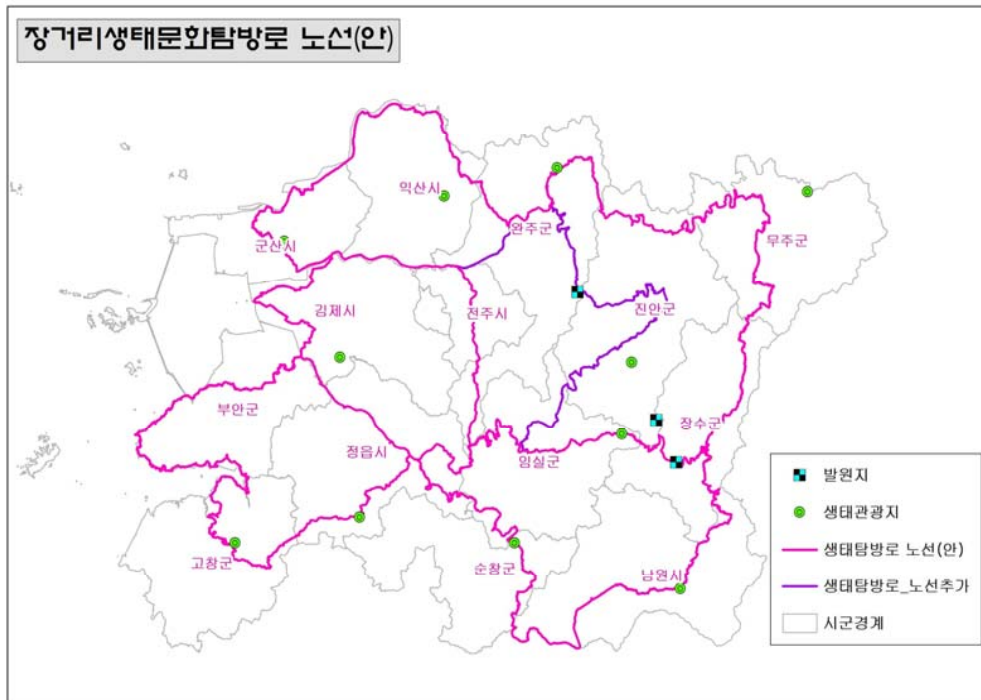
-4~16점으로 분석되었다. 4~16점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 전라북도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점수

걷기여행객들의 유입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탐방로를 우회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구축한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탐방로와 혼선을 유발하거나 신규 탐방로가 과도하게 구축되는 것을 지양하고 탐방노선 구축시 생태관광 마을, 생생마을 등의 위치여부를 검토하여 생태관광사업, 마을사업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험 프로그램, 체류 인프라 등을 보유한 거점마을들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선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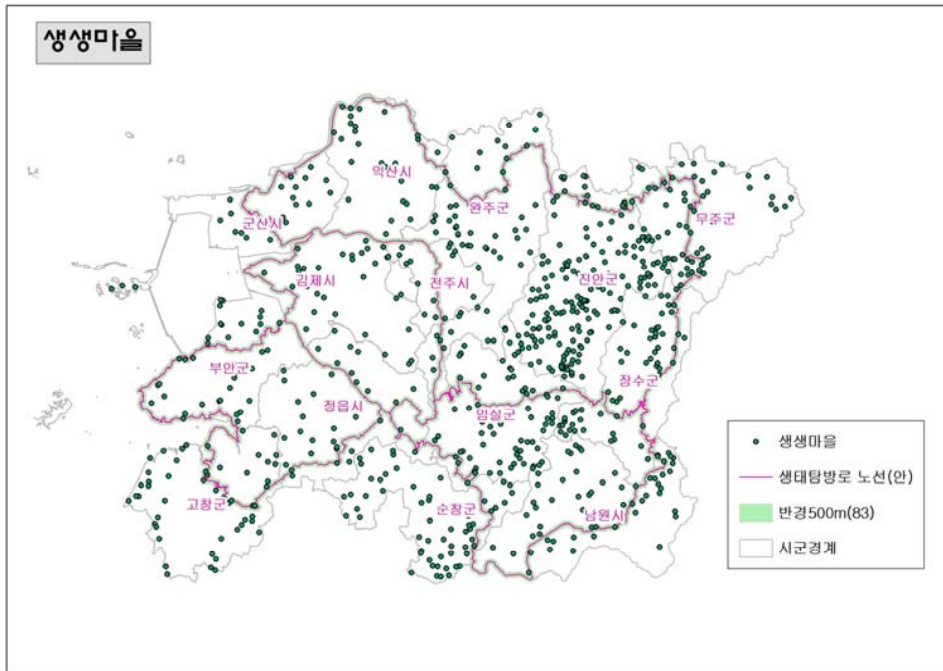
노선은 연구실분석 → 임의 제안노선 추출 → 위성사진 분석 → 현장확인 → 노선 변경 및 보완 → 노선확정의 과정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5-2] 그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구축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동하는 탐방객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이다.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탐방객을 위해 마을에 마련된 편의시설을 탐방객이 이용하며 마을공동체와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장거리 생태탐방로 노선(안) 주변 마을중 마을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성공적으로 마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을을 거점마을로 선정한 후 탐방로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생태문화탐방로 좌우 각 500m 생생마을 현황지도

제안된 1,029.5km(생태탐방로 873.7km, 자전거길 155.8km)은 전라북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길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강, 산, 해안 등 생태을 기반으로 설정된 산악생태문화축, 강생태문화축, 역사생태문화축, 해안생태문화축에 전라북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고육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제길 설정이 필요하다.

4개 축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소재로 가야길(남원, 장수 일원), 금강마실길(무주, 진안 일원), 동학길(고창·정읍·순창 일원), 문물교류길(익산·군산·부안 일원), 순례길(익산·완주·전주·김제 일원) 등 5개 주제길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탐방로의 광역화, 장거리 도보 여행과 함께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캠핑 인구(통계청)는 2010년 60만명에서 2020년 7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그 증가속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코캠핑은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즐기는 캠핑 또는 농산어촌의 숙박시설에서

농산어촌의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농산어촌 공동체와 연결할 경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는 매니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건강관리, 생태 탐방, 역사문화탐방, 치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생태문화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선을 선정하고 탐방로 구축, 마을공동체 참여기반 등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농박프로그램, 해양프로그램, 트레일 러닝, 현장 토크 콘서트, 프랑스 랑도네 챌린지 프로그램, 벨기에 청소년 심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를 생태관광사업으로 포함하여 운영·관리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유사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하거나 별도 독립적 조직체계인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협의체(가칭)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고찰

■ 전라북도 장거리 걷기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본 연구는 생태관광지, 천리길, 생생마을 등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내에 장거리 생태문화 탐방로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진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이 생략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거리 걷기길의 경우 제안 노선(안)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과정에서 제안되지 못했던 경관과 역사성이 우수한 옛길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장조사 과정에 노선의 적정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민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활성화 과정에 걷기길이 차단되어 탐방로 활용성이 심각하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체 노선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정책수립과 추진보다는 다각적인 검토와 세밀한 설계과정 그리고 지역민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종합계획 수립과정이 필요하다.

■ 자연을 고려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구축 필요

뉴질랜드 밀포드트랙, 미국 존뮤어트레일 등은 대표적인 자연중심의 장거리 걷기길이다. 두 장거리 걷기길 모두 입장객수(밀포드 40명, 존뮤어 15명 이하 그룹)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장기간 역시 특정 기간(밀포드 10월 말~4월 말, 존뮤어 6월 중순~9월 중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음식섭취, 캠핑, 쓰레기 배출 등 입장후 탐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들을 운영하고 있어 우수한 생태경관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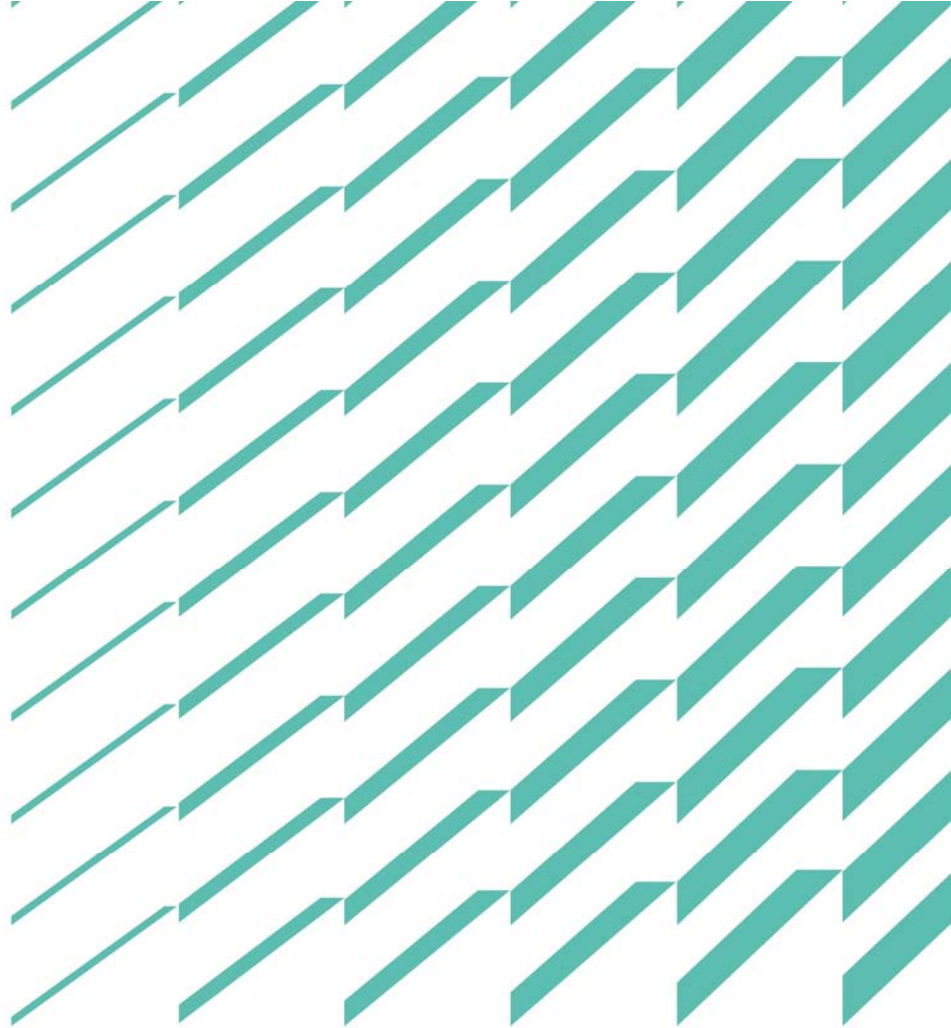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구축의 주요 목적중 하나로 마을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자연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만큼 대중관광이나 인간중심의 관광은 지양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전술한 종합계획 수립시 자연을 고려한 탐방로 구축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추진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구축 협의체 구성

생태문화탐방로는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우수한 생태경관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만들고 지역 농산물로부터 먹을 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구상단계가 있어야 한다. 때론 생태복원지가 있을 수 도 있다.

기본계획에서 노선확정과 관리방안 제시까지 다양한 전문가, 단체, 기관이 참여하여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운영과정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 센터 또는 (가칭) 전라북도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보국, 정명희, & 유승수. (2008).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김보국, 정명희, & 유승수. (2008). 생태·문화탐방로 지역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김보국, 임승현, & 이은송. (2009).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방안 및 선정노선의 특성분석, 전북발전연구원.
- 김보국 외. (2009). 스토리가 있는 전라북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김보국 외. (2019).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김보국. (2020).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83>
- 김소영, & 이재영. (2014). 프랑스 랑도네 (Randonnée) 협회 사례를 통한 한국의 문화탐방로 운영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16, 23-41.
-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81-114.
- 사(숲길). (2008). 프랑스 랑도네 답사 보고서.
- 이승주, 한봉호, 강현경, 이수동, & 김상범. (2009).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곡리 여산팔경 마을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방안 연구. 농촌계획, 15(3), 61-79.
- 임휘룡, 이경재, 한봉호, & 장재훈. (2010). 서울 북악산 군 순찰로를 활용한 생태. 문화탐방로 조성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2-145.
- 조우, 김지석, 김종엽, & 이경재. (2009).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생태적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1-114.
- 환경부. (2015).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운영 가이드라인.
- 전라북도. (2021). 전북생태관광가이드북.
- 전라북도. (2021). 전북천리길가이드북.
- 경기둘레길 홈페이지.(www.gg.go.kr).
-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 금강소나무숲길 홈페이지. (www.uljintrail.or.kr).

규슈올레 홈페이지. (www.kyushuolle.welcomekyushu.jp/ko/).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 (www.naepotrail.org).
 두루누비 홈페이지. (www.durunubi.kr).
 로드프레스(www.roadpress.net).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www.gis-heritage.go.kr).
 미야기올레 홈페이지. (www.miyagiolle.jp/ko/about/).
 미치노쿠 트레일 클럽 홈페이지. (www.m-tc.org/explore/about/trail/).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홈페이지. (www.walkingovernight.com/).
 산림공간정보서비스. (www.map.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www.shizuoka.hellonavi.jp/category/activity/nohaku).
 시코쿠헨로 홈페이지. (www.88shikokuhenro.jp/map.html).
 일본 헤리티지 공식 홈페이지. (www.japan.travel/japan-heritage).
 (사)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uolle.org/office/kor/default.asp).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www.kpda.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aks.ac.kr).
 해양수산부 연안포털(www.coast.mof.go.kr).
 홋카이도 홈페이지. (www.pref.hokkaido.lg.jp/ks/skn/shisetsu/hodo_top.html).
 헨로미치보존협력회 홈페이지. (www.iyohenro.jp/product/detail).
 투어리즘시코쿠 홈페이지. (www.tourismshikoku.org/kr/henro/).
 트레일블레이즈 하이킹연구소. (www.trailblaze-hi.org/works/).
 e-나라지표. (www.index.go.kr).
 QGIS 3.10.11 -A Coruña. (www.qgis.org/en/site/).
 네이버블로그(여과장). (2015.12.11.작성). [산티아고 순례길(3)순례자
 여권'크레덴시알(Credencial)]. <https://blog.naver.com/hellohanayo/220564926789>
 드림매니아. (2019. 5. 18.). [시코쿠 여행]일본의 순례길 오펜로.
<https://blog.naver.com/hsgikhj/221540539604>
 미나미산리쿠 가이드와 걷는 미치노쿠 시오카제 트레일.

-
- <https://select-type.com/rsv/index.php>
- 배언덕. (2015. 6. 20.). Albergue(알베르게, 순례자 숙소)는 어떤곳이며 어떻게 묵을 수 있나요?.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oleekr/220396011616>
- 정승. (2018. 9. 27.). ibk의 일본 기행_시코쿠 순례 풍경 제1부 료젠지 9/16.
<https://cafe.naver.com/jpnstory/2555798>
- 정효정. (2016. 8. 21.). 푸엔테 라 레이나의 공립알베르게, #푸엔테 라 레이나, 오마이포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008478&tag=%ED%91%B8%EC%97%94%ED%85%8C+%EB%9D%BC+%EB%A0%88%EC%9D%B4%EB%82%98&gb=tag
- 정효정. (2016. 12. 1.). 순례자 숙소(알베르게) 내부, #카미노, 오마이포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061652&tag=CAMINO&gb=tag
- 조현정. (2018. 11.).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1), 기독교사상.
- 허연&손동우. (2008. 1. 28.). 코엘료의 순례길 문화코드 되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08/01/50961/>
- NATS 자연사랑클럽. (2022. 10. 검색). 장거리 자연보도를 걷자!.
<https://www.env.go.jp/nature/nats/shizenhodo/index.html>

SUMMAR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ng-Distance Ecological Culture Trails for Revitalization of Ecotourism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Jeollabuk-do started its ecotourism development project in 2016, based on the 2015 “Establishment of guidelines and pass lines for one city, one ecotourism site.”
- Twelve cities and counties (except Jeonju and Buan) have been developing ecological tourism sites that are designated by the province. Since 2017, 44 routes totaling 405 kilometers have been created, connecting excellent ecological,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and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walking culture.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signated 10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as population-decreasing areas in October 2021 and plans to invest heavily in revitalization projects to increase the population.
- The aim is to create long-distance walking trails that combine Jeollabuk-do’s history, culture, and ecology.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promoting ecotourism and forming supporting systems for ecotourism villages while securing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Jeonbuk Cheolli-Gil, 12 ecotourism sites, and the

established ecological trails so that existing ecotourism resources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population-decreasing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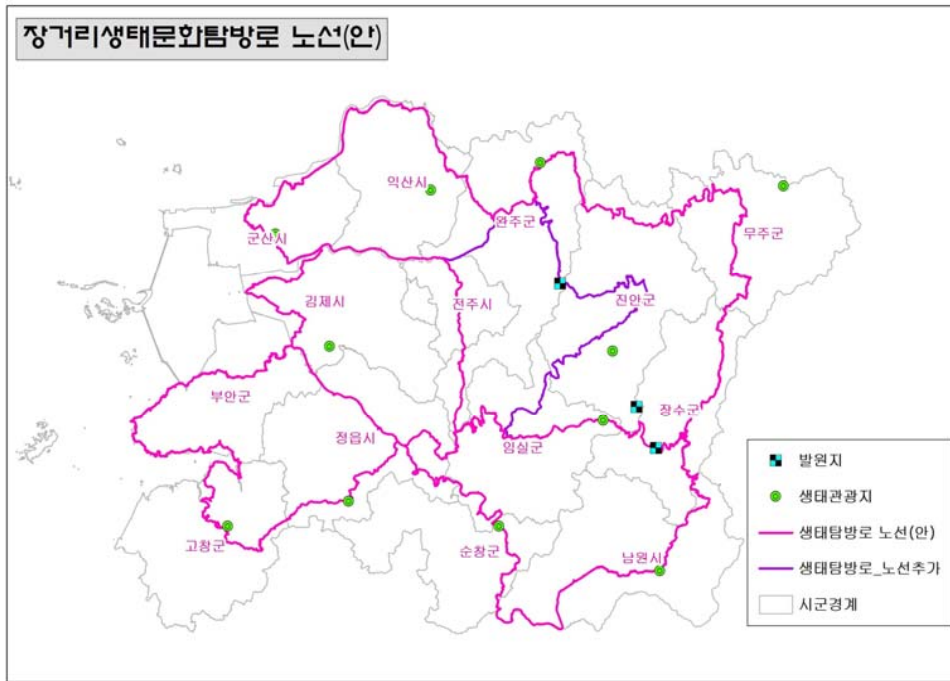
■ Research area and meth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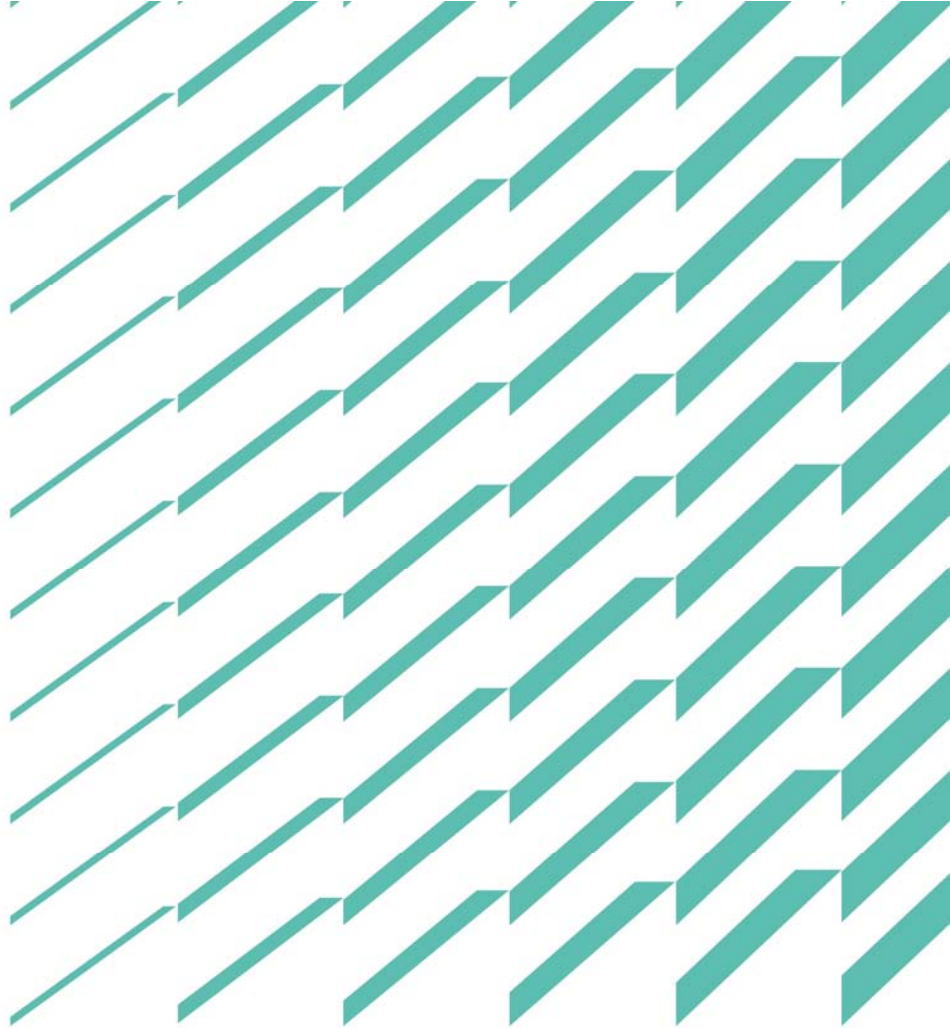
- The research area is 14 cities and counties of Jeollabuk-do.
- The research methods are to re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ong-distance walking trails and to perform a comprehensive analysis for route selection based on the database of the province's ecological and cultural resources.
- The site survey, expert advice,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agencies are planned for the decision of final trails (draft).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Selection of long-distance Ecological Culture Trails

- Five elements—existing trails, conservation resources, exploration resources, connectivity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are classified, and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are developed for each element.
- Final routes are selected as follows: laboratory analysis → preliminary identification of route proposals → satellite picture analysis → on-site research → re-routing and adjusting → final route selection.





부록

1.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예비노선 현장조사
2.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예비노선 현장조사표
3. 역사문화자원 현황



1.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예비노선 현장조사

가. 조사개요

전라북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 조성된 탐방로를 연계하는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안)을 계획하고 제안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탐방로로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내 완료해야하는 시간적 부담과 조사원 인력 문제로 현장조사는 신규 노선을 중심으로 2인 4개조로 7일간(2022. 9. 13 ~ 2022. 9. 30)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주요내용은 노선상태, 안전성, 자원성,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처음 제안 노선은 기존탐방로와 보전자원, 탐방자원 등을 고려하여 GIS 공간 적지분석을 통해 추출하였고,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입도와 농로, 산책로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이용객들이 이동 가능한 경로를 선정하였다. 다만, 이렇게 선정한 노선들이 실제로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DB를 통해 제안한 노선보다 실제로 경관이 더 우수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용이한 구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제안한 노선의 일부 구간은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검증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노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 1팀의 조사구간은 약 71km로 무주군 부남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출발하여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독촉골교를 종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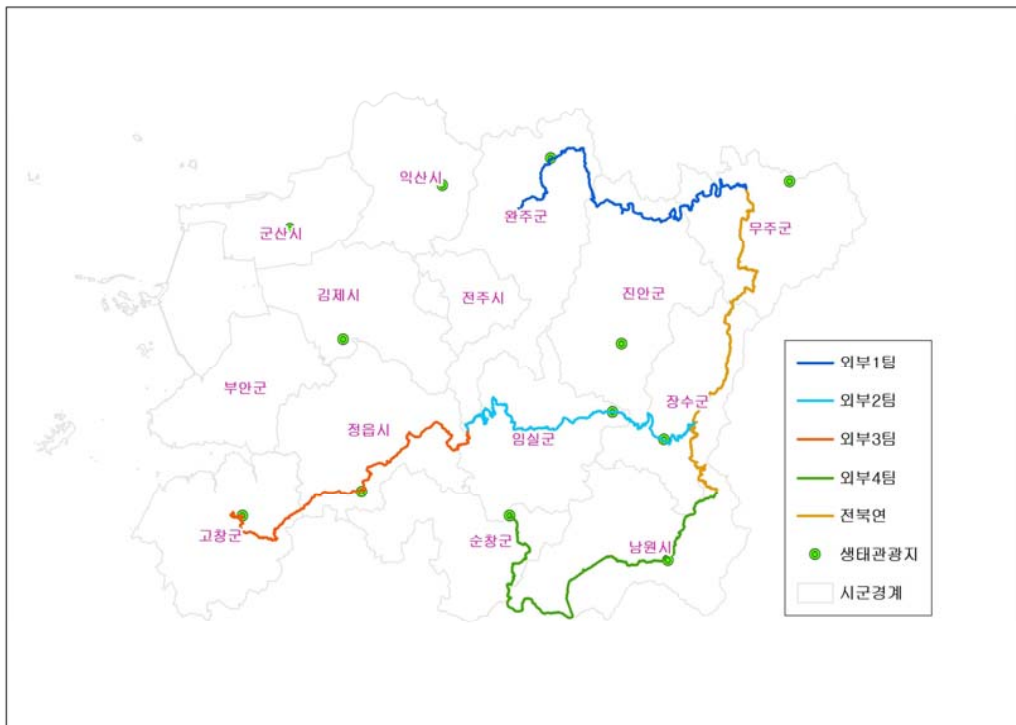
2팀의 조사구간은 약 68km로 정읍시 산외면 종산보건진료소를 시점으로 임실군 운암면 성수산 자연휴양림 상이암을 종점으로 하였다.

3팀의 조사구간은 약 70km로,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람사르습지 일대를 시점으로 시작하여 정읍시 산외면 종산보건진료소를 종점으로 하였다.

마지막 4팀의 조사구간은 약 71km로 남원시 아영면 아영초등학교 인근에서 출발하여 순창군 유등면 유등면사무소를 종점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예비노선 팀별 현장조사 시종점

팀	시점	종점	길이(km)
1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854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18-3	71
2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424-4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373	68
3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934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424-4	70
4	남원시 아영면 고인청계길 67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05	71



[그림 4-18] 팀별 현장조사 노선(안)

나. 조사결과

1팀 조사결과 진안 주천면사무소에서 용담면사무소에 이르는 15.4km는 용담호가 보이는 길로 조망이 우수하고, 성암길의 벚나무와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인근에 코스모스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늦봄에 노란 피나물꽃과 야생화들이 아름답다.

주요 문제점은 완주군 운주계곡 인근에는 캠핑하는 차량들이 많고, 공사구간이 많아 흙먼지가 다소 날렸으며,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산 29번지 일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 시 산사태 등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진안군 용암면 노온마을 내 도로 폭이 좁아 자동차 통행 시 탐방객들이 비켜줄 공간이 좁고, 일부 사유지에서 대형 건을 풀어 놓아 탐방객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무주군 덩달교 유평리 강변 길은 여름철 장마철에 농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1팀 현장조사 결과

구분	내용
자연자원	운주계곡, 봉화산, 매봉산, 피나물 군락지, 코스모스, 운일암반일암, 편백숲, 잣나무숲, 배틀바위 등
역사자원	대문바위, 진안섬바위, 화암사, 와룡암, 주천서원 등
문화자원	금강변마실길, 감동버룻길, 싱그랭이 에코정원, 대아댐, 놀토피아, 등
마을자원	천문대, 용담 섬바위 오토캠핑장, 용담 가족 테마공원, 용담 승마클럽, 주천, 생태공원, 와룡미술관, 농촌전통테마마을, 덕발골 산림욕 등,



용담호 및 벚나무



비포장 도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2팀 조사구간은 위에서 바라보는 옥정호 경관이 매우 우수하며, 옥정호 주변으로 데크와 정자들이 설치되어 있어 대체로 산책이 용이하였다. 임실 요산공원에는 봉어섬과 연결되는 출렁다리가 공사중이어서 다소 소음이 났고, 태극물놀이 일부구간은 산길이 가파르다.

주요 문제점은 임실 현곡마을 신재~임실요양병원 구간이 산길을 넘는 구간으로 굽이길이 많고, 인도가 없어 길을 걷기에는 조금 위험하였으며, 임실요양병원 인근은 차량통행이 많고, 장진영기념관~사양리 구간은 경사에 차도로 조금 위험하다.

2팀 현장조사 결과

구분	내용
자연자원	옥정호, 봉어섬, 국사봉, 수정난초
역사자원	요산공원, 양요정, 왕의 숲(성수산휴양림)
문화자원	상이암, 장진영 기념관
마을자원	외목마을, 상두마을, 옥정호 인근 카페,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



옥정호 및 상이암



차도 위험구간

3팀 조사구간의 주요 문제점은 고창읍성 가는 도심구간과 정읍 쌍정교와 신배교 인근 이 차도로 탐방객들의 안전 확보와 입암초~신기마을 진입 구간 안내판 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고창군 소갈재에서 정읍시 소갈재로 내려오는 구간이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정비 작업이 필요하며, 마을 주민 인터뷰 결과 정읍과 고창을 잇는 지름길이며, 과거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겨 풀만 무성하여 통행이 불가하다 하였다.

추후 3팀 노선 수정사항으로는 첫째, 고창~정읍으로 이어지는 소갈재 구간, 둘째 용산저수지 구간에서 데크길을 중간으로 분수대를 가로질러 내장산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수정이 필요하다.

3팀 현장조사 결과

구분	내용
자연자원	고창운곡람사르습지, 장살비재, 생태연못, 석정온천, 입암저수지, 용산저수지, 내장저수지, 정읍 구절초
역사자원	운곡서원, 유천제, 선유정, 관음사, 월영습지, 솔티숲지, 남천사, 무성서원, 약수암, 김명관 고택,
문화자원	안덕재, 각시바위, 고인돌홍보관, 불출암, 칠보천 캠핑장, 내장산국립공원, 정읍시립박물관, 1000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국민여가캠핑장,
마을자원	고창예향천리마실길 걷기 체험공간, 송현섭공원, 노래비,



내장호 및 용산저수지



소갈재 및 쌍정교 위험구간

4팀 조사구간의 주요 문제점은 3구간(남원시 운봉읍 주촌3길 96-23 ~ 남원시 주천면 안곡길 86) 일부 산길이 외지고 임도보다 좁으며 뱀 등이 출몰하여 탐방객들의 위험 노출이 우려된다.

노선 수정사항으로는 1구간 중돈육성장에서 매요저수지로 빠지지말고 송흥록 생가와 국악의 성지쪽으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판소리 성지와 관광장소가 있어 탐방객들이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느낄 수 있고, 봄철에는 벚꽃이 만발하여 경관이 우수하다. 2구간에서는 신기교에서 운봉초등학교로 우회하지 않고 람천 하천변을 따라 계속 걷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팀 현장조사 결과

구분	내용
자연자원	람천, 요천강, 논, 밭 등
역사자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 52호), 향토박물관, 광한루원, 김주열 열사 기념관 등
문화자원	송흥로 생가(동편제), 국악의 성지, 이순신백의종군길, 오토캠핑장 등
마을자원	서림공원, 김부각 공장 등



덕산저수지 인근 코스모스 길(좌), 덕음봉에서 바라본 자연경관(우)



산길 위험구간

2.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예비노선 현장조사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예비노선 현장조사표

1. 일반사항

조사일시	2022. 00.00. 00:00 ~ 2022. 00.00. 00:00	조사자	
조사구간			
구간길이(km)			

조사노선구간 현황도

2. 노선상태

항목		의견		설명	
난이도		생(), 중(), 해()		난이도 높은 구간	
경 사		급함(), 보통(), 완만함()		경사 급한 구간	
생 태 경관성		좋음(), 보통(), 나쁨()		종 구 은 간	
				나 구 쁜 간	
노 선 상 태		포장구간			
		비포장 구 간			
대 체 노 선 제 안 (필요시)					

항목	참고사진
난이도	
경 사	
생 태 경관성	
노 면 상 태	
대 체 노 선 제 안 (필요시)	

3. 노선 안전성

항목	의견		설명	
위험성	상(), 중(), 해()		위험성 높은 구간	
지장물	양	많음(), 적음()	지장물 위험 구간	
	종류			
소음	조용(), 보통(), 시끄러움()		좋은 구간	
			나쁜 구간	
도로 구간 (자동차)	도로노선 구간			
	위험성높은 구간			

항목	참고사진
위험성	
지장물	
소음	
도로 구간 (자동차)	

4. 노선 자원성

항목	자원설명
자연자원 (논, 밭, 바위, 산림, 해안, 지형, 습지, 하천, 섬, 갯벌, 모래사장 등)	
역사자원 (문화재, 유적지 등)	
문화자원 (사찰, 템플스테이 등)	
마을자원 (체험마을 등)	

5. 종합의견

탐방만족도	상(), 중(), 하()
애로사항 /건의사항	

항목	참고사진
자연자원 (논, 밭, 바위, 산림, 해안, 지형, 습지, 하천, 섬, 갯벌, 모래사장 등)	
역사자원 (문화재, 유적지 등)	
문화자원 (사찰, 템플스테이 등)	
마을자원 (체험마을 등)	
애로사항 /건의사항	

3. 역사문화자원 현황

1) 가야길(남원 방면)

■ 아막성⁵⁸⁾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 83번지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봉화산에서 남쪽으로 내린 산줄기에 있는 퇴피식 석축 산성이다. 삼국-나말여초의 유물들(기와 조각, 백제계 도자기 조각, 우물터)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로 602년(무왕 3)에 백제가 아막성을 침공하자 신라군이 물리쳤다는 기록 등이 있어 최소 7세기 초부터 중요한 전장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운봉 고원에서 2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밀집 분포된 것을 토대로 백제를 비롯한 가야계 소국들이 철을 기반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가야와 관련성도 있는 중요한 성이다.⁵⁹⁾



〈그림 1〉 아막성 발굴지 전경(남원시청)

58) 소재지, 문화재 지정 등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을 참조하였다.

59) 확장근.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52, 2015.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성내길 35-4
- 문화재 지정 : 사적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완만한 산줄기를 따라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무덤인 봉토분(封土墳) 40기가 분포하고 있다. 1989년과 2013년의 발굴 조사 결과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과 횡혈식 석실묘(굴식 돌방무덤)가 확인되었다.

이 두 유적은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고, 각종 토기류, 환두대도, 철모, 갑주편, 백제계 금동신발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과 유적들은 대가야와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5-6세기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한 고대 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8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록 중 하나로 전라북도 동남권의 대표적 가야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전북일보, 2021년 3월 16일)

■ 월산리 고분군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 1-10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아영면의 해발고도 450m 구릉 끝 부분에 위치하고, 9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파괴되었다. 판갑옷조각과 말재갈, 안장,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 철제초두 등이 발굴되어 가야계 소국의 존재 가능성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었다.

88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중에 발굴되어 줄음솜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닭의 머리를 형상화한 계수호는 이 고분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림 3〉 월산리 고분 출토 계수호와 쇠자루솜(국립전주박물관)

■ 청계리 고분군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아영면의 해발고도 450m 구릉 끝 부분에 위치하고, 월산리 고분군과 약 500m 떨어져 있다.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분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이다. 지난 2020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변의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은 아라가야계와 왜계 유물이 확인되는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수레바퀴장식 토기편을 비롯한 중국자기 등이 발굴되었고, 수레바퀴 장식 토기는 아라가야의 대표 유물이나 호남에서는 최초로 발견되었다. 또한 작은 빗은 일본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이를 통해 이 지역과 일본의 교류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난 2020년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림 4〉 청계리 고분 출토 수레바퀴형 토기(국립 나주완주문화재연구소)

■ 황산대첩비지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84 (회수리)
- 문화재 지정 : 사적

고려말 이성계가 황산 지역에서 왜군을 격파한 사실을 기록한 승전비가 있다. 고려말 왜군이 한반도 남부지역을 유린할 때 이를 제어할 장수가 없어 큰 피해를 보았다. 고려 조정은 당대 최고 명장으로 손꼽히는 이성계를 보냈고, 황산 일대에서 이들과 접전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신묘한 활솜씨로 이지란과 함께 적장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사살하는 등 큰 전과를 거두었고, 이는 『조선왕조실록』과 『용비어천가』 등에 남아 그의 활약과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황산대첩을 계기로 왜구의 침입이 완화되었다.



〈그림 5〉 황산대첩비

1577년(선조 10)에 조선 조정은 이성계의 승전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대첩비를 세웠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파괴하였다. 현재 새로운 대첩비가 있고, 그 옆에 파괴된 비석도 같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은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약 2Km 방면에는 왜구를 많이 죽여서 바위가 피로 물들었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는 피바위가 있어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곳에는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동편제 마을이 있다. 이곳은 가왕(歌王) 송홍록과 국창(國唱) 박초월의 생가가 있고, 관련 시설이 있어 연계가 가능하다.

■ 여원치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5-3번지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여원치는 남원에서 운봉, 함양으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예전부터 이용된 핵심 구간이다. 가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길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는데 현재 여원치마애불상, 임진왜란 시기인 1596년에 명나라 장수 유정이 지나가면서 기록을 남겼다는 ‘유정과차(劉挺過此)’와 이듬해 다시 지나갔다는 ‘유정부과(劉挺復過)’ 등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할 때 지나갔던 길이기도 하다.

여원치마애불상은 정상 아래의 암벽에 새겨져 있는 불상으로 높이는 2.5m, 어깨 폭은 1.09m이다. 불상 동쪽면에는 이 불상과 이성계가 관련 있음을 적고 있다.



〈그림 6〉 여원치마애불

■ 정령치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정령치로 1523

○ 문화재 지정 : 보물

정령치는 운봉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예전부터 이용된 핵심 구간이다. 서산대사 휴정이 쓴 <황령암기(黃嶺庵記)>에 마한 왕이 진한과 변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정씨 성을 가진 장군에게 지키게 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개 꼭대기의 정령치 휴게소에서는 지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보인다. 즉, 동으로 내려볼과 뱀사골 계곡, 서로는 천왕봉과 남원시가지 등이 보인다. 마한의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길 역시 예전부터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령치의 고리봉 아래 개령암터 뒤쪽의 절벽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이 있다. 이는 크고 작은 12구의 불상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불상군이다. 가장 큰 불상은 4m나 되고 조각솜씨도 뛰어나다. 양식은 고려시대로 보이고,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2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림 7〉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 교룡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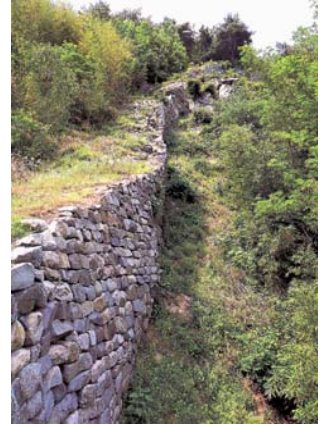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곡동 16-1번지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 남원 교룡산성은 교룡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돌로 쌓은 산성이다. 현재 무지개 모양의 동문과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옹성, 그리고 곳곳에 성벽이 남아 있다. 성안에는 다량의 우물과 계곡이 있어서 산성 주변의 주민들이 유사시에 대피하거나 농성전(籠城戰)을 수행하기에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는 군대

의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

- 산성을 언제 쌓았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성을 쌓은 입지나 형식으로 보면 백제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산성안에는 신라 신문왕대(685)에 건립되었다는 선국사가 있고, 대웅전은 도기념물, 큰 북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최제우가 이곳에 있는 은적암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여러 책을 저술하였고, 그 가운데 『논학문』이라는 책에서 ‘동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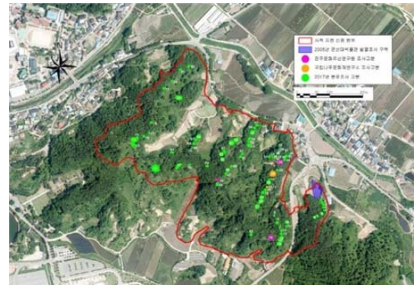
〈그림 8〉 교룡산성

■ 동촌리 고분군

- 소재지 : 전북 장수군 덕산로 128-1
- 문화재 지정 : 사적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읍 마봉산 산줄기에 있고, 중대형 고분을 포함한 83기가 분포되어 있다. 유구 및 유물을 근거로 5세기 초부터 6세기 초까지 걸쳐 형성된 가야 수장층 고분으로 추정한다.

고분에서 가야계 고분 최초로 장이 박힌 ‘편자’가 말뼈와 함께 출토되었고, 재갈, 동근 고리자루칼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은 전북 지역의 가야문화는 물론,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2019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9〉 동촌리 고분군 분포도

■ 침령산성

- 소재지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침령산성은 2017년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금남호남정맥 지맥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삼국-후삼국시대 호남 동부권의 요충지에 위치한 산성이다. 성벽과 문지, 치, 지름 15m에 이르는 대형 집수시설, 여장 등이 양호하게 남아 있어 고대 산성 구조 및 관방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림 10〉 장수가야 봉수대와 분포도(장수군청)

집수정 안에는 초기 청자와 글씨가 새겨진 열쇠와 목간 등이 나타나 당대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장수가야 탐방로는 봉수-침령산성-임도교차로-봉화산 정상-작은 싸리재로 이어지고 있다.

■ 금성리 고분군

금성리 고분군은 1972년에 수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야계 유물과 백제계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북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가야계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관촌면인 도인리에서도 환두대도와 밀집파상문 등이 발견되어 임실 지역 역시 가야계 세력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성리 고분군은 관촌면에 있는데, 이곳은 전주와 남원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통로였다. 현재 주위에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있어서 역사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

2) 금강마실길(무주·진안 방면)

■ 적상산성

- 소재지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번지
- 문화재 지정 : 사적

붉은 색 바위가 치마를 두른 것 같다고 해서 적상산이라고 부른다. 적상산성은 적상산 위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초에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난하였고, 고려 말에 최영은 이곳에 산성을 쌓을 것을 건의했으며, 조선 세종 때 체찰사 최윤덕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고려시대 거란과 왜구의 침입에 인근 여러 고을의 백성이 피난하였고, 그 사실에서 고려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11〉 적상산성 북문지 일대(문화재청)

1610년에(광해 2) 이곳에 조선시대 5개의 역사책보관소 중의 하나인 적상산사고를 설치하고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선원록』을 보관하였다. 실록전과 사각(史閣), 선원각, 호국사, 군기고를 세웠고 임진왜란 이후 진(鎭)을 두어 산성을 수축하고 운영했다. 조선 후기 전라북도 지역에 무관이 근무한 3곳의 산성(적상산성, 남고산성, 위봉산성)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적상산성 안에는 안국사가 있다. 1277년에 월인이 창건했다는 설과 조선 태조때 무학대사가 지었다는 설이 있다. 이후 1613년(광해 5)에 증축하였고, 적상산 사고를 지키기 위한 호국사가 있던 곳이다. 이곳에는 보물인 영산회괘불탱이 있고,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적상산성호국사비 등은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한풍루

- 소재지 : 전북 무주군 한풍루로 326-5
- 문화재 지정 : 보물

조선 시대 무주의 대표적 누정 건물인 한풍루는 호남의 삼한(三寒)인 무주 한풍루(寒風樓), 남원 광한루(廣寒樓), 전주 한벽당(寒碧堂)으로 꼽힌다. 현판은 한석봉이 썼다고 전해지며, 수많은 선비들이 글과 그림으로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이를 통해 당대의 문화상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5세기의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성임과 유순 등이 작성한 기록들을 통해 조선 초기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1592) 당시 왜군의 침입으로 전소된 이후에 다시 건립되었다. 원래는 남대천 건너편에 있었으나 어느 시기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그림 12〉 한풍루(문화재청)

무주 한풍루는 정면 3칸, 옆면 2칸의 중층 누각 팔작지붕 건물이다. 최근 목재 연륜 연대 분석에서 16-17세기 중수 당시 기둥과 창방 등 주요 목부재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임진왜란 전후의 중수와 복설, 일제강점기 훼손될 위기에 있던 건물을 원래의 모습과 자리로 되찾으려 하였고, 17세기 시기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점 등에서 역사, 건축,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2021년에 보물로 승격되었다.

■ 서면마을(소이진)

- 소재지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447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무주읍 대차리의 금강변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금산과 무주의 경계였던 곳으로 양 지방을 오가는 교통로로 배로 왕복했다. 서울 방면에서 무주로 오는 입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다. 적상산성에 『조선왕조실록』을 모셨기 때문에 포쇄(曝曬)를 위한 행렬 등도 여기를 이용하였다.

1872년 금산군 지방지도, 대동여지도에 소이진이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지금의 숙박 시설인 소이원(召爾院)이 있었고, 이곳에 관누정인 망풍루(望豊樓)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현재 무주소이나루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무주 사람들이 남대천을 건너기 위해 쉼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곳에 체험 시설이 있다.

■ 대소마을

○ 소재지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무주읍 부남면 대소리에 있는데 이곳은 경치와 더불어 문화자원이 빼어난 곳이다. 유평마을에서 대소마을 쪽으로 가면 대문바위가 있는데, 현재의 도로와 달리 예전에는 대문바위와 산자락을 통해 한 두 사람만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다. ‘대문바위와 이무기’라는 설화도 있다.

대소마을 동쪽 끝 골짜기 입구에 입석이 있다. 이는 높이 140, 너비 55, 폭 35cm로 마을 입구에서 마을수호와 생산과 풍요, 액막이 등 풍수 비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입석이 있는 동쪽 뒷산 소나무 숲에서 음력 정월 정월초에 산신제를 지냈다.



〈그림 13〉 대문바위

대소마을의 북쪽 입구에 초가집과 디딜방아 쪽에는 돌탑이 있었다. 이는 마을 입구에서

재액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비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현재 2개의 돌탑이 남아 있다.

대소마을에서 돌탑을 지나 강변을 걸어가면 벼룻길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대소마을에서 울소마을로 갈 때 이 벼룻길을 이용하였는데, 금강변의 절벽을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로 소문이 나았다. 현재 금강 마실길이 조성되어 있다.

대소마을에서 돌탑, 벼룻길을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꽤 큰 바위가 나오는데 이를 각시바위라고 한다.

■ 도소마을

○ 소재지 : 전북 무주군 부남면 유섬길 153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무주읍의 금강 상류 지점인 부남면 대소리에 있다. 마을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옛적부터 '섬소'라 불려 왔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도소(島所)'이다.

도소마을 뒷산에는 산제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산제를 올렸다. 1968년에 김신조 등의 무장간첩이 청와대를 습격하면서 정부는 산에 있는 건물을 다 없애라고 하였고, 원래자리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현재 산제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함석지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관장하던 사람이 죽은 뒤 당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마을 안 극락사 입구의 밭에서 18-19세기인 조선 후기 백자를 생산하던 백자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당시 지표 조사에서 백자편 등이 수습되며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자편은 대접과 접시, 사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죽도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211-1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기축옥사는 조선 최대 역모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때 주모자가 정여립이기 때문에 ‘정여립의 난’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전주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24세인 1570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율곡 이이의 천거로 관직에 오른 뒤 승승장구 하였으나 후일 이이를 비판한 소인으로 낙인찍혀 전주로 낙향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대동계를 조직하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형태로 손꼽히고 있다. 당시 그가 서실(書室)을 지은 곳이 바로 진안 죽도(竹島)이다. 후일 역모사건으로 금부도사 등에게 쫓길 때 아들 옥남과 함께 이곳에서 자결하였다.



〈그림 14〉 죽도(디지털진안문화대전)

죽도는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에는 죽도 유원지로 알려져 있었다. 각종 바위와 계곡, 폭포 등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했기 때문에 전주와 대전 등을 주변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하지만 용담댐이 담수되면서 고립된 섬이 되고 말았다.

정여립과 관련된 설화도 나오는데 천반산은 정여립, 부귀산은 관군으로 의인화하여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울러 송판서굴에서 정여립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여기에 죽도 서실을 지어놓고 대동계원을 거느리고 병마를 훈련하던 장소라고 한다. 약 15-20m 가량 떨어진 바위들을 정여립이 뛰어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 망향의 동산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산 4-1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2001년에 용담댐을 완공하면서 수몰된 용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망향의 정자와 망향탑이 있으며 태고정과 비석 8기,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에 있던 고인돌 등이 수몰지역에서 이전되었다.

1752년(영조 28)에 현령 홍석이 옥거리 주자천 천변 위 절벽에 지은 정자이다. 용담댐의 건설로 현재 위치로 옮겨지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양식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에 국가 재산으로 강제 몰수되었다가 공개 처분하였다. 이때 수천리 송림마을의 임소환이 250원에 사서 용담현의 공동 소유물로 기증하였다. 현판은 송준길이 썼고, 정자안에는 ‘용담태고정기(龍潭太古亭記)’가 있는데 송시열이 썼다. 현재 전라북도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15〉 망향의
동산(진안디지털문화대전)

■ 운일암 반일암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926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진안군의 주천면 대불리에 소재한 바위의 이름이다. 계곡은 운장산과 동북쪽의 명덕봉, 명도봉 사이에 발달한 계곡으로 약 5km에 이르며, 주자천 계곡 혹은 운일암 반일암이라고도 불린다. 70여 년 전에는 양 옆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따로 길이 없었다. 오직 하늘, 돌, 나무, 오가는 구름만 있어서 운일암, 깊은 계곡이라 햇빛이 하루에 만나절밖에

나오지 않아 반일암이라 불렸다고 한다. 옛날에는 용담현에서 전주로 가기 위해 이곳을 거쳐야 했지만 길이 험해서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얼마가지 못해 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질 운(隕)자를 써서 운일암이라고도 한다. 이 지명들은 『해동 지도』와 『1872년 지방 지도』 및 『호남 지도』에 반일암이 표기되어 있다.

진안군청은 이곳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고, 제1경 와룡암, 제2경 한천 등 운일암 반일암 28경을 지정하였다.



〈그림 16〉 1872년 지방도(반일암)

■ 마이산(馬耳山)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240-34
- 문화재 지정 : 명승, 보물, 천연기념물, 전라북도 기념물

마이산은 산 꼭대기의 두 봉우리가 말의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두 봉우리는 암마이봉(686.0m)과 숫마이봉으로 불린다. 산의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 봉우리 10여 개가 줄지어 있다. 마이산은 전체적으로 탑처럼 우뚝 솟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연기념물 은수사 청실배나무, 출사철나무 군락 등 다양한 식물상이 있다.

마이산 안에 있는 돌탑들로 약 80기에 이른다. 조선 전기에 나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명령에 의해 쌓았다는 설과 이곳에 오래 살았던 이갑용 처사가 쌓았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림 17〉 마이산천지탑(문화재청)

마이산 입구 남쪽에는 ‘주필대’라고 새겨진 곳이 있다. 이곳은 1907년 호남의병창 의동맹단의 집결지였고, 그 아래에 이산묘라는 사당이 있다. 주필대는 태조 이성계가 황산(남원)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개선하던 중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고, 이산묘는 면암(勉菴) 최익현 선생의 제자인 연재(淵齋) 송병선의 제자들이 건립한 곳으로 도기념물이다. 한말 의병 활동을 위해 창의하였던 곳이며, 태조 이성계의 건국설화가 있는 곳에 사우를 건립하여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당사는 마이산 남부 진입로에서 1.5km를 가면 있다. 814년(헌덕 6)에 혜감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이곳은 1692년(숙종 18)에 화가 명원(明遠) 등 4인이 그린 가로 5m, 세로 9m의 괘불탱화가 있다. 이는 관음보살입상으로 17세기 후반의 양식으로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보물로 지정되었다. 괘불탱화를 걸고 기우재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한 백제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3층 석탑과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목불좌상이 도지정문화재이다.

■ 도토리 청자요지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중평안길 13
- 문화재 지정 : 사적

도토리 도요지는 마을 내에 있는데 청자편과 갑발 등이 널려 있다. 1938년 노모리 켄(野守健)이 처음 알렸으며, 1982년 최순우가 다시 조사하였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진안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한국 초기 청자 전개에 중요한 유적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2019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18〉 도토리 청자요지(디지털진안문화대전)

이곳은 내륙 산간 지방의 초기 청자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다. 도통리는 고려 초기 청자의 집단 생산 지역으로 전주, 남원, 임실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성수면 도통리 일대에 세운 강주소(剛朱所)의 치소 역시 청자 생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동학길(고창·정읍·순창 방면⁶⁰⁾)

■ 손화중 피체지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322-65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손화중은 고창의 무장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한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접주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봉준, 김개남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혁명가이다.



〈그림 19〉 손화중
피체지(디지털고창문화대전)

손화중은 무장봉기를 주도하였으며, 백산대회 당시 김개남과 함께 총관령에 추대되었다. 2차 봉기시에 나주 지역의 강력한 민보군을 제어하기 위하여 나주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며 농민군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그 역시 몸을 숨겼다. 손화중은 1895년 11월 현재의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이씨 재실에서 은거하였으나 재실지기 이봉우가 고발하여 관군에 체포되었다. 이때 손화중은 이봉우에게 자신을 고발해서 상금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 선운사(도솔암)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문화재 지정 : 보물, 천연기념물, 전라북도 기념물

60) 관련 내용은 문화재청과 디지털고창문화대전, 디지털순창문화대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선운사는 선운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김제의 금산사와 함께 전라북도의 2대 본사로 고창 지역의 대표적 산사이다.

선운사는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577년(위덕왕 24)에 고승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전하고 있다. 전성기에는 3,000여 명의 승려와 암자 89개를 거느렸다고 한다. 현재도 조계종 24교구의 본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대웅전, 참당암 대웅전, 동불암지 마애여래

〈그림 20〉 선운사 마애불(디지털고창문화대전)

좌상,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참당암 석조지방보살좌상, 만세루 등 8개의 보물, 동백나무 숲, 도솔암 장사송, 삼인리 송악 등 3개의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운사 영산전목조삼존불상 등 도기념물 16개를 가진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많은 문인들에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도솔암 마애불에는 손화중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온다. 도솔암 마애불 돌출부에 비기(祕記)가 숨겨져 있었는데 손화중이 꺼냈다는 것이다. 원래 이 비기를 꺼내면 새로운 세상(開闢)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었다. 1820년에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서구가 이 소문을 듣고 열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고, ‘이서구가 열어 본다’는 대목만 보고 깜짝 놀라 다시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손화중은 1892년에 이 소문을 듣고도 동학 교도들과 함께 꺼냈다고 전해진다. 이 소문이 퍼지자 손화중의 접(接)에 수 만 명의 새 교도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실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손화중의 접이 가장 컸던 이유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병바위가 최근인 2021년에 명승지로 지정되어 함께 볼 수 있다.

■ 고창읍성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고창읍성은 읍내리 남동쪽에 있는 조선시대 고창현의 읍성이다. 일명 모양성(牟陽城)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장성 입암산성과 더불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 기지였다.

고창읍성이 언제 축조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최초의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이므로 그 이전인 15세기 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그림 21〉 고창읍성(디지털고창문화대전)

전국의 조선 전기 읍성 가운데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자연석 성곽으로 높이 4-6m, 둘레 1,684m이다. 읍성 안에는 객사와 동헌 등이 있고, 4개위 문과 6개의 치(雉), 수구문과 응성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척화비와 비석군 등이 있다.

지금까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모양성밧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여자들이 돌을 머리에 올리고 성을 돈 다음에 성 입구에 돌을 쌓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5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뒤 고창을 점령하고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다. 그러나 조정에서 보낸 경군이 전주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농민군은 8일 흥덕현과 고창현을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고창읍성에서 동학교도를 석방하고 무기와 호적 등을 빼앗고, 읍성 앞에 살며 고리대금을 일삼았던 전 대정(大靜)현감 은수룡의 집을 불태웠다. 이때 전봉준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고, 농민군이 무고한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였다. 이처럼 고창읍성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주변에 전봉준 장군 생가터가 있어서 연계할 수 있다.

■ 천원역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입암면 천원아랫길 3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 있었던 고려조선시대의 역원(驛院)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정읍현 남쪽 25리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삼례도(參禮道)에 속하였다. 이곳은 북쪽의 정읍, 남쪽의 장성, 서남쪽의 고창 방면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1896년(고종 33)에 전국의 역을 폐지하면서 천원역도 폐지되었다.

1011년(현종 2) 거란의 2차 침입때 현종이 나주로 피난하면서 이용하였으며, 1689년(숙종 15)에 귀양에서 돌아오던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길이기도 하다. 1884년에 조선을 여행한 미국 해군 소위 포크도 이 길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로로 지금도 호남고속도로, KTX, 1번 국도 등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장성 등을 점령하기 위해 지났던 길이기도 하다. 2021년에 이곳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갈재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문화재 지정 : 사적

황토현은 현재의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전적지이다. 동학농민군이 무장, 고창 등지를 점령하자 전라도 관찰사는 관군을 보내 진압하도록 하였다. 농민군은 원평까지 진출했다가 계속 후퇴하는 척하며 황토현 근처에 이르렀는데, 관군이 술을 마시는 등 방심하였다. 1894년 4월 7일에 이틈을 타서 농민군은 밤에 기습공격을 하였고, 관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 전투는 정규 관군과 전투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것이고, 농민군의 사기가 크게 올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1981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이날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양력 5월 11일)로 제정되었다.

2004년에 동학농민군의 최초 전승지인 이곳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개관하여 관련 전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만석보지(萬石湫址)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7-1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고부에서 신태인으로 가는 지점의 동진강을 건너는 다리 하류에 보를 쌓았던 흔적이 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의 상징이 만석보로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재임하면서 원래 있던 만석보를 무너뜨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보를 쌓기 위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이때 조병갑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700여 석

의 물세를 거두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분노가 쌓였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 세력이 고부 봉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전봉준 등의 농민들은 만석보를 때려 부숴다. 하지만 완전히 철거되지 않아 1898년에 고부군수로 왔던 안길수가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에 주민들이 안길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예동마을에 만석보혁명과 선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1973년에는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를 건립하였다. 1976년에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지난 2019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망쉼터를 조성하여 휴게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22〉 만석보지

■ 무성서원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 문화재 지정 : 사적(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신라 말에 최치원이 태산태수로 재임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생사당을 건립하였다. 이후 1483년(성종 14)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을 세웠으며 송세림이 학교의 형태로 확장하였다. 1618년에 생사당과 향학당을 합쳐 최치원과 신잠을 배향하여 태산서원으로 만들었고, 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목·김관을 추가 배향하였다. 1696년(숙종 22)에 '무성'이라고 사액을 받았다.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철폐할 때 남아 있던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1906년에 최익현이 이곳에서 강학을 한 뒤 호남지역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다. 무성서원은 1968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림 23〉 1910년 경의 무성서원
(칠광도 ; 정읍시립박물관)

이 지역은 유림들의 세가 강했던 만큼 동학농민혁명에 반대하는 유림들의 집결지로 활용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반농민군의 의병장인 김기술은 김개남과 같은 도강 김씨이다.

무성서원은 동학농민혁명에 반대하여 유림들이 민보군을 조직하기는 했지만 태인 지역 유생들의 근거지로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의병활동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 전봉준 피체지

○ 소재지 :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43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패하고 동학농민군은 논산, 전주로 후퇴하였다. 부대를 정비하여 원평과 태인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고, 결국 해산되었다. 관군과 일본군은 전봉준을 생포하면 큰 포상금을 준다고 하였다. 전봉준은 정읍과 순창 등지를 옮겨가며 숨어 있었다. 하지만 옛 부하인 김경천의 밀고로 1894년 12월 2일에 전봉준은 이곳 쌍치 피노리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재판을 받아 3월 29일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림 24〉 녹두장군 전봉준관

현재 유적지 정비가 완료되어 녹두장군 전봉준관과 유적비 등이 건립되었다.

■ 김개남 피체지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702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성에 있던 김개남은 공주로 올라간 전봉준과 합계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10월 14일에 남원에서 금산을 거쳐 진잠현을 점령하였고, 신탄진과 회덕을 거쳐 11월 13일에 청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여 후퇴하였다. 그 뒤 김개남은 진잠, 연산으로 퇴각하였고, 연산 일대에서 전봉준 부대와 합류하여 함께 후퇴하였다.

김개남은 전주에서 전봉준과 헤어져 자신이 머물렀던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가 태인 산내면 종송리 일대로 피신하였다. 이때 옛 친구인 임병찬이 밀고하여 관군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감영이 있던 전주로 압송되었으나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가 김개남을 두려워하여 서울로 압송하지 않고 처형하였다. 그의 수급은 한양으로 이송되었고, 3일간 효시하였다.

현재 피체지 뒤편에는 그를 밀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병찬이 의병을 조직했던 '임병찬 창 의 유적지'가 있다.

4) 문물교류길(익산·군산·부안 방면)

■ 성당포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답723-31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라북도 기념물

‘성당(聖堂)’은 ‘성포(聖浦)’라 불리기도 하는데, 조선 후기까지 8개 군현의 세곡을 운반하던 성당포구(聖當浦口)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656년(효종 7)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고, 1661년에 박세모가 쓴 보고서에 의하면 군산창법성창과 함께 전라도 지역의 3대 조창으로 등장한다. 즉, 조선 전기에는 웅포의 덕성창이 중심이었지만, 조선 후기는 이곳으로 변경된 것이다. 성당창 산하의 조세창은 함열·남원·익산·금



〈그림 25〉 성당포구

산·고산·진산·용담 등 8개 고을을 포함하였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성당창에는 쌀 800석에서 1,000석을 옮길 수 있는 조운선이 14척이었으나 1790년(정조 14)에 12척으로 줄었다.⁶¹⁾ 1894년의 갑오개혁 이후 조창을 폐지하면서 성당포구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포구 근처에 조운선의 순항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상제의 당목인 ‘성당면의 은행나무’가 전라북도 기념물, 성당포구농악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성당포구마을과 생태공원이 있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61) 문경호, 「『漕行日錄』을 통해 본 朝鮮 後期 聖堂倉의 漕運路와 漕運船 護送 實態」, 『도서문화』 49, 2017.

■ 옹포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옹포면 고창리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옹포면에는 ‘옛 창고’라는 의미의 고창리(古倉里)가 있다. 고창리는 옛날 조운창이 있던 곳인데, 조선 초 1428년(세종 10)에 용안 지역에 있던 ‘득성창(得成倉)’이 이설되면서 ‘덕성창(德成倉)’이 설립되었다. 조선 초기 전라도의 조운창은 크게 3곳으로, 옹포의 덕성창은 19곳, 나주의 영산창은 17곳, 영광의 법성창은 15곳의 조세를 모았다. 덕성창 산하의 조세창은 전주·임실·남원·임



〈그림 26〉 옹포 곰개나루터

피·김제·장수·금구·운봉·익산·만경·여산·금산·진산·태인·옥구·진안·고산·무주·함열로 부안·고창·정읍 부분을 제외한 전라북도 대부분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덕성창은 조세 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이 63척이나 있었다. 하지만 1482년(성종 13)에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갔다.

옹포면에는 나루터인 곰개나루가 있다. 이곳은 조선 전기부터 조운창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 강경이 발전하면서 그 중간 기지로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통해 크게 번성하여 전국 5대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철도의 개설과 수운 기능이 약화되어 쇠퇴하다가 지금은 폐항되었다. 현재는 옹포관광지와 곰개나루는 익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중 하나이다.

■ 군산항(군산진, 군산창)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장미동 일대
- 문화재 지정 : 국가등록문화재

1408년(태종 8) 옥구현에 있었던 전라 수영(水營)이 무안으로 옮긴 이후 군산 지역 해상 방어 및 조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426년(세종 8) 즈음에 옥구현 북쪽 진포에 군산진을 설치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증선 4척, 별선 4척 등 전선 8척에 수군 46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15세기 말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230명의 수군이 상주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법성창과 군산창, 성당창이 3조창으로 꼽혔고, 군산진의 만호가 성당창도 관리하며 호남 최대의 조세곡(租稅穀) 운반을 관할하였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1710년(숙종 36)에 만호진에서 종3품 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 대동미, 대동포 등의 제도가 폐지되어 군산창도 쇠퇴하였고, 이듬해 군산진이 해체되면서 군산창의 기능도 정지되었다.

1899년(광무 3)에 군산이 개항되면서 대한제국의 경무서, 재판소, 우체국, 세관 등이 설치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현재의 군산항 일대를 호남평야에서 산출되는 미곡 등을 수집하고 반출하는 최적지로 판단하여 군산 이사청 등을 개설하고 옥구부를 설치하였다. 1905년부터 축항 공사를 시작하여 총 4차에 이르렀고, 대형 고정 잔교의 설치 및 각종 건물이 신축되었다. 현재도 옛 군산세관 조선은행 등 군산근대화 거리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내항 역사문화공간, 뜬다리 부두(부잔교), 내항 호안 시설, 내항 철도,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등 등록문화재가 밀집해 있다.



〈그림 27〉 개항기 군산항
(디지털군산문화대전)

■ 선유도(고군산도)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도면
- 문화재 지정 : 명승, 전라북도 기념물

선유도는 고군산 군도의 중심 섬으로, 새만금의 전초기지이기도 하다. 선유 팔경으로 불리는 뛰어난 풍경이 아름답다. 이곳에는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가 발견되어 당시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백제와 후백제를 지나 고려시대에도 주요 교역로이자 기항지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고려 말에 최무선이 진포 대첩에서 승리할 때 후방 기지 역할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고군산진(古群山鎭)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전을 거둔 후 이곳으로 물러나 선조에게 장계를 쓴 곳이기도 하다.



〈그림 28〉 망주봉 일대
(디지털군산문화대전)

군산도는 중국과 통하는 해상 교류의 주요 거점이자 주요 조운로였다. 923년에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이 작성한『선화 봉사 고려 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하면 송나라 사신단 일행도 흑산도를 지나 군산도에 머물렀다가 개경에 이르렀다. 이때 김부식이 이들을 맞이하였으며 이곳에 송산행궁과 오룡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군산도의 군진(軍鎭)이 옥구현의 진포로 옮기면서 점차 고군산도(古群山島)라 불렸다. 이후 조선 후기인 1624년(인조 2)부터 군산도에 별장을 파견하였고, 순조대에 이르면 전선 6척, 병선 6척, 방선 2척, 사후선 10척이 배치되었는데, 전라우수영이 전선 2척을 보유한 것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이었다. 즉, 당시 조선 수군 진영 가운데 최대의 군선을 보유하고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1895년에 을미개혁이 추진되면서 해체되었다.

망주봉 일원은 명승, 선유도 고려유적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죽막동 유적(수성당)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 문화재 지정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전라북도 기념물

죽막동 유적은 변산반도의 돌출된 가장 끝 해안절벽 위에 있다. 이곳은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중요한 길목이며, 고대부터 지금까지 뱃길 안전과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해양 제사를 하는 곳이다. 1992년 발굴조사에서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가야, 백제 통일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왔다. 아울러 조선 등과 고대 중국 및 일본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해양 제사 의례의 변천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도 매년 열리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바로 옆에는 수성당있다. 이곳에서 어부들의 안전과 풍어를 도와준다는 개양할미를 모시며 제를 모시는 당집이다. 수성당은 삼국시대 이후 바다와 관련된 제사를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죽막동 유적과 연계된다. 수성당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주변에 후박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의 채석강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 곰소항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02
- 문화재 지정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전라북도 기념물

부안은 전남 강진과 함께 대표적 고려청자 생산지로 유명하다. 부안의 청자가 바로 곰소항 일대인 유천리와 진서리 등에서 제작되었고, 현재 이곳은 각각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 홍보와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해 부안청자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 일대에 고려 12창 중 하나인 안홍창이 있었고, 진서리와 유천리에서

제작된 고려청자를 유통하였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유천리 일대에는 토성(土城)이 있는데, 수군기지 혹은 보안현의 방어시설로 추정된다.

진서리와 유천리 일대에는 77개의 크고 작은 가마터(요지)에서 제작한 최고급 청자부터 중하품의 상업용 청자가 대대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청자들은 안흥창과 검모포 등에서 조운을 통해 개경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즉, 왕릉과 고려궁성, 강화도, 보령원산도, 진도 명랑대첩 해역, 군산 비안도 등의 해저유적에서



〈그림 29〉 유천리 요지(디지털부안문화대전)

까지 발견되기 때문에 그 경향을 알 수 있다.

구진마을에는 검모진이 있었던 곳으로 백제 때부터 진이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진이 있었다. 이곳은 1812년에 지금의 진서마을회관 인근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또한, 이곳은 조선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변산의 목재가 유명해서 나라의 재목창이자 조선소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 변산의 목재는 고려시대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주변에는 반계 유형원이 거주하였던 우반동이 있다. 유형원은 실학의 비조라고 알려져 있고, 『반계수록』을 저술하며 많은 제자를 길렀다. 허균 또한 이 일대에 머물면서 『홍길동전』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홍길동전』에 변산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곰소항은 과거 국가 어항으로 지정될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 위상을 격포항에 내줬다. 대신 변산 마실길 7코스로 곰소 염전과 젓갈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5) 순례길(익산·완주·전주·김제 방면)

■ 나바위 성지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 문화재 지정 : 사적

1845년(헌종 11) 10월에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페베을 주교 등과 함께 처음 도착하였다. 나바위 성지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1906년에 건립한 성당이다. 1906년 베르모레르 신부가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7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김대건 신부는 페베을 주교 등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당시 큰 시장이었던 강경에 도착하기 전 밤에 나암포 화산 언저리에 몰래 내렸고, 나바위 성당 근처에서 머물다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김대건 신부 일행 착지처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기념물, 성당 등을 건립하였다. 여기서부터 순례길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김대건 신부 순교 기념비 등이 건립되어 있고, 해마다 많은 천주교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성지이다.



〈그림 30〉 나바위 성당

■ 숲정이 성지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95
- 문화재 지정 : 전라북도 기념물

‘숲정이’는 마을 근처의 숲 이라는 뜻으로 여산 동헌 부근의 숲에서 병인박해때 천주교인을 처형했던 곳이다. 병인박해 시기(1866~1871) 여산에는 전라도의 군대인 5진영 가운데 후진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주교도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고산 대아리 넓은 바위골에서 신앙촌을 이루며 살던 김성철을 비롯한 17명을 처형하였다. 또 다른 사형 집행지인 여산 동헌 바로 아래의 백지사(白紙死) 터와 함께 성지로 인정받았다. 이들의 유해는 후일 천호성지에 안치되었다.



〈그림 31〉 숲정이 순교성지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는 병인박해 시기 천주교 탄압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장소이다. 주변에 여산부의 행정 중심지였던 동헌 등이 있다.

■ 천호 성지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천호산은 ‘하늘 아래 호리병[壺]처럼 둘러싸인 산골’에서 유래되었고, ‘천주(天主, 하느님)를 부르며 살아간다’는 뜻에서 ‘천호(天呼)’로도 불린다. 후자는 순교자들의 시신이 묻히고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형성된 지명이다.

1839년 기해박해를 전후한 시점부터 천호 마을에 천주교 신자들이 거처한 것으로, 충청도와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듯이 충청도 쪽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주하였다. 병인박해때 숲정지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6명 중 손선지, 정문호, 한재권 등 고산현(현재의 완주군 소양면) 출신의 3위와 이명서를 포함한 4위의 성인이 순교한 직후

가족들이 이 일대로 이주하여 순교자의 시신을 묻고 거주하였다. 1877년에 입국한 블랑 신부 등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종교활동을 하였고, 베르몽 신부가 1906년 고산본당에 부임하여 이 일대를 보존하였다.

천호성지는 박해시대 천주교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자 호남 교회사 연구의 중심지이다.



〈그림 32〉
천호성지(디지털완주문화대전)

■ 송광사

- 소재지 : 전북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 문화재 지정 : 보물, 전라북도 기념물

송광사는 867년(경문왕 7)에 체징(體澄)이 창건하고 고려 중기에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이 중창했다고 한다. 이후 정유재란때 화를 입어 대부분 불탔으나 1622년(광해 14)에 중창하였다. 이후 계속 송광사의 규모가 성장하였고, 17세기에 이르면 상당히 거대한 사찰로 성장한 전주, 완주 일대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이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의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그림 33〉
송광사(디지털완주문화대전)

송광사에는 대웅전, 종루, 소조사천왕상 등 보물 3개, 일주문, 명부전소조지장보살삼존상및권속상일괄, 오백나한전목조석가여래삼존상및권속상일괄, 동종, 목조삼전패, 나한전, 금강문, 사적비(史蹟碑), 벽암당부도 등 전라북도 기념물 9개를 보유하고 있다.

■ 전동성당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 문화재 지정 : 사적

전라감영과 진영(군부대)이 있던 전주는 천주교 신자들을 사형시키는 일이 많았다. 주로 풍남문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순교터에 세워진 성당이다. 1908년에 프와넬(Poisnel) 신부가 설계를 직접 하는 등 성당 건축에 착수하여 1914년에 준공하였다. 마침 1907년부터 풍남문을 제외한 전주부성의 철거 작업으로 성벽 일부가 성당의 주춧돌로 이용되었다.

전동성당은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건물로, 초기 천주교 성당 가운데 규모가 크고 외관이 아름답다고 알려졌다. 1981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주변에 보물인 풍남문, 새로 복원한 전라감영지, 경기전, 한옥 마을 등 전주의 역사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원들이 많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4〉
전동성당(문화재청)

■ 금산사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 문화재 지정 : 사적, 국보, 보물, 전라북도 기념물

금산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로 전라북도의 최대 사찰이고, 그 위상에 걸맞게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백제 법왕 때 창건했다고 하는 설과 신라하대에 진표율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창건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표율사 이전부터 금산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진표율사 이전부터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 혜덕왕

사가 증창하였다. 금산사는 전라도에서 대표적 사찰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정유재란 이전에는 80여 채가 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호국 사찰의 역할을 하였으나 전란으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후 점차 증창하여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금산사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륵신앙의 중심지이다. 또한, 견훤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폐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금산사 일대는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국보인 미륵전을 비롯하여 석련대, 오층석탑 등 보물 10점, 대장전 목조사존불상과 광배와 같은 전라북도 기념물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5〉 금산사 미륵전(문화재청)

주변의 귀신사와 금산교회도 중요한 곳으로 추가적으로 둘레길에 포함할 수 있다.

■ 초남이 성지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 문화재 지정 : 해당 없음

초남이성지는 완주군 이서면 초남이 마을에 있다. 이곳은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생가터이다. 그는 전주 유씨로 이 일대의 세족이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건설되기 전까지 이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주 유씨가 세거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항검은 세례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노비, 유항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결과 전주와 김제, 정읍 등 전북 지역 서부권 일대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1795년에는 주문모 신부가 유항검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천주교의 전파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 1801년(순조 1)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유항검은 가장 먼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1801년 9월에 사형 판결을 받고 풍납문 밖에서 동료들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유항검의 재산은

몰수당하였고, 유항검의 집은 허물고 집터를 파서 웅덩이가 되었다. 이후 유항검 일가의 시신은 초남이 옆에 묻혔다가 1914년에 치명자산성지로 이장하였다.

유항검의 생가는 전라도 천주교의 시작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부터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유항검 나눔의 집’을 신축하여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삼남대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향후 삼남대로를 개발하면 더욱 유용하게 연계할 수 있다.

■ 미륵사지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문화재 지정 : 사적, 국보, 보물

미륵사는 백제 최대의 사찰로 무왕 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무왕과 선화공주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009년에 서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금제사리 봉영기에 의하면 639년에 사택적덕의 딸인 왕비가 건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미륵사는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배치인 1탑 1금당이 아니라 세 개의 탑과 금당 등으로 구성된 3탑 3금당의 배치형식이다. 백제 최대의 사찰로 백제,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현재는 금당지와 강당지, 연못지 등을 정비하였고, 2020년에 국립익산박물관이 경내에 설립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은 3탑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한 탑으로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그림 36〉 미륵사지

크고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되나 훼손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었다. 『유금마성기』에 의하면 18세기 중엽에도 6층까지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웠으나 2001년부터 해체를 시작하여 2019년에 준공을 하였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당간지주와 금동향로,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가 보물, 석등 하대석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1966년에 이 일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015년에는 왕궁리 유적을 비롯한 공주·부여의 백제 문화유산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주변에 쌍릉, 미륵산성,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왕궁리 유적과 왕궁리 오층석탑 등 백제와 관련된 주요 유적이 주변에 있어 연계가 가능한 핵심 유적이다.

기획연구 2022-0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10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06-0 955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2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신산업 생태계 및 산업기술지도 분석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지역경기지수개발 연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도시 회복력 관점의 전라북도 주거지 특성 분석 연구
2022 전북형 행복지표 실태조사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 방향
전라북도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기획연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전북의 대중국 초광역협력 방안 연구
전라북도 주력산업 경쟁력 진단과 중장기 발전방향 : 신재생에너지산업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구상 연구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 연구

정책연구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수계기금 지원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기업 참여방안 연구
전라북도 인삼산업 육성정책 기본방안
전라북도 바이오화학산업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소 보급 및 관리방안 연구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선방안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 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연구
전북여성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전라북도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